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4호
1998

■논문

- 문화구성체론으로 보는 민족문화의 동일성 김도종 3
조선반도남북문화의 공통성과 차이 및 통일의 과제 김경일 22
韓半島에서의 民族主體性 形成 過程에 관한 研究 정영순 43
朝鮮封建내셔널리즘의 構造와 展開 변영호 61
김부식의 유교적사관과 문학세계 김예령 81
朝鮮 後期의 日本語 教育과 倭學書 정승혜 94
大阪市 生野区 定住 在日코리안 一世의 日本語 運用 김미선 135

■서평

- The Korean War, an unanswered Question 김문욱 159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S STUDIES(ISKs)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문화구성체론으로 보는 민족문화의 동일성

김 도 종

Identity of National Culture in the Theory of Cultural Formation

Humanbeings identify themselves in the leaderships and the social communities that altered history. In the primitive age, the leadership of the clan and tribe systems were the foundation of identity. Historically humanity was maintained by three stages of leadership and community, religious, political, and economic.

The catalyst of change from one stage to the next being population growth, diversifying desires, and self-awakening as spiritual beings. But in the contemporary age, humanity is founded in neither leadership nor community but in "Cultural Construction". Humanbeings therefore identify themselves in "Cultural Construction". Although "Cultural Construction" contains physical desire, spiritual desire, and many types of traditional leaderships and communities, it also consists of numerous professions, social stratum, production methods, religion, and science (wissenschaft). The most powerful element of "Cultural Construction", however, is ethnicity.

Korea's reunification will be concerned with an identity problem within the ethnic element of "Cultural Construction". Through the theory of "Cultural Construction" one can see that Korea's identity crisis is a universal problem that has existed throughout the philosophy of history.

김도종 : 원광대학교 철학과 교수

* 이 글은 국제고려학회 철학, 종교 부회가 주최하는 북경학술회의('96.10.24-26)의
발표용으로 작성한 것이다.

1. 문화구성체의 개념

1-1. 사람의 “본성적 의식”과 “자각하는 의식”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살기도 한다. 의식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각하며 산다는 말이다. 사람의 본질을 의식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으로 본 것은 도이치 관념론의 철학자들이나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자들이나 한결같이 동의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이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 그 의식이 본성적인 때도 있고, 또 자각적으로 의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각적으로 의식한다는 것은 반성적인 의식, 다시 말하면 거듭 생각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어느 경우에나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 보고 비판적인 태도로 자신의 선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의식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본성적 의식에서부터 자각적 의식에 이르기 까지 그 사이에 자각의 정도와 대상에 따른 많은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육체적인 성장이나 정신적인 성장에 따라 자각의 영역을 넓혀간다. 어린이 시절, 청년기 시절, 장년기 시절, 노년기기 시절에 따라 거듭 생각하는 능력이 달라지고 자각의 영역도 달라지는 것이다. 사람은 성장이나 삶의 시간적 과정에 따라서만 자각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 이거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자각에 유리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의 내면적 심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또 사람이 자각하는 내용이나 방향도 다르다. 육체적 욕구를 자각하는 단계가 있고 정신적인 욕구를 자각하는 단계도 있다.¹⁾ 생명가치만을 자각하는 단계도 있고 경제적 가치를 자각하는 단계가 있으며 미학적 가치, 윤리적 가치, 종교적 가치를 자각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서 이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자각하여 실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욕구를 자각하는 것도 그렇다. 사람으로 출생하여 한 사람의 개체가 되었다고 하여 모든 욕구를 한꺼번에 자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몸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나 성적인 욕구는 어느 정도의 연령이 지난 다음에 자각하고 실현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다. 또 정신적인 영역에서 윤리적 가치를 자각하는 경우에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의무의 수준을 자각하는 단계도 있고 민족과 나라에 대한 의무와 사랑을 자각하는 단계도 있는 것이다.

1-2. 역사에서 보는 “자각하는 의식”

이러한 자각의 단계는 한 개인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자각은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개인은 일생동안 산다 할지라도 한정된 자각의 단계에 머무르지만 역사에서는 모든 단계의 자각이 완성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역사의 시기는 의, 식, 주의 기본적인 욕구만을 자각하기도 하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학문과 종교 등의 영역에 대해 자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시기도 있다. 그리하여 역사가 어느 정도 경파한 뒤에 삶의 모든 요소에 대한 자각과 실천이 뒤 따르는 것이다. 또 역사적인 시기마다의 자연적이거나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욕구와 가치를 자각하고 실현하는 방향이 변화한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역사적 존재가 정신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의 통화(統和)²⁾로 이루어 진 만큼 여러 영역과 여러 단계의 “자각과 실현”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개인에게 있어서 자각의 정도와 수준은 한정적이지만 역사 전체를 통해서는 모든 인류의 자각의 정도와 수준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인류라는 차원에서 총체적인 자각과 실현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자각하는 의식의 대상과 단계는 여러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자각하는 의식은 당 시대의 역사를 구성하는 물질적인 부분과 항상 대응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각하는 의식과 그에 대응하는 물질적인 부분의 변화는 안으로의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일정한 시기마다 변화의 매듭을 만든다. 그러나 종래 역사학의 시대구분은 반드시 의식의 자각정도와 물질적 환경의 대응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역사의 구분을 신의 의지를 중심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물질적 환경을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자각하는 의식 보다는 우주의 도수(度數)를 중심으로 역사의 시기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신들의 죽보(Theogonia)”를 쓴 헤시오도스(Hesiodos:서력 기원전 9~8세기)는 역사를 황금의 시대—은의 시대—철의 시대—동의 시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그 가운데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크리스트교의 역사관도 결국 신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동아시아의 역(易)의 철학에 입각한 역사관은 음양 오행의 변화에 따른 우주의 도수를 역사의 시기구분을 위한 척도로 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인류가 사용한 생산수단에 따라 역사의 시기를 구분하였고, 헤겔은 자유의식의 진보의 역사로 세계사의 과정을 이해하였다. 여기서 보면 자각

하는 의식의 단계를 말하는 것은 헤겔이 가장 근접한 것 같다. 그러나 의식의 자각과 대응하는 물질적 환경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므로서 일면성을 드러 냈고, 마르크스는 물질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접근을 하였으나 역사의 주체의 하나가 되는 자각하는 의식에 대해 관심을 소홀히 하므로써 일면성을 드러냈다.

1-3. 자각하는 의식과 문화구성체

자각하는 의식에 대응하는 물질적 환경이나 산물에 대해 말하는 것은 동물에 대한 사람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생물학의 이론 가운데에는 사람을 철저히 생태계의 일부로만 취급하는 이론이 있다. 사람의 의식적 행위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동물의 생태계의 벗어나는 다른 고차원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고도의 의식적 행위가운데 자기희생이라는 행위를 가정하자. 그런데 그런 희생이 동물들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감부시아라는 물고기는 폐를 지어 사는데 곤돌메기가 공격할 때 감부시아의 왕초가 그 중 작은 물고기에게 화학물질을 내뿜고 그 화학물질이 몸에 닿은 물고기는 스스로 곤돌메기에게 잡혀 먹히므로써 남아 있는 자기종족을 보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부시아의 희생적 행위를 합리적 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³⁾ 감부시아의 희생을 본능적 생태계 현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 사회조직에 따른 의식적 행위로 보느냐하는 것은 제쳐 놓고, 그것을 의식적 행위로 간주한다하더라도 앞서 말한 바의 지극히 초보적인 “본성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본능적 행위와 거의 구별이 안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부시아의 그것이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희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종족 보존을 하는 그 이상의 물질적 산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의 경우를 보자. 사람이 의식적 희생을 하는 경우에는 혁명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 나며 사회조직이 달라진다.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며 그를 기념하는 의례가 만들어 지기도 한다.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다른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동물의 경우에는 의식인 것으로 보이는 행위라도 그 결과는 자연적 평형으로만 나타나지만 사람의 의식적 행위에는 물질세계에 대한 인공적인 변형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의식의 진보는 물질의 진보와 대응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인 것이다. 즉 물질과 의식은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다. 마치 사람이 청소를 하

는 행위는 의식적인 것이지만, 청소를 끝낸 상태는 또한 사람에게 맑은 정신을 주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물질의 진보와 의식의 진보는 서로 대응하며 일정한 삶의 방식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은 일정기간 동안 유사한 형태와 방향을 갖는다. 이것이 다름아닌 문화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문화를 삶의 총체적인 방식이라고 말하는 구체적인 뜻은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는 단순한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문화는 삶의 세계에 걸들여 지는 수동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각의 단계를 따라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구성”인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문화를 구성체(構成體)의 단위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때 단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구성요소가 서로 일정하게 대응하는 상태를 중심으로 보기때문이다. 구성 요소의 상태는 물질적 기반과 의식의 자각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물질과 의식은 항상 변화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유의할 일이다.⁴⁾

2. 문화구성체의 요소

2-1. 문화구성체의 물질적 요소

문화는 우선 자연적 환경을 기초로 구성된다. 지리적 형태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내륙지방의 삶과 바닷가 지방의 삶이 다르고 대륙의 삶과 섬지방의 삶이 다른 것이다. 평야지대의 삶과 산간지역의 삶, 물이 많고 토질이 나쁜지역의 삶과 물이 많고 토질이 좋은 땅의 삶이 다른 것은 구태여 증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실한 사실이다. 또 기후에 따라서도 삶은 달라진다. 온대지방, 열대지방, 한대지방의 삶이 각각 다르다. 자연환경이 일시에 파괴되는 경우에 그 곳에서의 사람의 삶의 단위는 없어지게 된다. 일시에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가라앉는 경우에 사람의 생존 기반은 없어지는 것이다.

자연의 환경은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예를 들어 금속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석기를 가장 좋은 도구로 사용하였고 초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항해술을 발전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의 환경, 지리적 환경, 그것의 빈약함이나 풍부함은 산업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것은 문화사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

한 일이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여기에 덧붙여서 토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산물의 다양성이 사회적 노동의 분업이 이루어지는 자연적 기초를 이루고, 자연적 사정의 변화가 사람의 요구, 능력, 노동수단, 노동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자극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자연의 힘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려는 필요성은 산업의 역사에서도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고 하였다.⁵⁾

그러나 사람은 이처럼 자연적 공간의 영향을 받는 것만은 아니다. 사람이 만들거나 개조한 인공적 자연환경도 있는 것이다. 도시 공간이 그렇다. 도시는 결코 자연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은 아니다. 건축물과 토목공사를 한 가공적 자연환경, 수도와 전기등 도시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환경이지만 역시 지리적 기반으로서의 영향을 주는 것이다. 비단 현대의 도시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시기의 풍수지리학으로 보더라도 자연의 조건을 개량하므로써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한 것으로 지맥을 연장하거나 보강하기 위해 둑을 쌓는 일 등을 행한 역사적 사실을 참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람을 자연의 기초로 볼 때 전 지구적인 상태계에 속하면서 생태계의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 어떠한 식물, 어떠한 동물이 생활공간에서식하고 있는나하는 것에 따라서도 생각이 바뀌어 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자연의 기초, 물질적 기초는 인공적인 파괴 때문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오늘날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 파괴는 삶의 자연적 기초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환경을 보존하고 그것을 재생시키려는 인류의 노력은 삶의 자연적 기초, 물질적 기초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비롯된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문화구성체 요소인 욕구

사람의 욕구는 물질에 기초하고 있지만 반드시 물질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욕구는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생명을 가진 존재만이 주체적인 욕구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생명도 물질을 구성요소하여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물질과 일치하는 것은 아닌것과 같다. 이 욕구는 상공업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의 창학적 원리로 받아들여 지기도 하였다. 돌바흐(Paul Henri Thiry baron d'holbach:1723-1789)는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구한다고 한 반면 마르크스는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한다고 한 점이 다를 뿐이다.

욕구를 이처럼 삶의 기초로 이해하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금욕주의적 도덕론자는 욕구를 부정적인 요소로 보기도 하였다. 여기서 욕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덧 붙일 필요가 있다. 욕구는 반드시 감각에 기초한 욕구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몸에 기초한 욕구도 있고 의식이나 정신에 기초한 욕구도 있다. 의, 식, 주와 관련한 몸의 기본적인 욕구, 성과 수면의 욕구, 재산에 대한 욕구등은 물질적 감각에 기초한 욕구에 가깝다. 여기에 비해서 명예욕과 같은 것은 의식에 기초한 욕구에 가깝다.

그런데 욕구는 전통적인 5욕에 해당하는 욕구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즐거움에의 욕구, 조화에의 욕구, 알고자 하는 욕구, 새로운 것에의 욕구, 보편에 도달하려고 하는 욕구등 사람의 욕구는 존재론적 토대 위에서 여러 가지의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욕구에 토대하여 학문도 학문도 나오고 예술도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식이 보다 많은 자각의 단계로 성장하는 것처럼 사람도 모든 욕구를 한꺼번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많은 욕구, 그리고 일정한 자기 취향의 욕구를 자각하고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는 시대와 지역을 달리 하면서 욕구의 내용과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2-3. 문화구성체의 정신적 요소

사람의 이성, 감성, 지성, 덕성등은 문화구성체의 정신적 요소가 된다. 이성, 감성, 지성, 덕성은 사람에게 잠재해 있지만 그것을 발현하는 상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시대와 지역을 따라서도 다르다. 이러한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는 종래의 신성(神性)에 가리워져 있던 이성을 적극적으로 자각하던 시대였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고전 철학은 덕성의 계몽에 중점을 둔 철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술 일반은 감성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고 진보를 지향하는 역사의 창조 집단들은 지성을 요구하는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영성(靈性)이나 불성(佛性)의 자각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영성, 또는 불성에 대해서는 현대과학이 그것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새로운 탐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정신적 요소들을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신봉하거나 자각하여 발현하는 상태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의 방식이 존재하게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각 개인마다 지능과 교양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교육과 훈련에 의해 극복할 수 있다. 이로 부터 추론하여 각 종족이나 민족도 그것이 서로 다른 것이 현실이며, 그 역시 교육과 훈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2-4. 문화구성체 요소인 직업과 사회계층

직업과 사회계층에 따라서도 삶의 방식이 다르다. 전통적인 구분 방식에 의하면 사농공상에 따라 삶의 방식, 즉 문화가 달랐다. 오늘날의 직업은 2만여가지에 이른다고 하는데 개개의 직업마다 일정한 문화를 갖는 것은 현실이다. 그것 뿐만이 아니다. 연령층에 따라서도 각기 가지는 문화가 다르다. 어린이의 문화, 청년의 문화, 그리고 노년의 문화가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전통적인 시대에 직업이 세분화 되지 않았을 때에는 특정인은 특정한 직업, 그리고 그 계급에만 속했기 때문에 한 가지 형태의 문화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는 한가지의 직업이 그 사람의 문화를 한꺼번에 결정할 수 없다. 현대인의 특징은 여러 직업과 계층에 걸쳐 다양하게 소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향유하는 문화도 다양하다는 말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그 문화가 조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수많은 영리단체와 비영리 단체가 있어서 여러 형태의 엇갈린 조직으로 얹혀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느 한 조직에만 소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현대인은 필요할 때마다 기차나 버스, 비행기나 배를 바꾸어 타는 것처럼 수시로 여러 사회계층과 조직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한 계급적 성격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가하는 점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2-5. 문화구성체 요소인 생산양식

생산양식이 사회구성체의 원리가 된다는 것은 마르크스가 고찰한 바 있다. 유물사관의 공식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구성체의 원리가 역사 변동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말하는 생산양식이라는 말은 재화를 만들어 내는 방식과 소비의 양태를 동시에 포괄하는 말이다. 특히 문화 구성체의 경우에는 만들어 내고 유통시키는 방식 만이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소비양태도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농업적 생산양식의 시기와 기계공업적 생산양식의 시기를 지나

현대는 탈공업적인 문화적 생산양식의 시기에 접어 들었다. 문화적 생산양식의 시기는 소비자와 소비양태가 무엇보다도 중심에 떠오르는 시기가 되었다는 말이다. 마르크스는 기계공업적 생산양식의 사회 이후의 사회를 몰랐지만 현대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현대를 탈공업사회, 정보화사회, 정보통신사회,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등 여러 가지의 용어로 변화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사회변화의 특징을 모아 개념적으로 규정하면 문화적 생산양식의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⁶⁾ 보습의 발견이 농업적 생산양식의 시기를 이끌었고 증기기관과 방적기의 발명이 기계공업적 생산양식의 시기를 이끌었다면 전산기의 출현은 문화적 생산양식의 시기를 이끌었다. 거기에 덧붙혀 광범위하게 일반화된 개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한 현실화 노력, 실질적 민주주의⁷⁾에 대한 노력이 전산기의 출현과 맞물려 생산양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개인의 의미가 그 어느 역사적 시기 보다도 드러나는 시기이므로 소비의 문제가 중심에 떠오른다고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개인의 다양한 욕구, 지역적 자율성, 각 지역과 민족의 미학적 취향과 인생관등 각종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전산기가 종합하여 일정한 생산의 방향을 결정하고 상품을 만드는 것이다. 소수 공업화 선발국들이 일방적으로 상품을 보급하면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할 수 없게 된 것은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평준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능과 교양에 있어서도 평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코 그들의 도덕성이 느닷없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이로써 생산과 소비체계를 포괄하는 생산양식은 문화구성체의 요소를 이루게 된다.

2-6. 문화구성체 요소인 종교와 학문

종교와 학문은 오랜 시기동안 사람들의 생각방식을 지배하여 왔다. 종교와 학문은 우주관과 세계관, 인생관을 보급하는 원천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동일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주었다. 현대에 와서 종교의 기능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있지만 아직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종교적 세계관이 사람들의 의식속에 잠재하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종교의 기능이 낮아지는 반면 실증적인 자연과학의 세계관이 우세했던 측면이 있으나 그것이 현대인이 직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므로써 여전히 종교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려는 경향도 있다. 한편 자연과학도 신과학운동등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도전하고 있다.

종교와 학문이 자신들이 누렸던 전통적 권위를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과 세계관을 탐색하고, 인류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 그들의 기능은 여전히 역동적인 요소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나 과학이 다원적인 인류사회의 현실과 다원적인 문화의 요소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인류사회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은 가진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그러한 종교나 학문이 궁정적으로 역할하든지 부정적으로 역할 하든지간에 문화구성체의 요소에 있어서는 여전히 강력한 단위로 자리를 잡고 있다. 종교나 학문을 함께 놓고 보는 것은 그들이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을 보급하는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또 학문 가운데서도 과학을 예시한 것은 종교의 기능이 낮아진 이후 실증적인 자연과학이 그 자리를 차지 했기 때문이다.

2-7. 문화구성체 요소인 민족

민족은 문화구성체의 구성요소이면서도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를 종합하는 틀이 되기도 한다. 민족은 혈연 공동체라는 물질적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언어와 풍습을 지니는 의식과 정신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진다. 우선 물질적 기초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민족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 환경, 지리적 환경은 바꿀 수 있다. 지리적 환경이 적당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동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자기가 속한 민족은 바꿀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민족에게는 생물학적인 유전인자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의식의 유전인자도 유전된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은 “자기다움”을 확인하는 계기를 주는 단위이다.⁸⁾ 사람이 자기다움을 확인하는 것은 곧 자각하는 의식의 성장과 같은 뜻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인것을 아는 것,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높은 수준의 깨달음의 과정이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것은 곧 우주를 아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전통적인 칠학의 선구자들이 이미 밝힌바 있는 사실이다.

자기를 아는 깨달음에도 종류와 단계가 있다. 하나는 존재론적인 자기확인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자기확인이다. 그런데 민족의 단위는 둘 가운데 역사적인 자기확인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족이 헤르더의 말처럼 풍토화한 인류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민족은 하루 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그들이 함께 가지는 언어와 풍습을 만들고 생물학

적인 동질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민족은 자연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개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존재로서 문화구성체의 요소가 된다. 그리고 민족은 문화구성체의 요소가 되면서 하나의 단위가 되는 문화구성체를 만든다는 것이다.

3. 국가, 민족과 문화구성체

앞서 말한 이유로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문화구성체의 단위는 민족문화의 단위로 그 개체성을 드러낸다. 같은 종교권이라 하더라도 민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삶의 방식을 가진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같은 불교권이라 하더라도 동남 아시아의 여러나라, 일본,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것은 다르다. 크리스트교권, 이슬람교권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러나 서로 다른 지역에 산다 하더라도 같은 민족은 같은 사유방식을 소유하며 같은 생활방식을 갖는다. 이로 보면 종교보다도 더 강력한 개체적 단위를 이루는 것은 역시 민족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민족도 있고 그렇지 못한 민족이 있다.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여러 민족이 혼합하여 구성하는 국가도 있다. 국가와 민족 간에 이러한 여러가지 관계를 보면 대체로 국가가 자기확인의 계기가 되는 것보다 민족이 자기 확인의 계기가 되는 것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는 세계화로 나간다 하더라도 여러 지역에서 민족간의 분규가 더 많아지고 있는 사실은 민족적 개체 단위의 문화적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민족 분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옛소련과 동부유럽지역이다. 그 곳은 과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민족보다 계급이 우선하는 정체을 취해왔던 지역이며, 그러한 명분으로 소비에트가 종주권을 행사하던 지역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지역에서의 최근의 민족간 분규는 민족문화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보더라도 민족문화가 정치적인 공동체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구성체론으로 볼 때는 민족이 국가보다 더 영향력 있는 구성단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오랫동안 다민족 사회를 유지해온 미국은 여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기동일성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사람과 삶의 자기다움을 확인하는 일은 정치적 공동체에서 보다 문화적

공동체에서 더 손쉽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하편으로 보면 현대의 사회변동 상황을 문화적 생산양식이라고 할 때, 이전시기에 비해 국가의 영토에 관한 의미가 약화된다는 사실이다. 과거 농업적 생산양식의 시기에는 국가의 영토가 거의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초기 자본주의 사회 이후 점차로 지리적인 의미의 영토 보다는 경제적인 의미의 영토가 더 중요하게 된다. 문화적 생산양식의 시기에는 경제적인 의미보다 더 확장된 문화적인 의미의 영토, 즉 문화권이 더 중요하게 된다는 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화구성체의 영역이 보다 더 현실적인 삶의 영역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⁹⁾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생각하면 종래와 같은 국경의 의미가 약화 되는데 반하여 전 지구를 단일한 영토로 간주할 수 있는 세계화 체계가 점차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장된 의미의 문화구성체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상당기간 동안 삶의 근거요 터전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4. 문화구성체 동일성 유지의 중심고리인 민족

다문화주의, 또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의 실천근거로 차별성의 권리(right of difference)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경향을 탈근대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한다.¹⁰⁾ 차별성의 권리라는 것은 여러 민족 문화가 현실적으로 다른 것에 해소되지 않는 강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문화구성체의 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민족들이 점차로 그 능력과 세력에 있어 평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간의 평준화는 다 민족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전 지구상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절대빈곤의 상태에 있는 민족들이 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성장하는 과정처럼 경제성장의 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이고, 경제상의 상승은 정치적인 지위를 보장받게 할 것으로 보인다. 20세기까지의 세계는 주도적인 민족과 종속적인 민족이 협력하게 드러나는 국제체제가 유지 되었으나 새로운 세기의 국제질서는 세계의 모든 민족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주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세계체제상의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세계체제가 확립되는 상황에서 지구상에는 “인류”라는 한 개의 민족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도덕적인 요구

로서 정당성을 갖지만 현실적인 문화구성체에서는 바로 수용하기 힘들다고 본다. 왜냐하면 각 민족이 가지는 생물학적인 개체성이 쉽사리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족의 생물학적인 개체성의 의미가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인류”라는 한 개의 민족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인류”는 아직 까지 도덕적인 요청으로만 주어지는 것인지 현실적인 문화구성체의 모습으로 출현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점이다. 탈근대라고 하는 시대 흐름의 특징으로 볼 때 그러한 시대가 필연적으로 오리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역사는 민족적인 문화구성체가 현대 인류의 자기확인의 터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민족적인 문화구성체가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그 구성원이 자기다움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며, 그들이 가지는 인간성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다움을 찾지 못한 사람은 인간성을 실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화구성체가 자기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전통을 고수한다든가 체제유지와 동의어로 이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그것을 복고주의와 동의어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문화구성체는 하나의 짜여 진 틀이 아니다. 일정한 역사적 시기 까지 어떠한 형태의 문화 구성체가 존재하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 느닷없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구성체로 바뀌는 등의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문화구성체는 앞서 열거한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가 서로 뒤섞이며 자신들끼리의 유사한 동일성에 이르는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상태에 있는 문화종합”이다. 그러므로 문화구성체 그 자체가 매우 역동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의 틀을 고집한다거나 복고주의는 문화의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는 작업과 일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문화구성체의 구성요소들이 자기동일성을 중심으로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종합을 할 때 민족이라는 구성요소가 자주 그 중심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앞서 고찰한 바 있다. 그런데 문화구성체가 자기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구성요소들이 변화하는 상황을 자신안에 반영하며 일정한 단위를 이룬다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화구성체의 동일성 유지는 끊임 없는 자작적 의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구성체의 동일성 유지는 내부적인 조정만이 아니라 외부세계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¹¹⁾ 그리하여 문화구성체의 동일성 유지의 작업은 곧 다른 문화구성체와

문화를 함께 가지는(transcultural) 세계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교통과 정보 통신의 그물이 전 지구를 대단히 가깝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문화를 함께 가지는 세계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오늘날 경제와 정치의 속성이 국제적인 규모로 구성되고 있는 만큼 다른 문화구성체와 관계하는 것은 자기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문화를 함께 가지는 행위가 이전 세기에서처럼 도덕적 관용의 덕목으로 제시되는 것만은 아니다.¹²⁾ 그런데 생산양식이 변한 현대 이후의 세계는 문화를 함께 가지는 행위가 도덕적 덕목으로서만 아니라 필요에 의해 해야 하는 행위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른바 문화적 생산양식의 사회는 농업적, 기계공업적 생산양식의 사회에서 도덕의 규범이었던 것을 이제는 전략으로 채택하게 되는 사회상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것이다.¹³⁾

5. 비정상적인 민족의 처지와 문화구성체

비정상적인 민족의 처지란 민족의 분단, 민족간의 분규 등의 민족과 관련한 모든 갈등과 전쟁상태를 포함하는 말이다. 임마뉴엘 칸트는 전쟁상태가 합리적으로 법이 지배하는 시민사회를 파괴한다고 보았다. 그는 전쟁상태를 막는 영구평화를 위해 국제연맹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말하면 민족분단, 민족 내부의 분규, 민족간의 분쟁은 문화구성체의 역동적인 동일성 유지의 실천을 가로 막는다. 그것은 문화구성체 요소들간의 자기 동일성을 지향하는 문화종합적인 조정작용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민족 내부나 외부를 막론하고 분단이나 분규는 문화구성체 요소들간의 상호관계와 교류를 차단하기 때문에 “관계와 교류”를 통해 힘과 성질들이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다.

“관계와 교류”가 끊기면 같은 단위의 문화구성체로부터 분리되어 이질적인 문화구성체가 된다. 같은 단위의 문화 구성체가 갈라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 구성원의 자기다움을 확인하려는 갈등은 인간성의 파괴를 가져온다. 그것은 문화의 파괴요, 역사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타일랜드의 북부에서 원시적으로 거주하는 몇 종족은 그 문화구성으로 보아 고구려가 멸망한 뒤 강제적으로 아주 당한 사람들 같다는 주장이 있다.¹⁴⁾ 그 외모가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민족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한반도에 거주하는 민족과의 문화구성체로서의 연관은 없다. 이것은 중국 남부의

문화구성체론으로 보는 민족문화의 동일성

백제허(百濟墟)에 거주하는 종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구자들은 그들을 백제인의 일부로 보려고 하지만¹⁵⁾ 교류가 단절된 상태의 지금은 그 문화구성의 단위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한 민족의 국외 거주자들은 지속적인 교류의 결과 동일한 문화구성체를 함께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의 문화구성체는 지리적 기초를 달리하여도 성립하는 것으로 일단 민족이 형성되면 생물학적인 혈연공동체로서도 문화구성체의 능동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리적 기초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교통과 통신이 지속되므로써 서로의 관계와 교류는 끊이지 않기 때문에 단일한 문화구성체의 요소로 역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교류가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맺음이 불가능하게 되어 문화구성체의 요소로 역할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관계맺음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말은 구성요소들끼리의 상호연관과 작용을 할 수 없게 하고, 의식의 자각을 위한 상승작용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민족 내부의 교류가 끊어져 있는 상태, 거기에 덧붙여서 정치적, 군사적인 대결과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문화구성체 내부의 상승작용을 기대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문화 구성체의 해체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철학적 원리를 생각해야 한다. 우선 사람의 욕구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는 운동하려는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정지하려는 욕구이다. 예를 들어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는 운동에의 욕구이고 소비하고자 하는 것은 정지에의 욕구이다. 또 진보에의 욕구는 운동에의 욕구이고 현실에 머무르려는 욕구는 정지에의 욕구이다. 사랑과 관용은 운동에의 욕구이고 종오와 지배는 정지에의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운동에의 욕구는 상승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정지에의 욕구는 하강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승작용과 하강작용이 교차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역동적인 문화구성체가 되고 역동적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문화구성체 내부의 갈등이나 해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동일성을 분열시킨다. 즉 자기가 자기를 누구인지 확인하는 높은 자각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분열은 문화구성체 내부의 사회를 전반적인 사회병리적인 상태로 몰고 가게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규범이 무기력해지고 윤리적인 타락이 일반화 되며 전체주의적 정치지배의 현상이나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보편화 된다. 사회전체가 역사적인 예견과 전망에 대해서는 소

흘히 하고 즉흥적인 행위로 항상 소란하게 된다. 범죄가 증가하고 배신이 유용한 처세로 인정받는다. 권력과 부의 소유가 불균등하고 절대적인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리기도 한다. 경쟁이 미덕이 되고 물질만능의 인생관이 범람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문화구성체가 해체되려는 위기의 징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다. 어느 사회이거나 민족의 분단이나 민족간의 분규, 나아가서 민족간의 비정상적인 갈등이 현실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문화구성체의 해체의 징후로 이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반면에 민족내부의 협동적인 상호관계가 건설되고, 민족외부에 평화적인 “문화 함께 자지기”의 실천이 일반화 된다면 그 문화구성체는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

6. 한 민족 문화구성체의 경우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한 민족의 분단은 한 민족 문화구성체의 일개를 일부 망가뜨리므로써 한 민족 문화 구성체의 동일성 유지의 실천적 활동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요인이 된다.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의 하나는 정치적 의미로 보는 국가의 정통성 보다 문화구성체의 정통성을 세우는 일이 사람의 자기다움을 세우는 일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폐쇄적인 정통성 논의를 위한 민족내부 관계의 물리적 단절은 문화구성체의 정통성을 세우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 정통성을 세우는 일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일이며, 동일성을 유지하는 일은 관계의 역동성에 따른 조화와 평형상태를 산출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폐쇄적인 논의와 물리적 단절은 진정한 의미의 정통성 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민족의 분단상태는 그 구성원의 존재론적이고 역사적인 자기 확인과 인간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필연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사실이다. 분단 상태를 극복하여 한 민족 문화구성체로의 역동적인 복귀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한 민족의 분단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나치게 제약되어 있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유에 따른 단절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때 나타나는 문화구성체의 해체 위기는 인간성의 위기로 쉽게 이어진다. 그렇다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단절의 상태가 제거되면 통합 조정의 동일성 유지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는가? 그 대답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범주는

문화구성체의 범주 보다 그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와 별도로 문화구성체의 다른 요소들이 관계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실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언어문화의 교류이다. 언어는 생각의 수단이기 때문에 언어문화의 교류는 구성원들간에 생각의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공동의 국어사전을 만든다는 것과 공동의 전산기 자판의 틀에 합의하였다라는 것은 사소한 것 같을지라도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것이다. 언어문화 교류의 차원에서 활자 매체와 방송 매체, 전산통신의 분야를 남북이 상호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는 예술작품과 운동경기의 교류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 예술과 현대의 체육은 사람들끼리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려는 간접경험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자유화는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남북의 민족에게 상호 이해를 촉발하고 동일성 유지의 실천으로 자신들을 높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남북 상호간에 여행의 자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행은 사람들의 상호 이해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물자의 교류를 위한 시장의 상호 교류가 있어야 한다. 물자의 교류는 초보적인 생산과 소비재화, 그리고 농산물의 교류로부터 공동시장의 형성 등의 높은 수준에 이르기 까지의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문화구성체의 동일성 유지의 차원에서 보면 초보적인 수준의 물자 교류라 하더라도 문화구성체관계의 역동성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남과 북이 공동으로 누리는 축제를 개발하는 일은 풍습의 공유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이 때 전통적인 설날이나 추석 등의 민족적인 축제일을 공동으로 즐기는 방안을 마련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몇 가지의 방안은 한 민족이 역사적으로 만들어 온 문화구성체의 동일성을 유지 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관계회복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에서의 동일성을 찾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 대결이 끊난다고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남과 북의 당국은 이러한 사업을 정치적, 군사적 문제와 연계시키지 말고 별도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교류는 남과 북에 거주하는 민족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우즈베크스탄, 카자흐스탄등 여러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한 민족과 함께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천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한 민족의 구성원이 한 민족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화구성체를 통하여 자신을 자각하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의 남

북 분단이 한 민족 문화구성체의 열개를 흐트려뜨리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민족 문화구성체의 위기가 한 민족 구성원의 철학적인 자기확인, 즉 자기를 아는 자각적 실천에도 역시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민족의 통일은 정치, 군사의 영역과는 별도로 문화구성체의 동일성 유지라는 거시적 측면의 실천적 현실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문화구성체의 여러 요소는 서로 관계하고 작용하여 서로 평형을 이루는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이러한 종류의 “관계와 교류”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욕구, 이성, 지성, 감성, 덕성, 생각의 방법 등을 서로 나누고 교감한다. 그리고 그 교감은 역동적인 동일성 유지 상태를 지향한다. 그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물리적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앞서 말한 몇 가지의 방안인 것이다.

맺는 말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는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문제도 있다. 도대체 왜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이 통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당위성이 무엇인가는 필자가 다른 논문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그것의 요점은 사람이 자기다움을 확인하고 자각하는 일, 즉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족이라는 단위를 고리로하여 존재론적이거나 역사적인 자기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민족이라는 단위가 문화구성체라는 역동적인 “틀과 작용”에서 중심이 되는 열개라는 것을 주장하였고, 문화구성체가 정치, 경제적인 의미의 국가 보다 더 넓은 범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문화구성체는 사람의 자각하는 의식의 총체가 그 반영물인 물질과의 관계, 그 구성 요소들 끼리의 동일성을 지향하는 조정과정이라는 점에서 짜여진 틀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임을 밝혔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역동적인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역동적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확인하는 계기를 찾는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정치, 군사적인 상황에 묶여 전전이 없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문화구성체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근거와 방안을 찾아 보았다.

〈주〉

- 1) 김도종, 문화구성체 요소인 “사회인”의 도덕성 함양, 학생지도연구 제16호 수록, 원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5.12. 43-64.
- 2) 통화(統和)라는 용어는 조명기(趙明基:1905-1988, 호:曉城)가 원효사상을 해석 하며 처음 사용했다. 그는 “一而二 二而一”, 즉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라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필자는 사람이 정신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물질적인 존재이고 물질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정신적인 존재라는 니콜라이 하르트만의 다원론을 수용하며 이 개념을 쓰고 있다.
- 3) 공격과 방어(차인석과 길봉섭의 대화). 역사와 사회 제8집, 118-119. 체문연구소, 1992.7.
- 4) 김도종, 문화의 성쇠에 대한 역사존재론적 분석. (문화철학교본, 체문연구소, 1996, 수록) 참조.
- 5) G. V. Plekhanov. (Ralph Fox 옮김). Essays in the History of Materialism. Howard Fertig. 1967. 213-215.
- 6) 김도종, 생산양식의 변동과 사회정의 (역사와 사회 제14집 수록) (社) 체문연구소. 1995. 참조.
- 7) 위르겐 하버마스가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정당성 문제”에서 사용하는 개념.
- 8) 김도종, 역사철학의 견지에서 본 민족과 통일, 한민족 철학자 대회 대회보 2권. 37- 47. 수록. (한민족 철학자대회 조직위원회 편) 38-39. 도서출판 천지. 1991.8.
- 9) 남북한, 중국의 동북지역, 러시아의 연해주, 카자흐스탄, 우즈베크스탄, 일본 등지에 흩어져 사는 한민족은 정치적인 영토는 달라도 단일한 문화구성체의 영역에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10) Pierre Birnbaum, From Multiculturalism to Nationalism, (Political Theory, Vol. 24. No.1, 2. 1996. 33-45), Sage Periodicals Press. 33-34.
- 11) 김도종, 문화의 동질성 유지와 세계화, (문화철학:한국철학회 편 323-343 수록) 철학과 현실사, 1995.342-343.
- 12) 국제연합은 1996년을 세계관용의 해로 정하고 있지만 경제적, 정치적 요구 보다는 도덕적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 13) 김도종, 문화적 생산양식 사회 속의 종교, (문화철학 교본 수록, 체문연구소, 1996), 참조.
- 14) 한겨레신문, '93. 1. 27자, 2. 3자 인병선의 보도, “라후족, 아카족 그들은 누구인가?” 참조.
- 15) 한국방송공사 제1텔레비전의 1996. 9. 15.방송. (속) 무녕왕릉의 비밀-22擔盧의 추적을 참조.

조선반도남북문화의 공통성과 차이 및 통일의 과제

김 경 일

A Study on Restoration of Cultural Homogeneity of Korea

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and South have adopted a very different political system and ideology and have been extremely hostile toward each other. The national culture which used to be homogeneous in both sides of Korean Peninsula has been becoming more and more heterogeneous during over 50 years. That is to say, the question of the national reunification can not be considered apart from the restoration of the cultural homogene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value system of two Koreas by referring to the national traditional value of the Yi Dynasty perio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raditional culture can be the main driving force to carry forward the national reconciliation.

This paper also aims at examining an important role that the traditional culture can play in the process of national reunification.

1. 서론

2차세계대전후 조선반도의 남과 북은 냉전체제의 형성과정에 외세와 내분에 의한 분단상태에서 50년대초 동족상잔이라는 비극을 겪었으며 미소대

김 경 일 : 중국 북경대학 동방학부

결이라는 냉전틀에서 정치, 군사적 대치상태를 이루어왔다. 70년대초 국제적인 detente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과 북은 7.4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에 일루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 detente 분위기에 뒤따라 여러가지 통일방안도 제기되었으나 미소대결이라는 큰 틀의 대치구조속에서 남북의 근본적인 화해는 불가능한것이였다.

냉전의 종식은 조선반도에 평화와 통일이 정착할수 있는 국제적환경을 조성하였다고 할수 있다. 특히 2차세계대전 후 같은 분단국가로서의 동서독일의 통일은 조선반도를 한때 통일의 열기에 휩싸이게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통일의 당위성이 강조되었다. 그렇지만 그후 조선반도는 통일이 아닌 더욱 첨예한 대립속에서 위기를 거듭하여 왔으며 오늘까지 여전히 탈냉전후의 냉전지대로 남아있다.

바로 이 과정에 통일에 대한 시각과 연구도 여러가지 변화를 보여왔다. 어찌보면 당위성을 강조하며理想이나 감정에 치우쳤던 통일의 열기가 현실과理性속에서 점차 식어졌으며 통일의 어려움을 표충이 아닌 심충으로부터 감지하게 되였다고 할수 있다. 결과적으로 남북조선간의 진정한 통일은 단순히 외형적인 정치, 경제, 제도상의 통일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강조하게 되였던것이다.¹⁾

독일통일은 남북조선으로 하여금 자기나름대로의 많은 문제점들을 찾게 하였으며 그것은 또 궁극적으로 보다 더 현실과 심충에 접근하는 통일연구를 가능케 하였다. 통일독일이 보여주다싶이 통일보다 어려운것이 동서독의 통합이라는것을 사실은 말해주고있다.²⁾ 여기에서 말하는 통일은 표면적인 통일을 이루는것이고 통합이란 심충의 통일을 이루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 표면적인 통일열망이 통일의 열기에 휩싸여 당위성으로 제기되었을 때에는 남북조선문화의 동질성이 보다 많이 강조되었지만 통일이 심충의 어려움으로 제기되면서부터는 남북조선문화의 차이와 그에 따른 갈등이 보다 많이 강조되어 왔다고 할수 있다. 여기에서 공통성만 강조되는것도 편면적이지만 부동성만 강조되는것 역시 편면적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치지향의 공통성과 차이에서 이 공통성과 부동성을 밝힘으로써 조선반도통일의 과제를 밝혀보려는것이다.

여기에서 문화의 차이라함은 문화의 핵심이 결과적으로 가치지향이라는 데 입각한것이다. 가치는 동기의 한 측면으로서 인간행위를 결정하는 판단작용을 수행하고 지속적, 궁극적이기때문에 행위에 대한 영향력을 광범하게 미치는 요소라고 할수 있다.³⁾ 심충에서 본 남북조선의 차이는 결국 이 가치관의 차이인것이다.

Marx는 존재가 사유를 결정한다고 하였고 Max Webr는 종교가 자본주의의 성립과 발전을 촉진하였다는 명제를 내놓음으로써 사회구조와 문화, 다시 말하면 사회구조와 가치간의 상호관계를 밝혔다.

여기에서 남북조선문화의 차이란 명제를 내놓음은 다름아닌 부동한 사회구조에 따른 가치체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사실 분단이전의 남북조선은 동일한 역사, 동일한 언어, 동일한 지정학적위치에서 단일민족으로서의 동질문화를 소유하여왔으며 지역문화의 차이는 있어도 심층의 이질적차이는 없었다. 바로 이 점에 입각하여 일부 학자들은 남과 북의 민중은 자유왕래를 통해 그동안 형성된 이질성을 단숨에 극복하고 즉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혈연적 운명공동체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쉽게 되찾을수 있다고 주장한다.⁴⁾

그렇지만 분단 50여년이라는 역사의 흐름속에서 남북조선은 서로 각이한 사회구조를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차이가 많은 가치체계를 이루어 왔다. 이것은 50여년이라는 기간을 경유하면서 심층에 누적된 차이로서 남북조선 모순과 갈등의 내재적인 심층의 원인으로 되고있다.

동구나 소련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을 둘러싸고 브레진스키의 《대실패》나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에 따라 남북조선관계에서 체제대결은 이미 끝났으며 조선반도통일의 유일한 선택은 자본주의하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뿐이라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지만 반면에 많은 학자들은 아직도 《역사가 함께 하고 있음》을 부인할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며⁵⁾ 부동한 양체제의 공존과 대화, 화해와 타협, 통합을 모색할수 있을때만 평화가 보장되며 통일의 가능성성이 열린다고 주장한다.⁶⁾

우리가 각이한 체제에 따른 문화를 자본주의문화 또는 사회주의문화라고 함은 양체제에 적응하는 또는 그 체제에 따른 가치관이 각이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화의 차이는 각이한 체제에 따른 동질문화의 변화에 의한 차이라는것을 강조하게 된다. 즉 남북조선은 결코 미국이나 구소련과 같은 이질문화위에 서로 다른 체제를 세운것이 아니라 동질문화위에 각이한 체제를 세운것이다. 바로 이 동질문화를 우리는 하나의 분석의 참조틀로 또는 하나의 좌표로 설정할수 있는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양쪽의 문화의 차이를 비교하려는것이다.

John C. Condon, Jr은 가치관이란 직접 볼수도 들을수도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 가치관을 반영하는 표현이나 생각은 볼수도 들을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⁷⁾

본 연구는 바로 이 가치관을 반영하는 표현이나 생각을 밝힘으로써 가치

관의 변화를 살펴보려한다. 남북조선이 직접적인 또는 군체적인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양자의 접촉을 바탕으로 하는 실증적인 조사와 비교분석은 불가능하므로 역시 각자의 변화를 전통적인 가치지향을 참조들로 분석한 기초우선의 비교분석을 시도하게 된다. 그렇지만 가치지향에 의한 행위표현이나 감정노출 또는 지니고 있는 생각같은 “보이는 가치관”에 대한 분석에서는 독일통일의 사례, 한국인과 중국조선족과의 접촉사례, 북조선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적응과정, 또는 그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감수, 평가 등을 즐겨틀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제2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근대사회와 잇닿는 조선조사회의 구조와 그에 상응된 전통적가치지향을 살펴봄으로써 분석의 참조틀로 되는 기반을 찾게 된다. 제3부분에서는 분단후의 한국사회구조와 그에 따른 전통적가치지향의 변화를 세측면에서 고찰하여 보게된다. 제4부분에서는 분단후의 조선의 사회구조와 그에 따른 전통적가치지향의 변화를 역시 동일한 측면에서 살펴보려한다. 제5부분에서는 상술한 분석에 기초하여 양체제에 의한 문화의 공통성과 차이를 비교분석하게 된다. 제6부분에서는 결론적으로 이 문화의 차이는 전통적가치지향을 바탕으로 하는 부동한 체제에 따른 가치지향변화의 차이이기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통성을 지닌 차이로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역시 전통적인 가치지향이 저력으로 작용하리라는것을 강조한다.

본 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밝혀둘것은 이러한 가치관차이의 해소는 결코 어느 가치관에 의한 다른 한 가치관의 흡수가 아닌 상호보완의 성격을 띤 결과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가치관의 강요는 충돌을 초래하기 마련인 것이다.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은 바로 이 견지에서 참고적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전통적사회구조와 그에 상응한 가치지향

전통사회라는 말은 주로 근대 및 현대사회와 대비하여 사용되는 가치중립적인 하나의 개념적용어로서⁸⁾ 상대적으로 장시기동안 안정된 사회를 일컫는다. 본문에서는 전통사회를 근대사회이전의 조선조사회에 한정한다.

조선조사회는 양반관료사회라는데 그 특징을 두고 있다. 조선조시대의 가치체계는 바로 양반관료사회의 구조적특성에 적합한 또는 그에 따른 가치체계로서 수백년동안 상대적인 불변속에서 전통문화의 핵을 이루어왔다.

조선조사회를 가치이념적수준에서 지배적으로 지탱하여 온것은 유교사상이었으며 그것은 양반사대부라는 권력집단의 지배구조속에서 지배계급의 통치이념이자 민중의 가치체계로 굳어졌다. 즉 유교이념이 양반계층의 현실적권력을 매개로 조선사회를 강력한 유교적 단일 가치사회로 형성시켰던 것이다.⁹⁾

조선조사회의 이 가치지향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다.

첫째, 유학에서 강조하는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덕치(德治)이론은 유교이념을 理想화하였지만 개인의 도덕수양과 사회의 도덕건설에 이로왔다. 이 유교적이상은 조선사회에서 사림에 의해, 과거(科擧)제도와 같은 사회구조에 의해 정신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하나의 전통적가치지향을 이루어왔다. 그렇지만 이 정신적가치지향에는 결코 서구의 근대적 humanism 또는 humanitarianism이 강조하는 《개인의 존엄과 해방의 가치》는 포함되어 있지않은 것이다.¹⁰⁾

土林정신 또는 선비정신으로 불리우는 이 가치지향은 물질적인것보다 정신적가치를 추구하고 이상주의를 추구하여 왔다. 이러한 가치지향은 정신적인 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생활에서 필수적인 본능과 경제, 물질적 욕구 등이 거의 도외시되였던것이다.¹¹⁾

바로 이와같은 가치관에 기초해서 전통사회의 조선인들은 忠, 孝, 敬, 仁, 義, 禮, 信 등과 같은 윤리적덕목들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행위규범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덕목의 학습과 실천을 인간으로서의 도리로 삼아왔던것이다.¹²⁾

이러한 가치지향은 근대에 들어와서 신문화운동에서의 교육열파도 이어지게 된다.

둘째. 양반관료사회의 조선조는 권위주의를 배타할수 있는 신분제도로 사회구조가 이루어졌다. 그 신분계층은 兩班, 中人, 常民, 賤民으로 대변할수 있다.¹³⁾ 바로 그러한 사회구조속에 통치계급의 이념으로서의 유교는 “君臣, 父子, 夫婦, 長幼”的 상하위계적인 서열관계로써 인간관계와 사회윤리를 규정하였다. “君臣, 父子, 夫婦, 長幼의 모든 기본적인간관계가 종속적인 지배 피지배의 관계로 규정되었을뿐만 아니라 文武, 士農工商, 양반과 상민 등의 모든 직업 및 신분집단의 관계도 엄격한 위계로서 규정되고 법제화 되여 있었던것이다.”¹⁴⁾

이 가치지향은 사회구조에 있어서 사회적위계체계를 지배와 피지배라는 종속관계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Max Weber에 의하면 결국 지배란 어떤 지

배자 혹은 지배집단의 의지가 사회적관계를 통해 피지배자로 하여금 그것이 명령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는것으로 인식하고 행동하게끔하는 상황이라고 규정할수 있는것이다.¹⁵⁾

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서열성과 위계성으로 강조되었다. 즉 朱子학의 음양이론에 기초해서 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위계적인 서열관계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셋째, “나”라는 개인보다도 “우리”라는 공동체를 더욱 중하게 여기였다. 이에 대한 개념상정의는 여러가지지만 거의 같은 뜻이며 대동소이하다고 할수 있다. 혹자는 이것을 familism의 가치관이라 하고¹⁶⁾ 혹자는 집합주의의 가치지향¹⁷⁾이라고 한다.

조선조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집단은 역시 가족이었다. 그렇지만 이 사회집단을 기반으로 하여 산생된 가족주의가치관은 결코 단순한 가족에만限한것이 아니였다. 조선인에 있어서는 지역공동체나 국가공동체는 가족의 연장으로 이해되였던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라는 집합체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보다도 “우리”라는 집합체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던것이다. 바로 이 의미에서 이 가치지향을 “우리주의 가치지향”이라고 하는것이다.

이 가치지향은 조선전통문화에서의 기본 윤리인 孝를 기본으로 가족주의로부터 부락공동체,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까지 연장되어 왔다고 할수 있다. 전통사회부터 오늘까지 한국사회에서 행위로 표현되는 가치지향가운데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契문화, 또는 동아리문화로 표현되는 이 “우리주의 가치지향”이라고 할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이 가치지향은 조선조사회구조에 있어서의 동제(洞祭)와 洞會, 계(契), 두레, 품앗이 등 서민들의 집합체형태로 구현되어 왔었다. 여기에서 洞祭는 촌락공동체의 집합행사로서 촌락의 開拓神 즉 祖上神 또는 촌락의 守護神에게 풍년과 除厄을 기원하는 祭와 굿의 이중구조를 가진, 일종의 祈福사상을 반영하는 공동체행사이다. 契는 財力에 의한 공동체의 협동방법이며 두레는 노동력에 의한 합력, 품앗이는 노동의 상호교환인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때 공동체적체제(Community)에서 結社體의體制(Association)로 移行해 오면서 집단성원이 물심양면으로 호상 補助하는 기능을 가지고 傳承되어 왔던것이다.¹⁸⁾

상술한 조선조시기의 특징을 귀납하면 우리는 전통사회에서의 주요한 가치지향을 도덕승상의 정신적가치지향, 권위주의가치지향, 우리주의가치지향

등 세가지로 나눌수 있다.

이 세가지 가치지향을 조선조사회구조에 적합된 주요한 가치체계로 논할 때

우리는 이러한 가치지향을 儒家傳來의 大同社會논을 바탕으로 한, 理想사회를 지향하였던 朝鮮朝鄉約의 理念과 실천에서 집약적으로 살펴볼수 있다.

조선조때의 향약은 향촌공동체를 기반으로, 권선징악(勸善懲惡)과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교화를 목적으로 한 향촌의 자치규약이다.¹⁹⁾ 이 향약은 사회구조의 일개형태로서 고도의 自律性으로 鄉村공동체를 유지하는 공동規戒로서의 사회적인自治機能, 사회구성원간의 정서적단합과 가치적합일을 가져올수 있고 인간의 내면적요구, 도덕적양심에 호소하여 사회구성원들을 내면적으로 통합시키는 윤리적절제(節制)기능, 도덕사회, 학습사회, 복지사회의 대동사회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였던 교육적교화기능, 소득격차에 따른 계층간의 갈등을 완화시켜 줄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연대의식을 가짐으로써 사회통합의 역할을 하는 경제적 상부상조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²⁰⁾

이러한 사회적기능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는 상술한 세가지 가치지향이 바로 이 향약의 기본정신에 집약되어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근대화의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지향을 평등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라고 정의를 내릴때 우리는 조선조의 전통적가치지향은 이와 상반되는 가치지향임을 살펴볼수 있다. 이러한 가치지향을 배출한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와 같은 사회구조가 스스로 창출되기는 어려운것이다.

조선은 조선조말기부터 분단이전까지의 기간에 36년이라는 일제식민통치 하에 있었다. 일제식민지통치아래 조선인의 근대의식 즉 자주적, 주체적, 합리적, 과학적, 진보적, 민족적인 사고와 태도 그리고 감정의 신장발달이 크게 억제되고 저해되었다고 할수 있다.²¹⁾ 따라서 여기서는 남북조선의 비교 분석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으로부터 일제통치 36년동안의 가치관변화고찰은 않기로 한다.

3. 한국의 사회구조에 따른 가치지향의 변화

분단후 동서대립의 구도속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정치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서구식정치체제를 선택하였다.

조선반도남북문화의 공통성과 차이 및 통일의 과제

전통적사회구조와 비교할 때 이러한 사회체제에 의해 산생되는 가치관은 한국의 전통적가치관과는 타자적성격이 짙은 이질적가치관이라고 할수 있다. 바로 이 견지에서 한국의 전통적가치관은 서양적가치관에 의해 대치되는 가운데에 있어서 심한 심리적 충격, 혼동, 갈등이 동반되었다고 할수 있다.²²⁾ 즉 권위주의 가치지향은 민주주의와, 도덕중상의 정신적가치지향은 물질추구의 가치지향과, 우리주의가치지향은 개인이기심을 추구하는 가치지향과 어울리지 않으며 충돌과 갈등을 빚어내기 마련이였다. 바로 이 사회구조속에서 전통적가치지향은 점차 다른 변화를 보여왔다고 할수 있다. 즉 물질적추구에 따라 정신적추구의 가치지향이 약화되었고 개인이기심의 추구에 따라 우리주의가치지향이 약화되었으며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하면 서도 권위주의적정치문화가 상당한 기간 존속하였으며 제반 사회는 상하질서와 서열의식의 권위주의가치지향이 강화되어 왔다고 할수 있는것이다.

가치체계가 사회구조와의 적합성을 가져야한다는 이론이나 가치체계가 사회구조의 성립과 발전을 촉진한다는 이론에 근거하면 우리는 이 양자는 상호영향을 주는 관계라는것을 알수 있다. 한국의 사회구조가 서구식사회체제를 인입하였다고 하지만 한국의 전통적가치지향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구조자체는 완전한 서구식일수 없었다. 전통적권위주의속성은 한국의 산업화과정에서의 후진국 관료적권위주의구조가 가능케하였던것이다.²³⁾ 즉 서구식사회구조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기능은 완전한 서구식일수 없었고 또한 서구식가치지향도 액면 그대로 수용된것이 아니었다. 바로 여기에 한국정치문화의 특성이 깃들여있다.

본 연구에서 가치관을 문화의 핵으로 지적함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불변성 또는 완고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은 기존 가치관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것이며 그것은 단시일이 아닌 누적과정을 경유하는것이다. 바로 이 누적과정에 신구가치관의 갈등, 충돌이 따르게 되며 그것은 또 가치관의 이중성존재를 가능케하는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물질을 추구하는 가치지향이 강화되었다고 하여 전통적인 도덕중상의 정신적가치지향이 사라진것은 아니며 개인이기심 추구의 가치지향이 강화되었다고 하여 우리주의가치지향이 없어졌다는것은 아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식이 강화되었다고 하여 권위주의적가치지향이 약화된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첫째로, 1960년대 경제성장과정에서 촉발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물질주의성공관은 사회의 부와 경제발전을 촉진시켜 한강의 기적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지만 그에 따른 금전주의, 배금주의, 도덕성상실의 부

꽤와 사치, 향락으로 사회윤리를 흔들어놓았다고 할수 있다.²⁴⁾ 그렇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도덕승상의 정신적추구의 가치지향은 바로 이 사회구조에 따른 가치관의 확장을 억제하였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물질주의가 팽배하는 가운데서 정신적인 삶과 도덕승상의 가치지향을 추구하여왔던것이다. 물론 갈등과 충돌을 야기할수 있는 상이한 가치관은 세대간의 격차같은데서 뚜렷이 나타나지만 총체적으로 볼때 전통적인 가치지향은 사회구조에 따른 물질주의가치관이 초래하는 부정적요소를 그만큼 약화시켜왔다고 볼수 있는것이다.

둘째로, 전통적인 권위주의가치지향은 우선 한국의 사회구조에 있어서 그로써의 독특한 정치문화를 배출하였다고 할수 있다. 사실 오늘에 와서 한국인들은 민주정치를 자랑하지만 불과 10년전만 하여도 한국에서는 독재개발국으로서의 권위주의정치문화가 주류였다고 할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는 그 정치체제인 의회민주주의의 사회구조에 의해 실현된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민중의 민주화투쟁에 의해 이룩되어왔다. 독재정권, 민주화투쟁, 경제성장 이것이 함께 이루어졌는데에 한국문화의 특성이 내포되어 있는것이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정치적격변기를 겪는 나라들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제성장을 급격히 문화하는데도 정치적격변기를 거치면서도 8~9%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미국학자들은 이야기한다.²⁵⁾ 그 원인중의 하나가 전통적권위주의에 의한 제반 사회의 질서라고 할수 있다.

서구식의회민주주의를 도입하였지만 정치체제는 권위주의적독재체제였고 그에 항쟁하여 민주주의를 위한 피어린 투쟁을 하여왔지만 한국의 제반 사회를 구축하고있는것은 역시 위계와 상하질서의 권위주의라고 할수 있다. 이 권위주의는 가족에서의 상하서열로부터 직장에서의 지배와 폐지배, 학교에서의 교수와 학생, 후배와 선배, 연령에서의 상하관계 등등 제반 사회에 내면화되어 있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기회앞에서의 평등은 지적할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의 평등은 문제가 되는것이다.

셋째로, 사적소유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조속에서 개인이기심의 팽창은 “우리”보다 “나”라는 가치지향을 강화시켰다고 할수 있다. 이 개인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이념인 자유경쟁의 원리와 그것을 구현하는 사회체제에 입각한것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질을 自願논적인 창조성과 개인주의로 파악하고 체제운영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것이다. 어느 경우든 자본은 개인적으로 소유되며 생산은 자본가의 개인적이윤을 위한것이다.²⁶⁾

그것은 또한 전통적인 공동체가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라 해체되면서 일어난 사회구조적인 변동에 동반된것이었다고 할수 있다.

바로 이 개인주의는 물질주의가치지향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시장경제를 밀고 나가는 경쟁사회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왔다. 그렇지만 그것은 역시 물질추구에서의 부작용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고 할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개인주의가 결코 무한으로 전사회적으로 팽창되어 온 것은 아니다. 바로 한국의 전통적인 우리주의가치지향이 개인이기심의 추구가 초래하는 많은 사회문제점을 약화시켰다고 볼수 있다. 지난 전통사회에서의 우리주의가치지향에 따른 문화를 “契문화” 또는 “두례문화”라고 한다면 오늘의 한국문화는 같은 의미에서 변화를 보여온 “동아리문화”라고 할수 있다. 오늘에 있어서도 한국인은 “동아리”속에서 산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동아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율적인 “집단”생활을 하는것이다. 지난시기 한국의 “새마을운동”같은 것은 한국특유의 정치문화현상이라고 볼수 있다. 그것은 어찌보면 전통사회 부락공동체의 연장선이라고도 할수 있는것이다.

전통문화에서의 “계”와 “두례”나 오늘의 “동아리”나 다 개인주의와는 상반되는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인것이다. 다른 한면으로 이 가치지향은 한국의 정치문화에 血緣, 地緣, 學緣이라는 동아리특성을 부여하였으며 집단이 기주의와 같은 편협한 동아리문화도 조성하였다.

총체적으로 한국에서의 전통적가치지향의 변화를 살펴볼때 우리는 서구구조에 따른 가치관과 전통적가치지향이 갈등과 충돌을 보여왔지만 상호보완하는 이율배반적효과도 보여왔다는것을 알수 있다.

4. 조선의 사회제도와 그에 따른 전통적가치지향의 변화

분단후 조선은 한국과는 다른 사회제도 즉 사회주의체제를 선택하였다. 사회주의체도에서는 소유재가 자본주의와 달리 공유제도이다. “국가적,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로 이루어지는 사회주의적소유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 하는 사회경제적기초”²⁷⁾로 강조된다. 이 제도에서는 또한 “사회주의본질은 집단주의에 있으며 그 우월성과 생활력의 원천도 집단주의에 있다”고 보며 “집단주의란 한마디로 말하여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중히 여기는

사상이다.”²⁸⁾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에 따라 실행되는 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다. 생산수단이 인민의 소유로 되여 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민의 대표자인 국가가 마땅히 경제를 통일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된다.²⁹⁾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와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는 인민대중을 크고 작은 집단에 귀속시켰으며 매개 사람들 모두가 자기집단을 가지게 하였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구조변화로 조선은 1946년 주요한 공업부문의 국유화부터 시작하여 1958년 8월에 이르기까지의 농민, 수공업자, 상인, 공업자본가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구조적으로 완성하였다. 조선의 농업협동화는 중국의 인민공사화와 거의 같은 시기에 완성되었는바 전통사회에서의 자율적인 농업협동조직 예컨대 두레, 품앗이, 부락공동체, 계, 친족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구조는 체제에 따른 사회집단으로 변이(變異)고착되었다. 이 사회구조는 우리주의 가치지향을 지닌 조선민족에 있어서는 전통적 가치와 쉽게 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동시기 같은 사회체제를 가진 동유럽의 폴란드와 같은 경우는 1956년까지의 경작가능토지의 단 9%만이 집단화되었고 그 후 집단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립된 정책들이 농민층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포기될 수 밖에 없었는데³⁰⁾ 이것은 농업에 있어서 협동적 혹은 집단적인 생산방식에 대한 어떠한 고유한 전통도 없었던 탓에 기인한 것이다.³¹⁾

Ruth Benedict는 모든 문화는 자기의 가치지향을 갖고 있으며 자기가 소속한 사회에서의 적응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³²⁾ 우에서도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전통사회에서 조선조사람들은 “나”보다도 “우리”를 내세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그것이 공동체정신으로 발현되었다.³³⁾

조선에서는 전통적인 여러 형태의 공동체들이 사회구조적으로 다른 형태의 집단으로 변이하였지만 그것은 전통적인 우리주의 가치지향의 현대판 집단의식체계로 자리잡아 그로서의 적응성과 우월성을 과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50년대 후반으로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조선의 공농업생산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하였으며 한국보다도 우세했었다. 프랑스의 농학자 레언.두멘트는 60년대 후반에 이미 농업면에서 조선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앞자리에 섰으며 공업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일부 서방학자들은 조선이 거둔 성과는 2차 세계대전 후의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뚜렷한 기적이라고까지 하였다.³⁴⁾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작용을 하였지만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이 그에 적합한 사회구조에 조합되었을 때 사회구조와 가치는 모순

이나 충돌, 갈등보다도 보다 많은 융합을 보여주었기에 계획경제하에서 사회발전의 추진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계획경제에 따른 집단경제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경쟁요소의 결핍으로 그 한계를 나타냈는 바 이것이 제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70년대 후반부터 문제점으로 나서 사회발전을 억제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게 된다. 사회학자 Georg Simmel은 큰 집단에 비해 작은 집단의 행동은 더욱 과단성이 있으며 더욱 효과적으로 자기들의 자원을 이용한다고 하면서 구심력을 가진 소집단은 보통 자기의 에너지를 빌려하고 사용하지만 큰 집단에서는 에너지가 늘 잠재해 있다고 하였다.³⁵⁾ 이에 따르면 집단이란 크면 클수록 그 효율이 멀어지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1996년부터 분조관리제를 분조도급제의 형식으로 하여 이익분배형식을 개조하고 있는 바 이것은 집단주의를 계속 실시하면서도 집단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개인의 이익과 결부시키는 경쟁구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집단과 개인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상술한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전통적인 우리주의 가치지향이 조선에서는 강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합리성여부를 따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다만 전통적 가치지향으로서의 이 가치지향은 집단이라는 사회구조 속에서 강화되었으며 그로써의 적극적인 요소도 보여주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통적 가치지향에서의 우리주의 가치지향을 강조함은 결코 전통적 가치지향에 개인이기심의 추구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나”보다도 “우리”가 강조되었다는 의미에서 제기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도 집단주의라는 사회구조 속에서 보다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견지에서 농업협동경리를 창설한 것이 농민들 속에 남아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뿐 리빼고 집단주의를 배양함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이다.³⁶⁾ 다른 한면으로 바로 이러한 개인주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상개조와 집단주의 교육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강조되어온 것은 공산주의 사상을 핵으로 하는 정신적 추구였다.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물질보다도 정신적인 것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이것 역시 전통적 가치지향에서의 도덕충상의 정신적인 것을 지향하는 가치와 융합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냉전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기에는 이데올로기 성분이 다분히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 문에서는 그것을 다루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장기간의 사상교양에 따른 정신적인 것의 추구는 물질적 추구나 금전추구를 저속적인 가

치관으로 내면화시켜왔던 것이다. R. K. Merton이 미국사회에서의 문화적 목표를 “금전적성공” 또는 “부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것과 같은 물질적 성공주의는³⁷⁾ 자산계급의 부패한 가치관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조선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물질적부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정신생활이 더욱더 번영화되어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³⁸⁾ 따라서 물질만능의 원리가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생명이라면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상이 생명이라고 말할수 있다³⁹⁾고 보는 것이다. 이 사상의 우월성 즉 정신력의 우월성을 사회주의에서의 우월성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사람의 인격완성은 사회주의 도덕력에 따른 인격완성이며 한사람을 평가하는 가치기준은 결코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가치였다. 따라서 사회와 인민앞에 지닌 도덕적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다.⁴⁰⁾

이러한 가치지향은 근50여년이라는 기간에 거쳐 이미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 내면화되었다고 할수 있다. 이 면에서도 우리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전통적인 가치지향에서의 도덕승상의 정신적가치지향이 보다 더 강화되어왔다는것을 알수 있다.

셋째로, 전통적가치지향에서의 권위주의가치지향은 이중성을 보여주어 수령의 절대적권위의식 같은 것은 강화되었지만 제반 사회를 상대로 한 인간관계에서의 권위주의가치지향은 약화되어왔다고 할수 있다. 계획경제와 집단경제,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에 따라 “우리”라는 집단안에서 인간관계에는 비천과 존귀가 따로 없으며 모두가 집단을 위한것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서열의식이 아닌 평등의식이 강조되었다. 이것은 평등을 주장하는 체제에서의 필연적결과라고 볼수 있다. 권위주의가치지향의 표현인 지배와 피지배의 서열관계는 우선 소유제면에서 다 같은 주인이라는 평등관계가 설립되였기에 그 기반이 약화된것이다. 또한 사회성원 모두가 집단의 한개 성원으로 귀속되고 집단에 의한 행사가 보다 많은 비례를 차지하였던만큼 가족에 있어서의 전통사회의 권위도 가족으로부터 사회구조에 따른 집단에 옮겨져 결국 가정과 가족에서의 년장자의 권위의식도 예컨대 친족공동체에서의 권위의식, 그에 따른 전통적인 가례풍습 같은 것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할수 있다.

조선에서는 “사회 정치적생명체가 공고한 집단으로 강화발전되려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예속과 불평등이 없어야 할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사회적집단전체의 자주성이 옹호되어야 한다”⁴¹⁾고 인정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원리는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원리와 함께 통

조선반도남북문화의 공통성과 차이 및 통일의 과제

일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개인들사이의 평등이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전제로 된다는 것과 관련된다.⁴²⁾ 이 개인들사이의 평등은 집단생활에서의 경제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평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평등관계가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로 심화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 평등은 우선 상하서열관계에서의 평등을 강조하게 되여 결과적으로는 상하질서에 의해서가 아닌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의한 질서를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상술한 세가지 가치지향의 변화를 논할때 우리는 조선에서는 전통적가치지향에서의 도덕승상의 정신적가치지향과 우리주의가치지향은 보다 강화되어 왔으며 권위주의적가치지향은 전 사회적측면에서 약화되어 왔다고 할수 있다.

총체적으로 볼때 조선은 사회구조와 가치 또는 사회제도와 문화 양자관계에서 충돌과 모순, 갈등이 적은 융합을 보여왔다고 할수 있다. 전통적인 가치지향이 보다 강화되었다는 측면에서 볼때 그로서의 적극적의의도 있지만 무한경쟁을 이 시대의 특징으로 이야기할때 여기에서 부족되는것이 바로 부(富)를 창조하는 원동력인 경쟁시스템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반도 남북의 경제발전속도가 역행한데는 바로 여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남북문화의 비교분석 및 통일의 과제

위의 글에서는 남북공동의 전통적가치지향을 참조틀로 남북에서의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본 연구의 목적인 남북문화의 공통성과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이다. 문화의 핵으로 심층에 깔린 가치지향의 공통성과 부동성을 밝힐은 공통성만 강조하거나 또는 부동성만 강조하는 편면성을 극복하는것이 통일의 과제로 나선다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남북통일행정에서 가치지향의 부동성으로부터 야기될수 있는 갈등과 충돌은 전통적가치지향을 바탕으로 하는 공통성의 확대로 해소되어야 할것이다. 바로 이것을 통한 궁극적인 내적통합을 실현하는것이 통일의 중요한 과제인것이다.

위의 글에서 보다깊이 남과 북은 우리주의가치지향에서는 남이 약화 북이 강화되었고 정신적추구의 가치지향에서도 남이 약화, 북이 강화되었으며 권위주의적가치지향에서는 둘다 이중성을 가지고있지만 제반 사회를 상대로 할때는 북이 약화, 남이 강화되어 왔다고 볼수 있다.

물론 차이는 약화된 부분과 강화된 부분의 차이에 있다고 할수 있다. 우리는 이 차이를 가치에 의한 행위나 사고방식의 비교분석에서 입증할수 있는것이다. 여기에서는 입증사례로 부동한 체제에서 각이한 가치지향을 추구 하였던 동서독의 경우를 예로 들수 있다. 통일독일의 사례에서 우리는 공통 성을 기반으로 한 형식적통일이 이루어진 후 심층의 가치지향의 차이는 모순과 갈등을 점점 더 심화시킨다는것을 알수 있다. 독일 시사주간지(Der Spiegel)의 1990년 가을, 1991년 중반 그리고 1992년말의 세차례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첫번째 조사보고에서 동서독주민들은 40여년간의 다른 체제에 익숙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점에서 일치성을 보였으나 두번째 조사때는 異見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세번째의 조사에서는 반목이 침예화되는 경향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것이다.⁴³⁾ 동서독지역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마음의 벽(Mauer im Kopf)” 혹은 “한 국가내의 두 사회(Zwei Gesellschaften in einem staat)”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동서독주민들사이에 서로를 비하해서 부르는 표현——즉 “서쪽의 것들(wessis)”, “동쪽의 것들(ossis)”——은 현재 통일독일의 사회가 사회경제적차원을 넘어 사회심리적분열에 직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⁴⁴⁾

독일통일은 보이는 장벽도 허물기 쉽지 않지만 보이지않는 장벽을 허물기는 더더욱 쉽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 어떠한 방식의 통일이든간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진통은 바로 이 가치관의 차이와 갈등에서 야기되는 진통이라고 보는것이다.

이 세가지 가치지향중의 어느 한가지 차이도 다 모순과 갈등의 내적원인으로 작용할수 있는것이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물질추구와 정신추구, 권위주의와 평등주의 이 모순과 갈등은 통일행정에 있어서 또한 형식적인 통일후에도 장시기동안의 전통을 거쳐야 해소될것이다. 이 행정에서 갈등은 극심한 지역감정 심지어 충돌과 새로운 분단도 초래할수 있는것이다. 1993년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독지역주민들의 22%, 동독지역주민들의 11%만이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는 동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각각 71%, 85%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별개의 독일인으로 인정하였는바⁴⁵⁾ 이것은 가치관의 갈등과 충돌은 한 민족을 두개의 완연히 다른 이익집단으로 갈라놓을수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독일의 통일사례에서 남과 북이 섭취한 각이한 경험교훈은 이 면에서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수 있다.

한국에서는 통일독일의 후유증이 보여주는 경제부담, 빈부격차, 실업문제, 지역격차 등의 악화를 우려하는 경향이 커가고 있다. 반면에 독일통일과 동

구, 소련의 좌절을 지켜 본 조선사람들은 체제변화나 독일식통일은 착취와 압박, 사회적불평등과 병폐, 실업과 빈궁 등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착취제도를 되살리는 길일 수 밖에 없다고⁴⁶⁾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조선은 국민간의 균체적인 접촉으로 오는 가치관의 부딪침은 없었지만 한국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갈등과 모순, 충돌이 여실히 반영되고 있다. 그들은 북한에서의 삶과 남한에서의 삶의 비교에서 사회적대우가 매우 나아졌다, 다소 나아졌다는 비례가 31.8%인데 반해 매우 나빠졌다, 다소 나빠졌다는 비례는 48.7%나 되었다.⁴⁷⁾

또한 북한이탈주민인 김현덕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려고 무지 노력했지만 너무 힘들어 제입북하려던 사건도 있다.

다른 하나의 사례로는 중국의 조선족과 한국인들과의 갈등이다. 이것은 중국의 조선족이 중국이라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조선과 비슷한 가치지향을 추구하였다는데서 또한 한국인과 동족이라는 데서 비교할 의의가 있는 것이다.

중한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인들과 중국조선족들은 교류와 왕래가 급증하면서 직접적인 접촉을 이루어 왔다. 이 가운데서 나타난 심각한 갈등과 충돌은 상호간에 불신임을 쌓아왔으며 그것은 1996년의 《페스카마》호 사건이라는 엄청난 동족참살사건을 빚어냈다. 양자간의 수많은 갈등과 충돌사례는 결과적으로 내면화된 가치지향의 충돌로 표면화되며 이 사건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하듯이 향후 10년내에 남북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도처에서 파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⁴⁸⁾

상술한 사례들은 갈등과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남과 북이 앞으로 겪어야 할 진통을 先例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현실로 지켜본 남과 북은 모두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통일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통일을 기피하며 통일을 갈망하면서도 통일을 우려하고 있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역시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남북조선이 형식적인 통일만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을 이루하자면 이 과정이 필요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준비과정이 없는 통일은 자칫하면 새로운 갈등과 충돌이 야기될 수 있으며 거기에는 새로운 분단을 초래할 위험이 뒤따른다. “통일이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접촉과 교류를 통해 몇 단계의 질적 전환을 거쳐야 비로서 도달할 수 있는 아주 길고도 먼 과정이다.”⁴⁹⁾

궁극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조선의 내면화된 문화적차이를 궁극적으로 해소할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할것이다. 남북조선의 문화적차이를 공통분모라고 할때 우리는 공통분모는 역시 전통적가치지향이 주되는 요인으로 나선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공통분모란 전통사회그대로의 가치지향을 되찾는다는 뜻이 아니며 그것은 되찾을수도 없는것이다. 그것은 이미 남북조선사회구조속에서 본래의 형태를 잊었다고 하지만 그 뿐만 아니라 공통성을 확인할수 있는것이다.

공통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통분자가 작아지는것이다. 특히 “나”보다도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민족공동체로서의 응집력이 강화될것이며 제반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이 뒤따르게 될것이다. “나”보다도 “우리”를 위한, 또는 집단이기주의나 지역주의보다 제반 민족이나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이 뒤따르지 않으면 궁극적인 통일은 그만큼 지체되기 마련인것이다.

사실 이 전통적가치지향은 남과 북에서 정도부동하게 사회구조에 의해 사회경제발전의 추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보다도 “나”가 중시되고 개인주의와 개인의 가치실현이 보다 중요시된 한국에서도 우리주의가치지향은 여전히 내면화된 기본가치지향으로서 한국문화의 이중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것이다.

우리는 1980년대 한국이 큰 수재를 입었을때 조선인민들이 쌀과 구제품을 보내며 보여준 동포의 정, 최근년간 조선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한국국민이 보여준 동포애정신도 역시 전통적인 상부상조정신의 현대판으로 해석할수 있는것이다. 사회구조에 의한 집단생활에 익숙해온 조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것은 현재 한국인들의 사회구조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는것일 것이다. 결국 공통분모란 전통적가치지향을 바탕으로 서로 상대방의 가치관을 이해해주는것이다.

흔히 권위주의적가치지향의 강약변화에 따른 차이를 남북조선문화차이가 가져올 갈등과 충돌의 주 원인으로 꼽는데 그 가능성이 매우 큰것은 사실이다. 권위주의적가치지향은 인간관계에서의 상하서열의 위계를 나타내는 사실상의 불평등한 가치관이라고 할수 있다. 평등을 추구하는 가치지향에서 그것은 융합되기 어려운것이다.

그렇지만 권위주의가치지향에는 사회질서를 안정되게 구축하는 적극적인 요소도 내포되어 있는것이다. 연로자에 대한 연소자의 존중, 교원에 대한 학생의 존경,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 등등이 바로 그러한것이다.

남북조선이 안고있는 통일의 과제를 본 연구에서의 가치지향으로 논할때

그것은 결코 어느 한 가치관에 의한 다른 가치관의 흡수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양자간의 상호이해에 따른 상호보완에 있다고 할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혔듯이 전통적인 동질문화를 갖고 있는 남북조선은 각이한 체제에서 이질성에 가까운 문화의 차이를 가치지향의 변화에서 보여왔다. 또한 이러한 부동성과 차이가 갈등이나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것이다. 그렇지만 남북조선은 각자 가치지향의 변화에서 차이와 부동성만 보여온것은 아니다. 남북조선이 공유하고 있던 전통적가치지향은 각자의 사회구조속에서 그 사회의 발전에 정도부동한 적극적인 추진역할을 하여왔다. 한국의 “동아리문화”나 조선의 “집단주의문화”에서, 조선이나 한국의 교육승상열에서, 전통적권위주의가치관에 따른 남과 북의 도덕규범에서 우리는 공통된 전통적가치지향의 뿌리를 감지할수 있다. 물론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이러한 일치되는 가치에 엄격한 기준틀을 설정하는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남북문화에 공통성과 부동성으로 서로 일치되고 보완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오늘에 와서 남북조선의 통일과제에서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통성에 따른 화합과 융합을 연구하는것도 매우 중요한것이다. 그것은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심충의 융합이기 때문인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궁극적인 통합을 위해서 양자문화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통일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나선다고 할수 있다. 통일의 과제로서 이 공통성을 찾는것은 결과적으로 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것이다.

지난 시기를 군사력의 경쟁시기로, 오늘의 시기를 경제력의 경쟁시기로 볼 때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도덕력의 시기로 보아야 할것이다. 삶의 궁극적목표는 물질의 풍요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력한 뒤받침으로 하는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할수 있다. 이 견지에서 볼때 전통문화에서의 우리주의적가치지향, 도덕승상의 정신적가치지향, 그에 따른 상부상조의 “동아리정신”, 효정신 등등은 결코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닌, 또한 조선민족에만 한한 것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가치로서 21세기 지구촌문화의 한부분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가 동방의 세기가 된다는 주장에도 이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것이다.

남북조선이 세계가 지구촌으로 변모하고 있는 시대의 조류에 빨맞춰 미

래지향적가치로 작용할수 있는 전통적가치지향으로 갈등해소의 기반을 다져간다면 남북조선의 궁극적인 통일은 조만간에 실현될 것이다. 50)

〈주〉

- 1) 박기덕, 이종석 《남북한 체제와 통합모델의 모색》 세종연구소, 1995년 P212 참조
- 2) 《중앙일보》 1997년 4월 5일부 “통일의 반면교사” 김영희글 참조.
- 3) 임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P97 참조.
- 4) 김현환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통일과 발전의 근본원천》 민주자주사상연구소, 1996년.
- 5) 장달중 《남북한 정치체제의 이념과 현실》 세종연구소, 1996년, 참조
- 6) 이삼열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 서울 헛빛출판사, 1991년 참조.
- 7) 《異文化間コミュニケーション》(by John Condon tokyo, サイマル出版會)
- 8) 최우영 《조선사회지배구조와 유교 이데올로기》 한국사회연구회, 문학과 지성사, 1994년 P68.
- 9) 최우영, 앞의 책 P79 참조.
- 10) 임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1994년 P99 참조.
- 11) 지교현외 《조선조향약연구》 민속원, 1991년 P84 참조.
- 12) 김학준외 《남북의 생활상》 博英社 1986년 P50 참조.
- 13) 대학교재연구회 《한국문화사》 도서출판 한일 1993년 P172 참조.
- 14) 임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1994년 P99.
- 15) Weber.Max. "soziologie der herrschaft," wirtschaft und Gesellschaft.(1987).
- 16) 김학준외 《남북의 생활상》 박영사출판 1986년 P50.
- 17) YunShik Chang "The urban Korean as Individual" Koren observer Vol. 3, No. 3(April. 1971) pp3-5.
- 18) 고려대학 민족문화연구소 《한국문화사大系》 1985년 P744..
- 19) 지교현외 《조선조향약연구》 民俗苑 1991년 P135 참조.
- 20) 지교현외 《조선조향약연구》 민속원 1991년 PP135—140 참조.
- 21) 《한국근대화 100년 — 21세기를 지향하며》 제 9 회 한국학국제학술회의 논문집1996년 p142 참조.
- 22) 우와 같은 책, p489 참조.
- 23) 길승홍외 《한국현대정치논》 법문사, 1995년 P62 참조.
-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정신문화연구》 1992년 제15권 제2호 p116 참조.
- 25) 문화일보 포럼선집 《96한국의 논점》 문화일보, 1996년 p132.
- 26) DAVIS AND SCASE 《체제비교사회학》 도서출판 느티나무, 1990년 P110.

조선반도남북문화의 공통성과 차이 및 통일의 과제

- 27) 김정일 《사회주의를 위하여》 조선노동당출판사 1993년 p143.
- 28) 우와 같은 책 p144.
- 29) 우와 같은 책 p121 참조.
- 30) DAVIS AND SCASE 《체제비교사회학》 한상진역, 도서출판 느티나무, 1990년 p139 참조.
- 31) 우와 같은 책 p119 참조.
- 32) Ruth Benedict 《문화도식》 三聯書店 1986년 中譯版 참조.
- 33) 한영우 《한국의 문화전통》 을유문화사, 1988년 pp33—34.
- 34) Eui-Gak Hwang. 《朝韓經濟啓示錄》 중국발전출판사, 1996년 p92 참조.
- 35) Georg Simmel, The sociology of George simmel, trans. Kurt H.Wolff(Glencoe, Ill.: Free Press(1950) P.92.
- 36)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사회과학(경제학) 제38권 제11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2년 p5.
- 37) R. K.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Glencoe: Free press, 1949 PP.125—133.
- 38) 김정일 《사회주의를 위하여》 조선노동당출판사, 1993년 p13 참조.
- 39) 우와 같은 책 p102.
- 40)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사회과학(철학) 제39권 제5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3년 p53 참조.
- 41) 《근로자》 1987년 12호, 평양근로자사, p25.
- 42) 우와 같은 책, p27.
- 43) "Die neue Mauer Wachst", Der Spiegel, Nr.3 (1993), P.52—59.
- 44) 김학성 《독일사례를 통해본 문화적 이질성 극복 방향》 민족통일연구원 편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건설》 1994. 12, P101.
- 45)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 mai 1993).
- 46)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사회과학 (역사법학) 제39권 제85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3년, P5 참조.
- 47) 《신동아》 1997. 5 P385.
- 48) 문화일보포럼 《96한국의 논점》 문화일보, 1996년, P266.
- 49) 위와 같은 책 P231.

50 <参考文献>

- 任熙燮 《韓國의 社會變動과 價值觀》 羅南出版, 1994年
- 朴基德, 李種奭編 《南北韓體制比較와 統合모델의 摸索》 世宗研究所, 1995年
- 李三悅 《平和의 哲學과 統一의 實踐》 서울, 헤트出版社, 1971年
- 《朝鮮社會支配構造와 儒教의 대을로기》 韓國社會研究會, 1994年
- 池敦憲 《朝鮮朝鄉約研究》 民俗苑, 1991年

- 《韓國文化史大系》 高麗大學 民族文化研究所, 1985年
- 《韓國近代化——21世紀을 향하여》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6年
- 《精神文化研究》 1992年 第15卷,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韓永宇 《韓國의 文化傳統》 을유文化社, 1988年
- 《協同農場管理運營經驗》 1989年, 朝鮮平壤
- 《朝鮮中央年鑑》 1950年, 朝鮮中央通信社
- 《朝鮮中央年鑑》 1963年, 朝鮮中央通信社
- 《金日成綜合大學學報》 社會科學(經濟學)第39卷 第11號, 金日成綜合大學出版社
- 《金日成綜合大學學報》 社會科學(哲學)第39卷 第5號
- 《金日成綜合大學學報》 社會科學(經濟學)第39卷 第3號
- 《金日成綜合大學學報》 社會科學(歷史法學)第39卷
- 金學俊外 《南北의 生活相》 博英社出版, 1986年
- 吉昇欽外 《韓國現代政治論》 法文社, 1995年
- 金正日 《社會主義을 爲하여》 朝鮮勞動黨出版社, 1993年
- 《勤勞者》 1957年 1—6號, 1958年 1—3號, 1987年 2號, 12號, 平壤勤勞者社
- 《工業에 對한 指導와 管理經驗》 1987年 朝鮮平壤
-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建設》 民族統一研究院, 1994年
- 王緝思 《文明與國際政治》 上海人民出版社, 1995년
- 王壽林 《社會主義國家權力制約論》 東北財經大學出版社, 1993년
- 金景一 《中國朝鮮族文化論》 遼寧民族出版社 1994年
- 《韓國文化史》 圖書出版 韓一, 1993年
- 《異文化間コミュニケーション》 by John condon tokyo, サイマル出版會
- DAVIS AND SCASE 《體制比較社會學》 韓國 느티나무出版, 1990年, P110
- Ruth Benedict 《文化模式》 三聯書店 1986年 中譯版
- 黃義玗 《朝韓經濟啓示錄》 中國發展出版社 1996年
- 《孝思想과 未來社會》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年
- 《社會科學》 1977年 1—6號, 朝鮮 平壤 社會科學出版社

韓半島에서의 民族主體性 形成 過程에 관한 研究

정 영 순

A Study on Formative Process of National Consciousness of Self-reliance and Independen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characterized by a very high level of military threat toward each other since the national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The national consciousness of self-reliance and independent and the legitimacy of Korean history have been the subject of a great deal of controversy.

It is necessary to make researches into the Korean nationalism and to study how to solve problems occurred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complete liberation.

Although an unprecedented change has taken place in the old international order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an Communist Bloc,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unchanged.

The principal task which should be accomplished first of all is to awaken the national consciousness of self-reliance and independence of Korean nation.

While the ideology has come to an end throughout the world, it still remains dominating in the Korean Peninsula.

The paper attempts a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consciousness of self-reliance and independence since the modern times up to the present in order to end the hostile ideology which determines the inter-Korean relations.

정 영 순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I. 머리말

한국이 서구 팽창주의를 업고 들어온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오늘까지도 민족의 개념은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남북한은 막강한 군사적 파괴력을 소유한 채 상호대립 속에 불안과 긴장 상태에 놓여있으니, 이러한 민족의 비극이 바로 해방된 민족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민족의 주체성과 한국사의 정통성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줄기찬 탐구와 산업주의의 외바퀴에서 진행되는 근대화의 제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는 바로 민족의 해방을 찾는 민족적 사명에서 나온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탈냉전과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두 가지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가지는 민족국가 단위를 초월하는 초국가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다. 국제기구와 초국가적 기업들의 역할이 증대하는 것과 함께 유럽공동체(EU),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 지역공동체 형성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권에 속해 있던 다민족 국가(소련, 체코슬로바키아 등)는 단일 민족국가 단위로 해체되는 진통을 겪음으로써 민족 단위의 정치공동체가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단위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된 역사적 경향 속에서 18세기 이후 개별적 정치공동체 수준과 국제정치 수준에서 중요한 단위였던 민족국가의 장래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앞으로 중세와 같이 분권화된 세계 질서가 형성될지, 세계정부가 구성될지, 아니면 몇개의 지역공동체권역으로 세계가 구분될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렇게 상충되는 것 같이 보이는 몇가지 경향들이 상호작용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세계 질서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가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였던 국제질서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여전히 국가는 대내적으로 개인의 삶을 규정짓고 대외적으로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더욱이 19세기 말 서구로 부터 밀려 온 근대화의 충격에 휩쓸려 식민지배와 민족분단의 쓰라린 경험을 겪은 한민족에게 아직까지 민족주체성 형성은 달성해야 할 목표로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존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

러한 이데올로기를 종식시킬 수 있는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도출시키기 위하여 먼저 지금까지 근대 이후 민족주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한반도에서의 민족 주체성의 형성과 전개 과정

한국 근대사의 큰 흐름은 민족의식의 형성과 전개 과정이라는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外壓과 抵抗의 역사로만 이해할 때에 너무 現象論에만 치우쳐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自律的, 內在的 發展이라는 측면을 간과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근대의 민족주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당시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전개된 반봉건적 사회경제관계와 반침략적 자주독립 내지 민족해방의 문제에 초점을 둔 그 內在的, 外向的 展開라는 시각에서 살펴볼 때에 이에 대한 主體的인 歷史像이 밝혀질 것으로 믿어진다.

19세기 후반기 이후 한반도에는 민족주체성 형성 노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상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신채호의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에 해방후 남북한에서의 주체성과 민족주의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하겠다.

1. 신채호의 사상에 나타난 민족주체성

한반도에서는 신채호를 통해 비로소 민족주체성에 대한 자각적인 이념 운동이 발전하였다. 그는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에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중이 각성하고 뜨거운 조국애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국사를 민족주체성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국사를 통해 애국정신을 북돋고자 하였으며, 민족의 영웅들을 드높여 대외 투쟁정신을 고취하였다. 그의 “讀史新論”은 근대적 역사의식과 민족 주체사상이 결합되었다.¹⁾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를 비롯한 여러 저서들에서 조선 지배세력의 사대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조선 민족의 ‘主體情神’과 ‘自我意識’을 주장하고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특징지어진 조선 민족역사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지켰다.²⁾ 그는 민족주체성에 대한 이론가, 역사학자, 민족독립운동가로서 필봉과 육탄으로 철두철미하게 투쟁을 벌이다가 일제의 옥중에서 생애를 마쳤으며, 최초로 한국의 근대 민족주의사학을 창건했고 한국사의 전개를 왜곡하는 일제의 초기 식민주의 사관에 대결하여 이를

비판, 극복함으로써 한국의 근대사학의 개척자로서 불멸의 업적을 남긴 위대한 국사학자였다. 그는 국사 = 민족사 = 정신사라는 관점에서 국사학자로서 한국 고대사를 구체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체계화하려 한 것도 민족주독립을 우선적으로 실현하려 한 것이었고, 민족주의자로서 항일 독립운동을 추진한 것은 궁극적으로 민족과 민중 주체의 근대 민족국가를 수립하려는데 있었다.

신채호는 민족이 위기에 처하자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봉건 통치자의 부패, 무능을 폭로하고 일본 침략자의 죄행을 통렬히 배척하였으며, 대중의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고자 애국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가 보기에도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하는 좋은 방법은 민족의 자각을 제고하고 대중의 애국정신을 환기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유효한 수단이 바로 역사교육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교육구국론을 제기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벗어 나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민중에 의한 폭력혁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그는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려면 강도 일본을 몰아내야 한다. 강도 일본을 몰아내려면 혁명을 행해야 한다.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 민중과 폭력 양자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비록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를 내며 장렬히 거동한다 하더라도 또한 번개같이 수그러지는도다.”라고 단언하였던 것이다.

한편 1920년대 중반부터 그는 민족해방은 물론 대내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의 해방까지를 주장하는 등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에 못지않게 반봉건주의를 부르짖으며 보수적인 사회적 불평등 사상에 반대함으로써, 초기의 영웅사관에서 벗어나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인식하는 등 국내에서 활동하던 만해 한용운과 함께 1920년대의 진보적인 좌파 민족주의의 한 흐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의 사상과 실천활동은 일제 강점하의 식민지 민족주의 내지 저항적 민족주의로서의 특성을 그대로 집약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

이러한 신채호의 史學은 조선 후기의 실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한말 계몽적인 사학들이 가졌던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의 역사관에 저술을 통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그의 사학의 배경에는 한말의 自強思想, 新民設과 民衆革命論, 反尊華主義가 강렬하게 풍기고 있으며, 이것이 그의 민족주의사상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둘째, 그의 사학은 史書를 비판하면서 非儒家史學도 수용하려 하는, 말하자면 한국 사학사의 두 큰 흐름을 합류시키고 있다. 세째, 그의 역사학은 근대

역사학이 갖는 역사이론과 방법론을 갖고 있으며,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파악하는 데까지 전진하였다. 신채호는 “민중의 역량이 폭력을 중심수단으로 결합” 할 때만이 식민지 체제를 타도할 수 있다는 민중적 혁명론과 독립투쟁 노선에서는 無政府主義의 투쟁으로 전환해 갔다. 이 역시 독립투쟁이란 정치, 군사, 외교 노선에 의한 국권 회복운동이라기보다는 일제 식민지 체제 자체를 뒤집어 엎는 체제변혁의 운동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이를 1923년에 쓴 “朝鮮革命宣言”에서 고유적 조선의 건설, 자유적 조선민중의 건설, 민중적 경제의 건설, 민중적 사회의 건설, 민중적 문화의 건설이라는 방향으로 표현하였다. 이 시기에 신채호는 전근대적인 지배층 위주의 유교적 사관의 완전 탈피, 강자와 적응자만이 역사의 주체라는 제국주의적 사관인 사회진화론의 부정과 변증법적 발전론 내지 공생적 발전론의 수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적 민중의 재발견이라는 방향으로 역사의식을 전환해 간 것이다. 그는 역사는 “인류사회의 我와 非我의 투쟁”이라고 하여, 대내적으로는 계급 대 계급의 모순상극을 지양하기 위한, 대외적으로는 민족 대 민족의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 모순관계의 끊임없는 항쟁사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그의 이론은 끝없는 비타협적, 저항적 민족주의의 선언이며, 당시 독립운동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준 실천적 역사학이라고 볼 수 있다.⁴⁾

이러한 민족주의 역사학은 193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서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서 역사를 연구하여 식민사학에 대항하고 민족문화를 지킨다는 입장으로 계승되어서 후일 신민족주의 역사학으로 이어지게 된다.

2. 남한에서의 민족주체성

다음에는 해방 이후 분단된 상태하에서 남북한에서 각각 민족주체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자 한다. 남북한 단독 정부의 수립과 뒤이은 6.25전쟁으로 인한 민족 공동체의 파괴는 다양한 기반위에서 성장하던 우리 사회를 극우, 극좌 이데올로기의 대립 체제로 재편성 시켰으며, 이로 인해서 이후 역사의식의 진전에도 심각한 정체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러면 먼저 남한에서의 민족주체성의 발전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950년대의 남한 학계에서는 학문의 탈정치화라는 표방하에 식민지시대에 이식되고 지속되어온, 체계적인 역사의식이 결여된 문현고종적 학풍만이 남게 되었고, 다른 사관은 이단시하는 분위기까지 형

성되었다. 이는 역사학의 실천적 성격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시기 구분을 고대-중세-근세-최근세로 한 震檀學會편 “韓國史” 7권의 간행이 시작되는 등의 업적이 있었으나, 특히 근대사 부분에서는 외세와 연결되기도 하였던 위로 부터의 근대화 노선이 높게 평가되고 식민지 사회체제 전복운동 같은 역사 체험들이 역사의식에서 空洞化되는 등의 현상이 초래되었다.⁵⁾

남한의 현대 사학사에서 하나의 큰 전환점을 이룬 것은 1960년의 4.19였다. 4.19는 정치적으로는 미완의 혁명이었지만, 사상적으로는 민족주체성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냉전 체제에 대한 자기 반성을 심각하게 촉구했다. 이에 따라 역사학계에서는 냉전 체제에 안주했던 문헌고증사학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식민주의사학에 대한 비판이 점차 고조되고, 민족 주의사학과 마르크스주의사학에 대한 관심도 양성화되었다. 사회경제사연구가 활기차게 전개되고, 시대구분 논쟁이 일어난 것은 1960년대 사학의 큰 특색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 성과에 힘입어 한국사의 주체적 발전 과정을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었으며, 그것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의 정치상황은 역사학계에 심각한 자기 갈등을 드러내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에 의해서 추진된 ‘조국근대화’운동과 ‘민족주체성확립’운동은 외견상 역사학계의 민족주의 돌풍이나 근대화 과정에 관한 연구붐과 맞물리는 인상을 주면서도, ‘민주화’라는 문제에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지녔기 때문이었다.⁶⁾

그러나 어쨌든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한 정부와 국민 다수가 ‘민족주체성’이라는 구호에 공감을 느끼기에 이르렀고 ‘민족주체성’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남한사회에서 민족의 주체성을 문제삼는 이유를 김태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강대국까지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들은 아직도 자기나라의 국가이익을 오로지 추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방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自主性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오랜 전통을 이어온 한국의 민족문화가 외래 문물의 영향으로 크게 파손되는 경향이 있는 오늘날,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화의 주인공인 한국인의 주인다운 마음가짐, 즉 주체성이 확고해야 한다. 세째는, 남한에서는 민주주의 및 근대화의 실현을 국가발전의 목표로 삼고 있으나, 이 목표의 구체적 내용과 그 실현 방안은 한국의 특수한 실정에 맞도록 정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서는 확고한 主體意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⁷⁾

이러한 인식이 남한 사회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민족 분단으로 인한 비극과 외침이 얼마나 민족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비애를 단절하는 것은 오로지 민족의 통일과 발전을 위한 노력 뿐이라는 것을 자각한 것이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3차 경제 개발 계획을 수행한 것도 그 때문이며, 1970년대에 들어와서 남북대화가 시작되었고 민족 주체세력 형성이란 과제가 제기된 것도 그 때문이다. 공화당 정부는 민족중흥의 대과업을 완수하고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주체적인 민족문화를 확립하려 노력하였는데, 그것은 먼저 근간이 되는 교육정책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리하여 1968년에는 교육에서 지향할 바 새로운 國民像이 제시된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되었고, 1970년에는 人間主義, 國家主義, 發展主義의 방향이 정립된 장기 종합 교육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72년부터는 國籍있는 주체성 교육이 강조되었다.⁸⁾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쿠데타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과거 우리민족은 너무나도 의타적이었고 사대주의적이었으며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고 극복해 나가겠다는 自助的인 정신이 너무나도 결핍되어 있었다. 정녕 5.16은 혼란과 빙곤의 고통에 시달려 안정과 번영을 열망한 국민적 염원을 대변하여 依他와 침체의 重壓에 지쳐 自立과 발전을 希求했던 민족의 의지를 발현시킨 것이었다. 그래서 수난과 시련으로 얼룩진 낡은 역사와 결별하고 궁지와 영광에 빛나는 새역사를 개척할 우리 세대의 사명을 일깨워 준 것이었다. 그래서 5.16혁명은 우리로 하여금 민족의 自我를 되찾고 자기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게 된 하나의 계기였으며 민족중흥을 위한 르네상스였다.”⁹⁾ 서구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이나 제도가 한국의 현실여건에 적합하지 않았던 경험을 겪은 다음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를 한국실정에 알맞게 토착화하여 보려는 노력은 이때부터 본격화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종전에 간과되어 온 한국적 특수성이 여기서 강조되었지만 그것이 어떻게 세계적인 보편성과 구체적으로 연결지을 수가 있는 것인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 조국 근대화와 민주화의 작업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음으로써 집권세력 내의 내분을 유발시켰던 것이다.¹⁰⁾

그러다 70년대에 와서 국내외의 정세가 다시 불안스러워지는 가운데 남북대화의 길이 트이자 정부는 10月維新을 단행하였다. 10월유신의 이념은 5.16으로 되찾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자아를 바탕으로 하여 안정 번영 그리고 통일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민족의지의 표현이며, 올바른

歷史觀과 主體의 民族史觀의 정립을 토대로 하여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여 보려는 의욕과 사상의 실천적 구체화였다. 이것은 한민족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보체제를 강화하여 국력배양을 가속화함으로써 평화 통일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¹¹⁾

그러나 유신이념도 民族主體性을 강화하려는 의욕의 표시이며 보다 적극화된 자주적 정책노선의 방향설정일 뿐 아직도 성공적인 정치이념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한국적 특수성의 인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었지만 외부세계의 여론을 납득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이념기반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것을 국민대중에게 전달하고 교육시키며 또 실천을 통해서 구체화할 수가 있는 민주적인 民族主體勢力を 형성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은 큰 파오이며 실책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일이다.¹²⁾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화에 대한 절실한 요구들은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이는 사회 각 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근대화 이데올로기, 반공 이데올로기의 깁질이 서서히 벗겨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국사학계 내부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사의 내재적 발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란 구호 밑에 이루어진 정부와 각종 지원사업에 자극받은 면이 없지 않았으나 그 결과가 반드시 정부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점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당시에는 민족을 거론하면서도 민족의 통일문제에 본격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며 ‘민중’을 주목하면서도 그것에 과학적 근거를 부여하지는 못하고 있던 한계를 갖고 있었다. ‘한국적 민주주의’, ‘국적있는 교육’이라는 정부의 슬로건에 은폐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제기되게 된다.¹³⁾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 민족적 자각을 재다짐하였던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관해서 Helga Picht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늦어도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학과 정치학계에서 한민족이 역사의 주체로 되는 것과 ‘역사 앞에서 민족을 정확히 연결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主體意識의 문제와 민족사의 正統性이 民族의 主體性을 규정하는 문제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민중

운동과 민중사상계에서도 민중 개념과 함께 주체나 주체성의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¹⁴⁾

이처럼 분단 이후 남한사회에서 주체성이 강조된 것 이상으로 북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민족주체성이 강조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북한사회에서는 민족주체성의 내용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4. 북한에서의 주체사상과 민족주체성

북한에서 ‘주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55년 경이었고,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소위 ‘주체사상’으로 체계화되었다.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 선동대회에서 김일성은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하여 처음으로 ‘사상에서의 주체’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이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역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민들을 그들의 구미에 맞도록 교양할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향토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 인민의 투쟁역사를 연구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그것을 널리 선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우리 인민의 투쟁역사와 그 전통으로 인민들을 교양하여야만 그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북돋아줄 수 있으며 광범한 군중을 혁명투쟁으로 고무할 수 있습니다.¹⁵⁾

여기에서 김일성은 조선의 혁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대주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북한의 설정(북한 공산주의체제의 발전 단계와 특수성)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당원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자주노선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1966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에 게재된 장문의 논설 “자주성을 옹호하자”에서, “자기 머리로 사고해야 하며, 자기 힘을 믿어야 하고, 남의 경험

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며, 민족적 궁지를 가져야 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해야 한다”¹⁶⁾고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외세의 영향을 받거나 외세에 종속되어 온 민족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의 역사와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제하에서 한국인의 주체성이 철저히 짓밟힌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해방후 한국인의 주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이것은 또 다시 외세의 영향과 내부의 분열로 말미암아 좌절되었고 남북한으로 분단됨으로써 한편으로는 남북한 각각의 정부체제와 정권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¹⁷⁾

이처럼 남북한 모두 민족주체성을 강조한 것은 당시 중요한 당면 과제였다고 하겠다. 이에 관해서 서독의 유명한 여류작가 루이제 린저(Luise Rinser)는 어느 한 민족이 35년간이나 외국의 지배를 받아 민족성까지 상실할 정도로 자의식을 잃어버렸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민족성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¹⁸⁾ 이러한 면에서 해방 이후 남북한에서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으며 이것은 중요한 민족적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사회에서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위해 주체성 교육을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교육에서의 주체를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김일성이 1977년 9월 5일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그는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의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르치며 자기의 것에 정통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후, 교육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허용되면 온갖 기회주의적이며 반동적인 교육 이론과 사상 조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을 강조한 것은 북한이 그만큼 외세의 영향 방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반증이 되며 이는 역사적 경험이 주체사상의 형성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¹⁹⁾

이에 관하여 Luise Rinser는 “김일성이 말한 것은 간단하다. ‘주체사상의 원칙은 혁명과 국가재건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외국의 영향이나 도움을 받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진 사회주의혁명의 경험과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물질적 조건들을 고려하여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김일성은 전쟁

직후 여전히 소련 맑스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인용된 몇 구절만 읽어 보면, 그가 국제 맑스주의까지 받아들였으나 곧 그것들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질적인 특징은 김일성이 소련 제국주의를 거부하고 다른나라의 내정간섭을 배제한 것이다”²⁰⁾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주체’가 처음 등장한 1955년 말이라는 시기는 중국과 소련의 분쟁, 소련의 심한 내정간섭, 거기에 편승한 당내 파벌투쟁, 전쟁으로 인한 국내 경제문제 등 북한정권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당내 지도사상으로서 ‘주체의 확립’이 제기되었고 김일성은 이러한 난국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혼들리지 않는 당내 지도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 서대숙은 “당시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의 분쟁²¹⁾이 시작되자 전략적인 필요에서나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중립을 유지하려고 애쓴 것으로 보인다. 1956년 소련 공산당 제 20차 당 대회로부터 1961년 제 22차 당 대회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국과 소련 상호 간의 신랄한 논쟁에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개입하게 되었고, 이는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하였다. 여기서 김일성은 흐루시초프가 제안한 수정주의적 견해²²⁾가 대부분 북한의 현실이나 자기의 이해와 상치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오히려 김일성은 이러한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적 견해를 국내적으로 이용하여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정주의자로 비난하고 남한과의 평화 공존을 지지하는 자를 종파주의자로 몰아 숙청해 버렸다. 김일성에게 중요했던 것은 중국과 소련의 분쟁에서 부각된 문제들 자체가 아니라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일이었다. 그는 명백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소련파, 소련에 대해 점점 냉담해지는 중국 사이에서 처신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북한이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주적인 국가가 되기를 바랐다. 그러면서도 그는 소련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는 삼갔고 동시에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적 견해를 수용하여 중국을 자극하는 일도 경계했다.”²³⁾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형성된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발전해 나간 과정을 Helga Picht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1950년대 말부터 70년대 중순까지는 ‘주체’를 정치적인 개념으로써만 이해하고 주민들에게 민족적 의식을 높이며 옛날부터 내려온 사대주의 잔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크게 선전하였다. 그리고 1975년 경부터 북한 철학자들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 대한 과학적인 논쟁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테제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모든 것을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로 된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째,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주인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번영하는 창조자로 된다는 것이다. 네째, 사회의 발전과정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참답게 체현하고 있는 인민 대중의 사회적 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인민 대중은 사회적 운동의 담당자이며 역사의 주체라는 것이다.”²⁴⁾

이와 같이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 주체사상은 이론적 체계화의 길을 걸으면서 맥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사상으로 제시되었다. 나아가 주체사상은 1960년대 말부터 철학과 역사관의 문제로 그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기 완결성을 갖는 논리적 구조를 갖추었다. 그 결과 주체사상은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를 갖춘 사상으로 천명되었으며 1982년에 이르러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의해서 집대성되었다. 결국 이때에 이르러서 주체사상은 초기의 단순한 내재적 주체성의 확보와 대외적 대응논리에서 한 단계 더나아가 한 집단의 내적 삶의 논리구조(틀)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²⁵⁾

이에 관한 것은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론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대한 학습을 심화하여 주체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사고와 행동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음으로써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것이다.”²⁶⁾

그리면 여기서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근로인민대중은 혁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입니다.… 인민대중이 혁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혁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혁사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領導문제입니다. 運動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運動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령도자입니다. 인민대중이 어떻게 자기의 혁명임무와 혁사적 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당과 수

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²⁷⁾

여기서 북한 사회에서는 민족주체성에 대한 내용이 결국 수령에게 귀속되는 면이 있다고 하겠다. 즉,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과 같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을 때에만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된다.” 여기에서 Helga Picht 교수는 “이 말은 역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주체의 철학적 원리, 특히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에 대한 원리와 절대적으로 모순되면서도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비사회주의적으로 썩어빠진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수십년을 살아온 본인은 조선(북한)의 정치체제가 존재하는 한 북한 학자들이 할 수 없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²⁸⁾고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Helga Picht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철학적 개념으로 될 수 있는 주체와 조선(북한)에서 60년대부터 유일사상체계로서 주장하는 주체사상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는 “다른 이전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한 것처럼 조선(북한)에서도 유일사상체계를 설정한 것은 중앙집권적 역할을 하는 당의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역설한다.²⁹⁾ 다시 말하면 주체사상이 철학적으로 개인의 주체를 강조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민족주체성, 특히 북한에서는 수령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착이 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북한에서의 주체사상이 발전하여 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이러한 주체사상은 민족주의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북한의 주체사상의 특성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더불어 등장한 우리식 사회주의론과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을 통해서 확연히 부각되었다. 1978년에 중국의 둉소평이 개혁과 개방으로 정책전환을 한 것과 소련에서 1985년부터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사회주의 체제 개혁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1950년대 중반과 같은 또 하나의 정권위기적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중국 및 소련의 개혁의 바람이 북한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김정일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폐성의 비결은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입니다.³⁰⁾

그러면 다음에는 1986년에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을 때의 문구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세계 혁명 앞에 우리 당과 인민이 지난 첫째가는 임무는 혁명의 민족적 임무인 조선혁명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깔보고 남을 맹목적으로 승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당과 인민에게 충실했을 수 없으며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큰 나라나 발전된 나라들에 대하여서도 환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환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나라의 구체적 현실로 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사상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처럼 민족의 위대성도 무엇보다 그 민족의 지도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데 따라 규정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형의 혁명적 당을 건설하심으로써 룸성번영하는 우리 인민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였으며 인류가 자주의 길로 나가는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응당한 민족적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혁명과 건설을 우리 인민의 요구와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식대로 해나가야 하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³¹⁾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론 역시 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대변혁 속에서 외부의 변화로 인해 주민들이 동요되는 것을 막고 김일성 지배체제를 더욱 더 강화시키기 위한 정치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관하여 진덕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하자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북한체제 자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이를 세롭게 발전 시켜야 비로소 북한체제의 지속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은 주체사상을 세롭게 해석하고 변모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념적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바로 그 가장 구체적인 시도가 북한이 지금까지 비판³²⁾하고 있었던 민족주의로의 탈출이었다. 즉 민족문제로 부터 민족주의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이제 사회주의의 이상이나 주장만으로는 시대적으로 설득력을 상실하고 난 후 급속하게 김일성은 자신을 민족주의자로 그것도 민족주의의 전통성을 가진 지도자로 논리화한 것이다.³³⁾

이러한 내용은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 다음의 구절을 읊미해 볼 수 있겠다.

우리 아버님께서는 일찌기 <지원>의 사상을 내놓고 우리들을 애국주의사상, 민족자주사상으로 교양하시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처음부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섰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한평생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여 왔습니다.… 내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참다운 애국자만이 세계혁명에 충실했던 참다운 국제주의자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³⁴⁾

여기서 김일성이 주장하고 있는 민족주의는 결국 북한의 사회주의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라는 말이 지금의 시점에서는 한계가 드러났고 심지어 소련과 동구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으로 인해 이 위기에 서 벗어 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치성으로 민족주의를 내걸었다고 진역규는 주장한다.³⁵⁾

지금까지 북한에서의 주체사상 발전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기서 해방이후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민족주체성을 강조하였으며, 이것은 남북한의 각각의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이데올로기로 기능하여온 면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무튼 남한에서 민족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이제는 민족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한국 통일을 위해서 민족주체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남북통일을 향한 민족주체성 형성을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III. 맷음말

이상에서 한국에서 19세기 이후 외세의 압력에 의해 민족적 위기를 느낀 한민족은 우리 민족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족주체성을 발전, 전개시켜왔음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분단된 상태하에서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각각의 민족은 자기 생존의 주체, 자기 운명의 주체, 자기 문화와 역사의 주체인 것이며, 민족 일반의 이 보편적 생존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한민족의 역사적 골절인 분단사를 불식하고 민족통일을 이루어 내는 주체는 한민족일 수 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한반도에서의 민족주체성의 과제는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앞으로 한민족의 번영을 가져다 줄 통일을 위해 한반도에서 민족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과제로서의 통일방안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민족사적 정통성에 기초한 통일은 물론 우리의 전통적 민족주체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족구성원의 자유, 복지, 번영, 행복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민족통일은 공산주의 체제와 이념을 위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의 체제와 이념을 위한 것도 물론 아니다. 민족통일은 다름 아닌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스러운 삶과 번영 그리고 복지와 행복을 보장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통일이 우리 민족의 자유를 박탈해 가고 빙곤을 자초하며 견디기 어려운 삶의 고통을 가져온다면 통일은 오히려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당연히 한민족의 정신 속에 깃들여 있는 자유, 번영, 복지, 행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다.

세째, 통일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룩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평화를 사랑해온 백의민족의 전통을 살리고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기할 수 있는 평화적 방법에 기초해야 하겠다. 동시에 남북통일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민족주체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민족주체성은 민족생활의 확립과 발전을 최고의 이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하여 남북한이 하나로 통칠 수 있는 화합과 통일의 이데올로기를 품고 있다. 남북한이 민족주체성을 서로 내세울 때 이념과

체제를 극복하고 전통적 민족생활로 복귀하려는 구심적 접근의 충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

- 1) 서중석, 앞의 글, 308쪽.
- 2) Michael Robinson; 'National Identity and the Thought of Sin Ch'ae-ho -Sadaejuui and Chuch'e in History and Politics', i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1984,5. 121-142쪽.
Helga, Picht; 'Über Tschutsche (Subjekt) und Tschutschesong (Sub-ekttivität) als sich entwickelnde philosophische Kategorien. (발전하는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주체와 주체성에 대하여), "北韓 體制의 變化; 現況과 展望",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서울, 1991, 544쪽에서 재인용.
- 3) 최홍규, '申采浩의 歷史像', '한국의 사상', 윤사순, 고의진 편, 열음사, 353-355쪽.
- 4) 박광용, '한국인의 역사의식', "한국사 특강", 서울대 출판부, 1990, 468-469쪽.
- 5) 박광용, 앞의 글, 474-475쪽.
- 6) 한영우, '한국사특강총론', '한국사특강', 앞의 책, 18쪽.
- 7) 김태길, '인간, 자아, 민족주체성', "한국인의 주체성", 앞의 책
- 8)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서울, 1991, 536쪽.
- 9) 대통령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 제 10집, 대한공문사, 1973, 1120-1쪽.
- 10) 한승조, '한국의 정치적 자주성 확립', "한국인의 주체성", 앞의 책, 28쪽.
- 11) 대통령 비서실, 박대통령 연설문집 제 5집, 1973, 심용택 "자립에의 의지".
- 12) 한승조, 앞의 글, 29쪽.
- 13) 김인걸, '해방후 민족사의 발전과 과제', "한국사특강", 앞의 책, 290- 291쪽.
- 14) Helga, Picht; 앞의 글, 543-544쪽.
- 15)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제 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평양, 1967, 560-561쪽.
- 16) <로동신문> 1966년 8월 12일자.
- 17)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영순, '남북한에서의 주체성의 특성', "Koreanische Studien; Festschrift für Prof. Dr. Sc. Ingeborg Göthel und Prof. Dr. Sc. Helga Picht aus Anlaß des 60. Geburtstages", hrsg. v. Korea-Institut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Petersburg Centre for Orientalistics, 1995, 참조바람.
- 18) Luise Rinser, "Nordkoreanisches Reisetagebuch", Fischer, Frankfurt/M, 1981, 70쪽.
- 19) 전인영, '주체사상의 형성 배경과 이론 체계', "북한의 정치", 을유 문화사, 서울, 1990, 70쪽.

- 20) Luise Rinser, 앞의 책, 70쪽.
- 21) 중국과 소련의 분쟁 자체에 관해서는 Donald S. Zagoria, <The Sino-Soviet Conflict, 1956-196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David Floyd, <Mao against-Khrushchev>, New York; Praeger, 1964; W.E. Griffith, <The Sino-Soviet Rift>, Cambridge, MIT Press, 1964 등을 참조.
- 22) 이것은 첫째, 김일성으로서는 한국과 같은 분단 국가에서 평화 공존이 라는 말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남한 정부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남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데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둘째, 스탈린 격하 운동이나 집단적 지도 체제의 개념 역시 사망한 스탈린을 모독하는 것으로서 김일성은 이를 뽁시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세째, 김일성은 전세계의 사회주의 정당이나 공산당이 모두 소련의 지도 아래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알바니아 문제, 즉 1961년의 알바니아 노동당에 관한 흐루시초프의 공개적 비난,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와 소련과의 화해 등의 문제를 부차적인 이슈로 여기고 있었다. 서대숙, ‘朝蘇紛爭과 北韓歷史’,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 을유문화사, 1989, 270-272쪽.
- 23) 서대숙, 앞의 글, 271쪽.
- 24) Helga, Picht; 앞의 글, 540쪽.
- 25) 이종석,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주체사상과 유일지도 체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140-141쪽.
- 26) 박승덕, ‘주체사상이 밝힌 세계에 대한 관심과 입장’, “근로자” 제 6호, 근로자사, 1982, 47쪽.
- 27) 김정일, 앞의 글, 15-18쪽.
- 28) Helga, Picht; ‘Korea 철학사 연구 제문제에 관한 연구’, “국제고려학회 학회지” 1. Osaka, 1994, 22쪽.
- 29) Helga, Picht; 앞의 글, 23쪽.
- 30)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2쪽.
- 31)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17-18쪽.
- 32) 북한에서의 이전의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은 다음에 잘 나타나 있다. “민족주의는 계급적 이익을 전민족적 이익으로 가장하고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중오하며 민족들 사이의 불화와 적대를 일삼는 부르조아의 사상이다.” 북한의 정치사전 430쪽 참고 바람.
- 33) 진덕규, “북한 통치이념에 있어 민족주의 원용에 대한 분석”, 통일원, 1991, 99. 104-105쪽.
- 34)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
- 35) 진덕규, 앞의 글, 105쪽.

朝鮮封建내셔널리즘의 構造와 展開

변 영호

The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Korean Feudal Nationalism

After the Western Impact, the Choson Dynasty tried unsuccessfully to modernize itself and was finally colonized by Japan. Few studies, however, have tried to investigate the reasons of this failure from the point of view of nationalism.

This paper first elucidates the structure of Korean feudal nationalism, which is yet to be fully examined, and, applying the viewpoint to a later period, explains the significance of the nineteenth-century Enlightenment Group in some detail.

While Ri Toe-Gye, who elaborated the Korean Neo-Confucianism to perfection, smothered nationalism and endorsed loyal relationship with China, another distinguished Neo-Confucianist, Ri Yulgok, swelled nationalistic repulsion toward China, which is evident in his belief in the Tangun myth, his interpretation of Kija, and his argument for reforming the nation's defenses. Yulgok, however, could not in real politics deny the existing relationship with China and his nationalism remained latent. The basic structure of Korean feudal nationalism was determined by this conflict between Sinocentrism and latent repulsion toward China.

What was needed to stir up this latent nationalism were allies to build a new international security system and a new ideology to unite the nation from within and with the allies. These conditions were met theoretically first when Catholicism was introduced and again when the Enlightenment Group was formed.

변영호 : 都留文科大学比較文化学科

1 머리 말

世界史는 現在 冷戰後라는 새로운 段階에서의 秩序摸索 段階에 이르고 있다. 冷戰時代에 있어서는 東西의 各陣營內部에서 共有하는 理念과 思想에 基礎한 一體感이 強調되어 部分的으로 나마 國民(民族) 國家의 태두리를 넘어가는 發想이 보였지만, 지금 <國民國家의 相對化><國民國家를 넘어서>등의 口號가 泛濫하고 있다. 그러나 朝鮮半島는 近代國民國家樹立에 失敗하고 植民地에 轉落했을 뿐만 아니라 植民地로부터의 解放이 二大勢力에 의한 民族分斷에 歸結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冷戰의 解消는 더 말할 나위 없이 近代民族國家의 수립조차 一級의 課題로 남아 있다. 統一된 國歌나 國旗는 더 말할 나위 없이 民族·國家·民族言語의 呼稱조차 確立안되고 있기에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조선사람, 한국사람 또는 고려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즉시 그 사람의 정치적입장이 追及되는 정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과 마찬가지로 근대국가수립에 한번은 실패하여 분단국가상태를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더욱 눈에 띄는 현상이다. 이 문제는 일본이라는 국민 국가에로의 級 선적인 溶解를 거부하고 있는 재일동포를 비롯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민족에 分열을 가져오고 민족아이덴티티의 확립이나 거주 국내에서의 地位上昇에 난제로 되어가고 있다. 조선민족에 있어서 통일된 근대민족국가수립은 중대한 과제로 되어가고 있다. 오늘에 있어서 근대민족국가수립의 노력과 그 유산과정을 돌아켜보는 것은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종내 경제발전단계나 외압이 주된 논쟁점으로 되어 왔지만 비교적 연구축적이 옅은 민족역량의 결집을 도모하려 하는 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로부터 보면 적어도 17세기후반이후에 宗族결합이 강화되어가는 것¹⁾과 冊封體制와 華夷秩序의 두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宗族은 他宗族成員에 대하여 베타적인 擬制血緣集團이며 내셔널리즘이나 국민형성에 있어서 強固한 阻止요인이다. 1908년에 만명의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과 맞서려고 했던 十三道義兵總大將인 李麟榮이 아버지의 計報를 받고 <不孝는 不忠이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喪 때문에 돌연히 귀향한후로 다시 재기하는 일이 없었다는 유명한 에피소드는 종내 조선유교가 忠이 아니라 孝에 기울어져 있었다는 論據로서 언급되는 것이 보통이다²⁾. 그러나 孝=家族은 동일종족내에서는 개방된 존재로서 他宗族이나 나아가서는 국가에 대해서는 폐쇄되어 있었기에

이 에피소드는 宗族의 폐쇄성이 國民형성에 있어서 強固한 阻止요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것이다. 이 이른바 宗族主義로부터 國民主義에로의 비약이라는 과제는 일찍 爾吉濬 (1856~1914년) 3)등에 의해 제기되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민족이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⁴⁾. 여기에서 필자는 능력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문제로 되고 있는 책봉체제와 華夷질서에 한해서만 검토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通說적 이해에서는 조선주자학은 책봉체제를 긍정하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임을 인정한 위에서 조선을 중국의 다음 위치에 놓는 (小) 中華主義이며 他方 17세기 후반으로부터 등장하는 실학파는 책봉체제의 부정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중화」로부터 種族적, 지리적요소를 없애고 문화적개념에 純化 시켜가는 것으로부터 중국중심의 세계관을 부정하고 조선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놓으려고 한 反중화주의=민족주의 (志向) 적 사상이었다고 한다. 가히 朱子學派는 中華主義者, 실학파는 조선주의자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⁵⁾. 그러나 조선주자학은 主理派의 李退溪 (名은 淩, 字는 景浩, 1501~1570년) 와 主氣派의 李栗谷 (名은 珪, 字는 叔獻, 1536~1584년)에 의하여 완성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 제기되는바와 같이 양자를 공히 中화주의자로서 실학파와의 사이에서 큰 단절을 보려고 하는 이해에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⁶⁾. 本稿에서는 첫째로 율곡에게서는 反中華主義=朝鮮主義가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명확히 나타나고 있으며 朝鮮封建내셔널리즘의 기본구조는 중화주의와 잠재화한 反중화주의=조선주의와의 대립이며, 둘째로 율곡적잠재내셔널리즘을 顯在化시키는 조건을 검토함으로써 율곡과 실학파와의 연속성을 밝히면서 실학파의 전개에 약간의 素描를 하고자 한다. 우선 주자학자의 사상의 基軸인 理氣論부터 검토를 시작하겠지만 그에 앞서 조선의 주자학자들이 依據한 중국주자학의 理氣論을 들이켜 보고자 한다.

2 主理派 와 主氣派

중국주자학성립의 기초에는 宋代에 이르러 겨우 형성되어오던 봉건사회가 있었지만 사회의 基底에 있는 本來的 봉건농민인 佃戶=小作農은 경영주체로서는 아직 미숙했다. 하기에 고대사상인 佛教=禪은 송대에서는 상당히 隆盛하고 있었으며 朱子는 불교와의 對決를 겪으면서 자기사상형성을 이루었다. 불교에서는 万殊의 차별이 있는 개별적인 것은 虛妄한 心念의

반영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虛妄한 假相으로서 非存在인 것이었다. 주자학의 <氣>는 그와는 달리 현실의 개개의 인간이나 자연에 내재하면서 그 존재를 궁정하는 원인이었다. 그로서 개개의 인간은 氣를 받고 개별적인 존재로 되지만 이 氣에는 昏明清濁의 差別이 있어 위로는 絶對的인 善의 聖人으로부터 아래는 惡=暗愚까지를 낳는 것이다. 이로서 氣는 불교적인 現世否定을 극복하기 위해서 万殊의 차별이 있는 인간의 존재를 궁정하는 한편 倫理的으로 부정되어야만 할 惡=暗愚도 산출해낸다. 이 氣의 궁정되는 것인가 부정되는 것인가 하는 曖昧한 성격이 氣보다 根源의 <理>라는 篩疋를 도입시킨다. 理는 모든 인간에 내재하면서 그것에 동등함을 주는것이고 그 내용은 君臣間의 分을 가장 중심으로 하는 五倫=上下의分이다. 그로서 理가 氣보다 근원적인 범주로 된 결과 惡=暗愚는 聖人으로 復歸할수 있는 理論的保障을 얻을수 있었고 주자는 봉건적인 상하의 틀 속에서의 주체성 궁정을 판철할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理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실은 봉건적인 지배를弁證하는 上下의 秩序=法이었기에 주자학이 아무리 理가 인간본래의 것이라고 역설해도 그것은 논리적 일관성 (=原理性) 을 가지지 못하고 또 인간자신에게 본래 있는 것 (=內在性) 도 아니다. 이 理에는 논리를 초월한 (=實體性), 강요 (=超越性) 가 나타나지 않을수 없지만 주자의 경우는 그 선구자들에 비해서도 理의 氣에 대한 根源性, 및 理의 超越的 實體性이 결정적으로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아직 천지가 存在하기前에 오직 理만이 있었다」(朱子語類卷1), 「이것은 아직 이 사물(事) 이 있기전에 이 사물의 理가 있는 것을 말한다. 아직 君臣·父子가 있기전에 이미 君臣·父子의 理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아직 事物이 없을 때에 이미 이 理가 갖추어져 있다.」(『近思錄』卷1, 程氏「沖漠하고 朕이 없다. 萬象森然이 이미 갖추어진다.」에의 朱子의注), 「이른바 理와 氣는 반드시 二物이다.」(朱子文集卷46 「答劉叔文」). 그것은 봉건사상으로서의 理氣論의 완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佃戶의 經營주체로서의 미숙함에 기초한 불교의 융성함이 주자에게 과도한 중압을 주어 그로 하여금 불교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판철하게끔 理의 超越的 實體性을 濃化시켰다는 특수한 중국적 사정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것은 朱子의 선구자들의 대부분이 결핏하면 극도로 정밀한 불교이론에 다시 빠지는 일들이 많았던 것을 상기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수 있을 것이다⁷⁾.

또한 주자에게 있어서 理의 超越的 實體性에 대한 강조는 대외 문제에도 큰 원인을 두고 있다. 西歐封建社會에 있어서는 個個의 무장한 봉건적토지

朝鮮封建내셔널리즘의 構造와 展開

소유자들=領主가 자기의 군사적 계층서열구조로서의 封建家臣團=騎士團을 두고 직접적인 생산자인 농노를 지배하고 또 그 곳에서는 소규모의 分權的權力·봉건왕국이 상당수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봉건사회형성시기에 수시로 북쪽 유목민의 南侵을 받았기에 封建地主=士大夫들은 통일권력에로의 집결을 시급한 과제로 삼지 않을수 없었기에 자기의 軍事的階層序列構造로서의 봉건가신단=騎士團을 만들어내지 못한채 통일권력에 집결되었다. 봉건지주들은 관료로 됨으로써 대외적 방위와 자기전호지배의 관철을 이른바 기생적인 형태로 통일권력에 요청하고 통일권력은 관료=사대부들의 지지를 받고 처음으로 그 절대성을 주장할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주자학의 理氣論에 있어서 氣는 萬物의 形體의 차별을 낳게 하는 특수적, 개별적 범주임에 비하여 理는 萬物을同一시키는 氣보다도 근원적인 보편적, 전체적 범주이었다. 주자학에 있어서의 理의 초월적 실체성의保持는 지방=분권권력에 대한 전체=통일권력의 절대성의 주장이기도 했다. 이것은 君臣間의 倫理, 君主의 절대성의 주장으로서도 표현되고 있다.

그럼 주자가 理의 근원성, 초월적 실체성에 고집한 배경에는 불교비판을 관철하는것 또 의적의 위협에 대하여 봉건적토지소유자들의 통일권력에로의 결집이 지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 이리하여 일단 주자학이 성립되자 이후 장기간에 걸쳐서 주자의 理氣論이 사상계의 오서독시(正統)로 되었지만 주자의 理氣論, 특히 理의 초월적 실체성에 대하여 明代중기이후에는 비판적 조류가 형성되어온다. 명대 중기에는 농노의 경영주체로서의 미숙함이 극복되어가고 그로써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후퇴되었다. 또 농노의 성숙에 따라서 지방도 그 자립성을 크게 높여가고 있었다. 黃宗羲가 <국가에 일단 긴급한 사태가 일어날 때는 종내는 천하의 모든 財物을 동원해서도 그 一地方의 경비로도 불충분했지만 이제부터는 一地方의 재물에 의하여 지방이 자기힘으로 그 수요에 충당할수 있다.> (『明夷待訪錄』方鎮)라고 지적한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농노의 성숙, 즉 下인 人間의 주체성의 확대와 그에 따른 지방의 자립성의 증대가 개별적 범주인 氣를 확대시키고 理의 근원성, 초월적 실체성을 希釋化시키려고 한 사상조류를 낳았으리라 본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理 그 자체가 부정되는 일은 없었고 의연히 봉건적인 上下의 分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理가 氣의 主宰者로 되고 있다. 氣가 理보다 중시된 것은 전혀 아니지만 이하에서는 일단 편의적으로 주자적인 理氣論을 主理主義, 명대중기 이후의 사상조류를 主氣主義라고 구별하고자 한다.

조선에서 주자학은 13세기 말 고려조 후기에 수용됨에 따라 지방의 중소지 주총에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하여 조선 왕조의 성립과 더불어 教學의 자리를 획득하기에 이른다. 중국에서는 宋代에 主理主義가 성립되었고 明代 중기에 이르러 主氣主義가 성립되었지만 조선에서는 이 퇴계가 등장하자마자 율곡으로 대표되는 主氣主義가 그에 대치되어 이후 조선 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양학파가 대립을 계속하면서 병존하는 상태가 계속된다⁸⁾. 퇴계는 朱子와 마찬가지로 理 (=太極) 의 氣 (=陰陽·兩儀) 에 대한 根源性, 超越性을 인정한다. 先述한 朱子의 『近思錄』에 대한 注「이것은 아직 이 사물(事)이 있기 전에 이 사물의 理가 있는 것을 말한다. 아직 君臣, 父子가 있기 전에 이미 君臣, 父子의 理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직 事物이 없을 때에 이미 이 理가 갖추어지고 있다.」를 인용하여 동의하고 있다.

「滉(退溪) 按『沖漠無朕, 而萬象森然已具』向來愚見, 亦與明彥同, 及得來示, 因檢出朱先生說六七條, 子細參詳, 而會其微旨, 乃知前見之差.」(『退溪全書』二, 3쪽. 卷二十五, 六張 「鄭子中與奇明彥, 論學有不合, 以書來問, 考訂前言, 以答如左.」). 또 理의 實體性도 인정하고 있다. 「今按孔子·周子明言『陰陽是太極所生』, 若曰理氣本一物, 則太極卽是兩儀, 安有能生者乎. 曰眞曰精, 以其二物故, 曰妙合而凝, 如其一物, 寧有妙合而凝者乎.」(『退溪全書』二, 331쪽. 卷四十一, 二十一張右 「非理氣爲一物辯證」).

그에 대하여 李栗谷은 明確히 理 (=太極) 가 氣 (=陰陽·兩儀) 에 先行하는 超越的 實體인 것을 부정한다. 「聖賢之說, 果有未盡處, 以但言『太極生兩儀』, 而不言陰陽本有, 非有始生之時故也. 是故緣文生解者, 乃曰『氣之未生也, 只有理而已』. 此固一病也.」(『栗谷全書』一, 184쪽. 卷九, 十八張 左~十九張右 「答朴和叔」). 그러나 理가 氣에 先行하는 것을 부정하는 栗谷에게 있어서도 理는 氣에 대하여 主宰者이었다. 「夫理者, 氣之主宰也, 氣者理之所乘也, 非理則氣無所根柢, 非氣則理無所依著.」(『栗谷全書』一, 197쪽. 卷十, 二張右 「答成浩原」). 그럼 퇴계적 主理主義와 율곡적 主氣主義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던가.

3 李退溪의 主理主義

李退溪가 理의 초월적, 실체적 성격에 고집해온 배후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을 것인가. 첫 번째로 불교와의 대결을 검토해 보자. 조선사에 있어서

불교는 멀리 신라, 백제, 고구려의 3국정립시대에 수용되어 그후 사상계의 首座를 점해왔지만 고려후기로부터 승려나 불교교단의 부패가 가심해짐에 따라 불교비판의 사회적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거기에 불교와 고려왕조를 비판하기 위해 주자학이 도입되었다. 李成桂의 보좌역이었던 鄭道傳의 『佛氏雜弁』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⁹⁾. 중국의 주자의 선구자들이 불교理論에 자주 逆轉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봉건사상의 성립은 외래사상인 주자학의 도입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주자의 투철한 불교비판을 빌려오게 된 것이다. 조선시기에는 불교에 대한 국가통제가 철저화되어 불교는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거의 상실하고 山岳불교로서만 존속할수 밖에 없었고 승려들은 賤人으로 기시 받았다. 退溪에 의하면 불교의 영향력은 「餘波遺燼, 尚有存者」 (『退溪全書』一, 188쪽上段, 卷六, 四十九張) 정도의 것으로서 退溪와 주자가 느끼고 있었던 불교로부터의 중압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볼수있다.

退溪를 理=전체의 초월성에 고집하도록 한 원인은 국제환경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이 점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조선사에 있어서의 봉건사회형성과정, 조선왕조성립과정을 대외관계에 주의를 두면서 살펴보기로 하자. 李栗谷의 생산과정파악을 통해서 16세기의 직접생산자인 소작농은 촌락공동체의 補完을 필요로 하는 자립적인 봉전농민으로서 수중에 있는 약간의 잉여조차 黽혀진다¹⁰⁾. 조선사에 있어서는 불교의 부패가 가심해지는 고려후기에 고대사회로부터 봉건사회에로의 이행이 사회의 최심부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¹¹⁾ 1196년의 武臣政權성립은 고대로부터 봉건에로의 이행에 있어서 획기적인 象徵的事件이었다. 마치도 일본에서 武士團이 繩內중심의 고대정권을 무너뜨리고 鎌倉幕府를 성립시킨 과정과 類似하다. 그러나 봉건사회형성과정의 유사함은 여기까지이다. 일본에서 그후 분권적인 領主制의 봉건사회가 형성되어감에 비해 조선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집권권력의 강화에로 나아간다. 그 결정적 계기는 외압, 특히 蒙古의 侵寇이었다¹²⁾. 고려와 조선왕조의 교대기 중국대륙에서는 元明朝가交替되고 있었고 동아세아는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국제환경에 놓여 있었다. 조선왕조는 明을 중심으로 한 책봉체제속에 편입되는 길을 선택하여 中國皇帝와 朝鮮國王은 名分上에서는 군신관계로 되었지만 중국측으로 보면 이것은 조선과의 관계를 안정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을 경과해서 중국에 침입해오는 적에 대해 조선이 방패로 되는데 비해 조선측으로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중국의 힘을 빌릴수 있음을 의미한다. 16세기 말의 일본군침입시의 明

의 원군파견은 이 책봉체제의 기능의 전형적인 실례로 된다. 이 책봉체제의 내용은 불평등하고 윤리적색채가 농후하지만 <동맹관계>에 가까운 内實을 갖추고 있음으로 하여 국제적인 위협을 받아오던 조선왕조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다. 불안정한 국제환경에 처해 있던 조선왕조성립전후에는 조선역사상 일찍 없었던 강력한 중앙집권권력이 추구되며 軍事制度와 國防이 充實하고 있었지만 15세기후반기로부터 급속히 집권적기강이 약화되어가기 시작했다. 退溪 시대의 16세기는 국방이 거의 해체되어 국내에서는 권력투쟁이 치열해지고 있었다. 권력을 장악하고 무제약적인 私利追求에 汲汲한 결과 중앙집권권력 그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소위 勵舊派와 어떤 방법을 대서라도 중앙집권적인 기강을 회복하려는 소위 士林派가 대립되고 있었다¹³⁾. 물론 사림파속에는 중앙집권적기강의 유지를 주장할지라도 그 度合에는 다양한 것이 포함돼 있었으며 그중 退溪는 사림파를 대표하는 인물의 한 사람이었다.

退溪의 현실정치에 관한 사료는 상당히 적지만 그 국한된것들 속에서도 满洲(北虜)과 日本(島夷·南倭)에 대한 강한 위기감이 눈에 띄다. 예컨대 다음의 45세때와 69세때의 빌언이 좋은 증거로 된다.

「當今天變現於上，人事關於下，大禍重疊，國運艱否，根本尷隉，邊圉虛疎，兵耗糧竭，民怨神怒，此吾東方何等時耶。夫太白晝見……今欲修人事以應天變，而絕島夷來朝之望，是可謂無自我致之道乎……且國家已與北虜構釁，安知彼中不有諸酋之桀驁，切齒報復而謀犯邊守者乎。設使南北二虜一時俱發，則搥東而西檄，衛腹而背潰，未識國家將何所恃而能辨此乎.」(『退溪全書』一, 168~169쪽. 卷六, 十張左~十一張右)

「今世雖似治平，然南北有釁，生民困悴，府庫空虛，將至於國非其國，猝有事變，則不無土崩瓦解之勢，不可謂無可憂之防也.」(『退溪全書』四, 147쪽上段, 卷七, 四十九張左)

이 남북으로의 외압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일권력형태의 유지, 강화가 지상명제로 된다. 그러나 퇴계당시의 현실로서는 봉건적토지소유자들은 사적욕망만 확대시키고 국가적파제에 대하여서는 둔감한 반응을 할 뿐이었고 그 결과 통일권력의 내실은 놀랠만한 속도로 形骸化가 진행되어 퇴계의 의견상주는 태평기분이 넘쳐 있는 권리자의 귀에 이르지 못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퇴계는 明을 <大明><上國>이라 부르고 천하의 지배자인 것을 인정함으로써 책봉관계를 공정하고 있다.

「『天無二日，民無二王』，春秋之大一統者，乃天地之常經，古今之統義

也。大明爲天下之宗主，海隅日出，罔不臣服。」（『退溪全書』一，260쪽上段，卷八，五十五張）

그런데 퇴계는 그 생애에 있어서 군제개혁, 민력양성을 위한 제도개혁등의 정치적발언을 거의 하지 않고 개혁실시에서 조지요인이 될 훈구파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도 穩健의 태도를 취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가 비정치적이었거나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님을 이하의 단편적인 사료에서도 볼수 있다. 그는 국가재정의 破綻과 재정재건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재정재건을 위해서는 제도개혁, 군제개혁이 융당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鄉里에 퇴거하여 강학활동에 전념하고 있었을 때도 언제나 중앙정계의 동향에 귀를 기울이고一喜一憂하고 있었다.

「先生 啓曰『古云「國無三年之蓄，國非其國」。今一歲凶歉，而公私窘匱如此，今年若又失農，則救荒之事，不能成形矣，當時經費，撙節蓄儲，然後雖有不虞之災，而無窘急之患也。』」（『退溪全書』四，117쪽下段，卷六，十張左）

「雖退間年久，憂國之念，老而益篤，往往與學者，言及國事，輒噓唏感憤。……愛君憂國之心，不以進退而有間，聞一政令之善，喜不能寐，或舉措失宜，憂形於色，常以輔養君德扶護士林爲先務。」（『退溪全書』四，208쪽上段，卷三，十九張左）

책봉체제에 들어간 조선은 실질적으로는 독립국가였지만 형식적으로는 중국령토의 일부분이었기에 제3국이 조선에 공격을 가할 경우에는 중국과의 전쟁에까지 확대될 것을 미리 각오하고 있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실 16세기말과 17세기초의 일본과 만주족의 조선에 대한 침략은 중국=명과의 전쟁까지를 예측한 위에서의 일이었으며 실제로 중국과의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책봉체제가 充實하게 기능을 발휘하는 한 단일의 사태가 없다고는 단언 못하지만 아마 조선에 본격적으로 침략해오는 외적은 없을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기에 조선의 지배층내부에서의 내외의 정세에 대한 위기감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없는 시점에서의 성급한 개혁실시는 오히려 유혈적인 권력투쟁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퇴계는 군신간의 의리를 포함한 주자학의 五倫을 양반들의 마음속에 내면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강학에 정력을 몰부었지만 그 노력이 성과를 달성하였다면 중앙집권적기강의 강화와 국내에서의 권력투쟁의 방지를 실현할수 있었을 것이다. 퇴계의 어찌면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생애, 그것은 앞에서 본 그의 남북의 외적에 대한 강한 경계심과도 모순되는것 같지만 그것은 책봉체제를 전제로 해서 처음으

로 이해할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중국(황제)의 권위가 동아세아 전체에 효과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하여 동아세아전체가 평화로워지고 조선도 평화를 누리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조선의 안전보장은 언제나 책봉체제, 즉 중국과의 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말하자면 조선은 중국이라는 우산밑에 들어가는것으로 하여 평화를 누리었지만 평화가 지속됨에 따라 그 우산의 의미를 망각해가는 그 당시의 양반들과 달리 퇴계는 국제적안정보장체제인 책봉체제와 조선의 안정보장과의 관계에 대해 투철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만약 중국에서 국력의 쇠퇴와 분열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동아세아의 독특한 국제적안정보장체제의 동요와 동아세아제국간의 질서의 불안정화가 시작되어 결과적으로 조선의 안정보장에도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퇴계의 염두에는 언제나 책봉체제 전체와 그에 대한 긴장감이 충만되어 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퇴계가 理=전체의 초월성, 절대성에 고집한 이유는 조선의 국왕권력뿐만 아니라 책봉체제전체의 안정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국의 황제권력을 절대화하기 위해서 이었다고 생각된다.

퇴계에게 있어서 중국에 대한 조선의 臣從은 사상적으로는 문화이념적인 상하의관계, 질서인 소위<小中華>사상으로서 표현되고 있다. 퇴계는 유교발생지인 중국이 중화임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 위에서 본래<東夷>인 조선도 중화로 인정시키기 위해 그 점에서만 중화와 夷狄의 차이를 種族的, 地理的요인에서가 아니라 儒敎的禮의 實現여하에서 찾으려 하였으며 이것은 또한 조선유자의 通說이라고 말해도 좋을 판념이었다¹⁴⁾.

「臣伏以人有恒言，皆曰『夷狄禽獸』，夫夷狄亦人耳，乃比於禽獸者，非固甚言之也。爲其不知禮義，無君臣上下之分，而其爲生也，蚩蚩蠹蠹，冥頑不靈，殆與禽獸無異，故取類茲稱之爾」。(『退溪全書』一, 167章上段, 卷六, 七張)

이 중화관념 위에서 殷의 紂王을 멸망시킨 武王이 殷의 三仁의 한사람이라고 전해지는 箕子를 조선에 봉하고 箕子는 八條의 教로서 조선을 통치했다고 하는 이른바 <箕子東來傳說>을 궁정하여 조선은 예로부터 <華를 사모하고 夷를 변화>시킨 유교문명이 발달한 <君子之國>·<小中華>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조선은 중국의 일부분인듯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한없이 접근된다. 그러나 조선을 <小>中華라고 하여 <大>中華인 中國과 구별하고 있다. 중화의 앞에 <「大」·><小>라는 형용사를 붙일 만큼 양자는 種族的, 地理的으로 구별되어 조선은 중국의 아래 위치에 놓여지지

않을수 없었다.

「吾東自箕子來封，九疇設教八條爲治，仁賢之化自應神明，土之得心，學明疇數，必有名世者矣，……高麗五百餘年間，世道向隆，文風漸開，士多遊學中原，經籍興行，易亂爲治，慕華變夷，詩書之澤，禮義之風，箕疇遺俗，猶可漸復，故吾東見稱爲文獻之邦君子之國，有由然矣」. (『退溪全書』四，231弩下段，卷五，四張)

「吾邦自古小中華，亦有文士多才良」. (『陶山全書』四，154弩，退溪先生全書遺輯卷一，外編二張左。)

4 李栗谷的主氣主義

退溪的主理哲學，全體主義는 중국의 皇帝權力，중화적질서와 책봉을 받은 조선의 국왕권력의 正統性，絕對性의 주장이었다. 그러면 栗谷으로 대표되는 理=全體主義에 대한 氣=個別主義의 상대적인 자기주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조선왕조에서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외압이 약화되는 15세기후기부터 급속히 중앙집권적인 기강이 약화되어 간다. 재지사족들은 중앙에 대한 독립성을 높여 중국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국가적인 공인을 받은 자기의 利益대표기관 (鄉所) 을保持하고 있었다. 조선사회에서는 물론 相對的인 의미에서이지만 통일권력에 대하여 遠心力이 강하고 내부에서는 항상 분열의 맹아가 삭트고 있었고 그 현재화가 즉 土禍, 黨爭이었다. 하여 재지사족의 상대적독립성의 기초에는 일정한 武人的측면의 존재가 있었다고 생각된다¹⁵⁾. 더구나 사족의 다음의 실력자인 鄉吏도 武的要素가 濃厚하다¹⁶⁾. 본래 領主制의 分權權力에로의 경향을 내포하는 봉건사회가 국제적인 조건등에 의하여 통일권력·국가로서 성립된 경우 수시로 통일권력에 대한 비판·懷疑가 나타날 가능성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강한 분권화경향을 내포하는 조선의 경우에는 통일권력에 일정한 제약을 부여하려는 주장이 나타나기 쉬웠을 것이다. 栗谷의 主氣主義·個別主義의 내용의 하나는 이 지역의 독립화경향·지역에로의 원심력의 강함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국제관계속에서의 윤곡적주기주의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윤곡은 남북의 외적의 침입에 강한 위기감을 갖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책봉체제를 공정하고 있다.

「今世之弊，若欲盡言，吾恐日力之不足也，……不過數年，民必魚爛而土崩矣，抑有大可憂者焉。度今民力，如垂死之人，氣息奄奄，平日支持，亦

不可保，脫有外警起於南北，則將必若疾風之埽落葉矣.」(『栗谷全書』一，326等上段，卷十五，二十六張)

「臣聞『下之事上，不以夷險而易其心，不以盛衰而廢其禮』。能行此者，惟我國家之事中朝是也。……今夫以小事大，君臣之分已定，則不度時之艱易，不揣勢之利害，務盡其誠而已.」(『栗谷全書』二，535等下段～536等上段，拾遺卷四，十一～十二張)

또 箕子가 東來하여 井田制·八條의 教에 의하여 조선을 통치한 이후의 유교문화의 傳統을 찬미한다.

「客曰『吾東方，亦有以王道治世者乎』。主人曰『文獻不足無可攷者。但想箕子之君于吾東也，井田之制·八條之教，必粹然一出於王道矣。自是厥後三國鼎峙，高麗統一，考其事業，則專以智力相勝。夫孰知道學之爲可尚耶。……箕子變夷之後，更無善治之可法，則是進無行道者矣.』」(『栗谷全書』一，317等，卷十五，八～九張)

더구나 조선을 중화·중국의 일부로 하기 위해서 중화와 夷狄의 차이를 역시 유교적禮의 실현에 두고 조선을 小中華의으로 보기도 한다.

「故苦節變爲魏晉之曠蕩，尙浮虛亡禮法，禮法既亡，與夷狄無異，故五胡亂華，中原糜爛，亂極當治，故有貞觀之治，而救弊未盡，其道猶有夷狄之風.」(『栗谷全書』一，97等上段卷五，十四張右)

「臣聞『天無二日，民無二王』，惟我東方邈在海表，雖若別爲一區，而九疇之教，禮樂之俗，不讓華夏，則終不可限以一帶之水，而自爲異域，故修貢中華。……名雖外國，而實東方一齊魯耳.」(『栗谷全書』二，535等，拾遺卷四，十張)

「余曰『浮屠是夷狄之教，不可施於中國』，僧曰『舜東夷之人也，文王西夷之人也，此亦夷狄耶.』」(『栗谷全書』一，12等上段，卷一，二十張左)

요약해서 말하면 남북의 외적의 위협을 느끼고 그에 대항하려고 중국과의 책봉관계를 긍정하고 더구나 국제질서속에서 조선을 小中華로 하여 大中華=中國의 다음에 두는 점에서 울곡은 퇴계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면 울곡적主氣主義는 국제관계속에서는 전혀 퇴계적主理主義와 변함 없는 것일까. 퇴계는 조선의 安全保障體制를 객관화시킴으로써 책봉체제를 긍정했지만 이것은 조선민족의 본능에서 보면 屈辱인 것이었다. 퇴계와 같은 透徹한 세계인식으로부터 민족주의적 본능을 억제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될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서 중국에로의 從屬과 민족적 본능과의 갈등이라는 조선과 유사한 사상사적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근세일본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근세일본에서는 德川幕府가 완전히 실권을 잡으면서 天皇家지배의 정통성을 그 핵심으로 하는 神道와 전국적종교조직으로서의 神社, 및 정치적 결집점으로서의 天皇家의 존속을 눈 앞에 두고 그에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有德한 君主의 지배를 정통으로 하는 儒教=朱子學을 官學으로 했다. 그러나 주자학은 그 대외관에 있어서 中國을, 그리고 일본주자학의 직접적 교사이었던 조선을 일본의 위에 둘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일본은 책봉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지만 사상적으로는 중국에 복종하고 있었다. 일본의 유학자=중화주의자들이 <일본>의 봉건권력의 정통성을 설명할 때 유학자자신이 일본의 신도적 전통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근세사상사는 마치 神儒一致의 사상사였다. 林羅山속에 미리 존재하였던 이 중화주의와 일본주의와의 모순은 山鹿素行에 이르러서 현재화되었다. 素行은 幕府에서 처벌을 받은 兵學者로서 德川思想史에 있어서 처음으로 武士의 職分을 <文武>로 하는 봉건적 <武>範疇를 확립시켰지만 이 武는 被지배자 뿐만 아니라 대외관계에도 향해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봉건지배의 본질인 <武>의 의식화가 素行으로 하여금 민족주의적인 志向을 확대시키도록 하고 있었다. 그는 유교국가인 일본·중국·조선의 三國을 거의 대등한 세계의 頂上으로 한 위에 일본을 <中國·中華>라고 부르고 조선을 下位에 두고 중국에 대해서도 일본을 위로 볼 가능성을 보였다. 그후 근세國學의 完成者인 本居宣長에 이르러서 정면으로서의 유교=중국비판이 행하여져 제자인 平田篤胤에 이르러 國學의 정치화가 시작된다. 일본은 일본주의가 점차적으로 현재화하여 가던 시점에서 서양의 충격에 부닥쳐 권위·상징에 불과했던 天皇이 德川幕府를 대신하여 급속히 민족적 구심력을 가진 정치주체로서 부각되어왔다. 일본은 미리 있었던 天皇制때문에 비교적 쉽게 근대적 변혁을 위한 내셔널리즘형성에 성공할수 있었다¹⁷⁾.

율곡의 민족주의적인 지향은 주로 군제개혁론과 조선의 固有信仰論 속에 표현되고 있다. 그는 퇴계와 마찬가지로 남북 외적의 위협에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었지만 퇴계가 위기감의 표명이나 기껏해야 외교전략상의 발언에 그치고 있었던 데 비하여 율곡은 해체상태에 있었던 <國>防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封事 등에서도 많은 분량으로詳細하게 논하고 있다. 그의 <國>防에 대한 강한 관심과 대담한 개혁실시의 주장은 그 생애에 일관한 것이었고 특히 1583년 (48세)에 북방의 국경지대가 女眞族의 본격적인 침입을 받았을 때 兵曹判書로서 難局에 처했었지만 그 직후에 국왕에게 올린 <十万養兵>의 주장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대외적 위기에 觸發되어 <武>를 강하게 의식화하고 <國>防에 대한 關心, 즉 민족주의적인 지향성이

강해지고 있다. 물론 이 국방논은 중국에 대하여 주장된 것이 아니지만 중국과 다른 정치적 단위로서의 조선의 개별성이 보다 강하게 의식화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십만양병설에 대해서 퇴계문인인 柳成龍은 <사건이 없는데 兵을 양성하는 것은 禍를 양성하는 것이다>라고 반대하였고 기타사람들도 <율곡의 주장은 지나친 근심사>라고 보았기에 실현되지 못하였다.

「(栗谷曰)『國勢之不振極矣。不出十年，當有土崩之禍，預養十萬兵，都城二萬，各道一萬，復戶練才使之分六朔，遞守都城，而聞變則合十萬把守，以爲緩急之備，否則一朝變起，不免驅市民，而戰大事去矣』。柳公成龍以爲不可曰『無事而養兵，是養禍也』。筵臣皆以先生言爲過慮，遂不行。先生退謂柳公曰『俗儒固不達時宜，而公亦有是言耶』。仍愀然久之，壬辰亂作。柳公於朝堂歎曰『李文成眞聖人也』。」(『栗谷全書』二, 322쪽, 卷三十四, 三十二張右)

조선시대前期의 軍制는 兵農一致體制로서 주로 자작농이 그 병역부담자이었지만 이 시기는 대토지소유가 확대됨에 따라서 급속히 자작농층이 몰락되어 군제는 해체상태로 나아갔다. 십만양병과 군제의 근본적 재건을 위해서는 지주층의 憨意·토지소유의 확대요구를 강하게 억제하고 자작농층의 몰락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율곡은 士林派優位가 실현된 정계에서 사리추구에 급급한 훈구파를 철저히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훈구파에 의해서 회생된 사림파인사의 명예회복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훈구파가 군제·내정 전반의 개혁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이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율곡의 십만양병의 주장이 간단하게 소외당한 것을 보면 율곡의 주장은 사림파속에서도 상당히 고립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진다. 개혁실시를 위해서는 국왕이나 지주층 속에서 보다 강한 대외적 위기의식의 공유가 필수의 전제로 되지만 사림파도 그 다수가 책봉체제에 의존·안주하고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율곡이 책봉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에 대하여 강렬한 위기의식을 안고 있었던 것은 책봉체제의 안전보장기능·유효성에 대한 회의심과 책봉체제에 대한 의존심에서 脫却·獨立하려는 지향성이 서로 혼합되어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고유신앙, 開國始祖라 하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로 『三國遺事』(13세기말 승료一然의私撰)에 기록된 고조선의 檀君神話이다¹⁸⁾. 그에 의하면 단군조선의 개국년대는 箕子朝鮮보다도 약 千년 더 거슬러 올라가 중국의 전설적 성인인 堯와 동시대에 존재한 것으로 되어 조선은 중국의 天子에게서 책봉을 받은 나라가 아니라 독자의 天에서 내려온 天孫이 연

나라라고 되어 있다. 현재는 남북조선전체가 민족의 상징으로서 단군에게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단군신화에 관한 문서기록의 殘存상황은 극히 나쁘고 『三國遺事』에서는 割註를 합쳐도 겨우 440字에 불과하다. 단군에게 집착하는 많은 학자들의 허다한 復元作業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고유의 신앙·문화내용은 거의 알아 볼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 『三國遺事』 이외의 대표적 민족고전으로서는 官撰史書의 『三國史記』(1145년 金富軾編纂) 가 있지만 거기서는 조선전체의 개국시조의 기록은 찾아볼수 없다. 이 두가지 외에도 많은 민족고전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書名만 判明될 정도이고 일정한 분량이 있는 기록으로서는 12세기이후의 고전만이 오늘에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단군에 대한 신앙은 고려이전부터 존재했지만 고려중기의 元에 대한 저항시기에 개국시조로서의 인식이 高揚·普遍化해가고 조선왕조에 이르러서는 <朝鮮始祖檀君>으로서 國家祭祀의 대상이 되었다. 15세기의 조선왕조에서는 유래가 없었을만큼 단군승배가 고양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주지하는바와 같이 주자학으로 건국되어 箕子 또한 <數化와 禮義의 主>로서 국가제사의 대상으로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人物神, 自然神도 국가제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다. 국가제사에서 뿐만 아니라 단군을 숭배하는 개인들에게서도 箕子信仰 등이 대립이 자각되지 못하고 동거하고 있었다. 단군전설은 그 문서사료의 잔존상황의 나쁨으로 인해 그 문화내용을 거의 엿볼수 없다. 그러기에 조선시대에 있어서 단군승배자가 현세에서의 질서나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면 체계적인 문화내용을 가진 유교를 상징하는 <數化와 禮義의 主>의 기자전설 등도 이야기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주자학이 조선왕조의 國敎가 된 이유는 물론 주자학이 완성된 봉건사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선에 있어서의 고유 신앙기록의 잔존상황의 나쁨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 민족고전으로서 상당한 분량이 있는 『古事記』『日本書紀』가 남아 있고 더구나 이 고전에 입각한 神道와 그에 입각한 神社組織, 및 天皇制라는 정치적 결집점이 끊임 없이 존속했지만 조선의 경우는 고유신앙의 文字記錄은 거의 남지 않았고 종교조직도 天皇制와 같은 정치적 결집점도 없다. 조선내셔널리즘을 전개하는 土臺를 찾아 볼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중국과 바다를 사이 두고 있는 일본과 육지로 인접되어 있는 조선의 地政學의 조건의 차이가 단적으로 나타남에서 일까. 하지만 단군을 강하게 나타냄으로써 중국의 臣從國이 아닌 별개의 민족임을 주장할수 있고 그 방법이 가장 강력한 조선내셔널리즘의 주장일 것이다.

여직껏 주목을 받지 않고 있지만 율곡에게는 단군의 역사적존재를 긍정하는 데가 있다.

「若稽古昔，上自檀君，下至王氏，治亂相因，不可枚舉.」(『栗谷全書』二, 578쪽下段, 拾遺卷六, 三十二張右) 19)

「吾東方雖居海外，實與中國相盛衰，檀君以來有君有臣，而能治而教之者，皆可指言之與.」(『栗谷全書』一, 302쪽下段, 卷十四, 四十四張左)

이 사료는 과거시험의 答案이나 出題文이고 서한문과 같은 사적문서가 아니지만 국왕에게 올린 공식문서도 아니고 말하자면 準公式文書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다. 공식문서에서는 기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눈에 띄지 않는 데에서는 때때로 내셔널리즘이 분출하고 있다고 하면 좋을까. 나머지는 주자학·유교의 틀속에서 내셔널리즘을 표현하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율곡이 국왕에게 올린 공식문서에서는 기자조선만 언급하고 있으며 더구나 箕子東來이후의 사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箕子實記』를 편찬하고 (45세) 이것을 중국사신에게 드리고 있다 (47세). 기자조선에 대하여서는 15세기의 世宗代이후 기자가 武王에 의하여 조선에 봉해졌지만 臣下의 禮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석되기 시작하며 윤곡은 『箕子實記』에서 箕子不臣說을 주장하고 있다. 이 수수께끼 많은 箕子에 대하여 역사학회에서는 그 東來를 부정하고 고조선내부에서의 권력교대 이었다든가 기자족은 조선족의 일파이었다라는 여러가지 학설이 제출되고 있다²⁰⁾. 그러나 기자조선의 내실에 대하여 위에서처럼 해석한다 해도 조선이 중국의 지위에 한없이 접근되지만 무왕에 의하여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다는 형식을 인정하는 한 어디까지나 중국을 정점으로 한 국제질서속에서 중국의 朝貢國인 것을 부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율곡적主氣主義는 箕子해석에 대응한 것이다.

율곡적인 主氣主義, 즉 전체주의에 대한 상대적인 개별주의의 강조는 책봉체제속에서의 억제된 조선의 독자성의 주장이지만 민족주의적인 지향성은 때때로 눈에 띄지 않는 데에서 명확히 표면화되고 있다. 율곡의 상대적인 개별주의의 주장은 자립성이 높은 개별지주의 시점에서 조선국왕권력의 초월성, 절대성에 일정한 제약을 부여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중국중심의 책봉체제속에서 朝貢國의 위치에 놓여진 조선의 자기주장이다. 그러나 그 자기주장은 아직 일정한 懷疑·批判에 불과하고 조선국왕, 중국황제의 권위의 부정에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아직 朝鮮내셔널리즘은 潛在化되고 있다.

5 展望

퇴계적主理主義에 대치된 潛在的內셔널리즘인 율곡적主氣主義는 이후 실학파에 의하여 확대, 계승되어간다. 마지막으로 이 잠재적조선내셔널리즘은 어떤 조건에서 顯在化될수 있는가를 검토하면서 조선시대후기에 있어서의 내셔널리즘의 전개에 약간의 素描를 해보자.

무엇보다 먼저 조선의 국제적안전보장체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책봉체제의 유지는 효과적인 안전보장체제이지만 조선민족의 민족주의적인 본능으로서는 쿨육적인 것이다. 반대로 책봉체제에서 離脫할 경우에는 민족주의적인 본능은 만족할수 있지만 남북의 외적은 중국이라는 방패를 상실한 조선에 대하여 침략의 충동을 일으킬 것이고 무엇보다도 최대의 외압인 중국의 무력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잠재화된 내셔널리즘을 顯在化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정치의 力學으로부터 중국의 침략에 대항할수 있는 새로운 동맹국의 출현이 꼭 필요된다. 이것을 조선내부의 反朝鮮王朝, 反中國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비추어 보면 어떨까. 지역에로의 원심력이 강한 조선국내에서는 통일권력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기 쉽지만 反權力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권력에로의 비판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정치적결집과 구심력을 가질수 있는 이념, 사상이 필요된다. 그러나 조선의 권력은 중국의 책봉을 받고 있기에 내부의 적에 직면하여 자기힘만으로는 대응할수 없을만큼 궁지에 빠질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중국에 개입·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예를 들면 壬午軍亂時 (1882년) 의 閔氏政權이 그러했다. 물론 중국측이 개입해오는가는 조선에 탄생할 새정권이 중국의 안전에 있어서 위협으로 되는가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지만 조선내에서의 反權力운동의 추진자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간섭, 및 개입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응을 미리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반중국인 정권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도 예측되는 중국의 군사개입에 대항할 수 있는 새동맹국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표면에 나타내는 것은 곤난할 것이다.

또 국내적으로는 조선왕조의 정통교학인 유교보다도 강한 민족적 구심력을 가지고 反중국과 새동맹국과의 연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문화이념, 보편적인 사상이 필요하며 이 점도 극히 중요하다²¹⁾. 북방의 유목민족 등은 동맹국으로 될수 없다. 그 좋은 예가 明清交代이다. 清=女眞은 部族의 통일에 성공하여 17세기초에 급속히 군사력을 강대화시켜 중국침공에 앞서

조선에 위압을 보여 주는 것으로 두번에 걸친 군사공격을 가해왔다. 유교와 그에 기초한 明과의 책봉, 동맹보다도 女眞과의 책봉관계는 그 난폭성, 문화적위화감, 굴욕감에서 보다 나쁜, 아니라 최악에 가까운 것이다. 명청교대기에 아직 명의 재흥이 가능하다고 생각된 시점에서는 조선에서 全黨派가 崇明, 反淸, 北伐을 외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다만 청의 중국지배가 안정되고 명의 재흥이 불가능하다는 단계에서 더구나 夷狄인 청이 중국역사상 보기 드문 有德한 王主를 배출하여 德治를 실행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또 변화가 생겼다. 원래 조선 자신이 東夷이었지만 箕子이래의 유교교화의 결과 <소>중화에까지 상승하였기에 중국어를 이해하고 덕치를 행하는 청이 중화에 상승할 가능성을 부정할수 없다. 丁茶山(1762~1836년) 이 조선이외의 夷狄도 중화에 상승할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그 논리적 귀결일 것이다²²⁾.

反中國내셔널리즘을 현재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구라파봉건사회의 사상인 카톨릭의 유입이었다. 17세기이후 북경의 제수이트회로부터 西敎=카톨릭이 西學=自然科學 등과 함께 조선에 전해지자 급속히 침투되고 유교적윤리와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부분적으로 정치권력에 의한 탄압이 시작되었지만 辛酉敎獄(1801년) 이후에는 철저한 탄압이 진행되어 카톨릭은 일시적으로 조선사의 표면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西學, 즉 天文學은 地球球體說을 전하여 유교의 天圓地方說과 충돌되었지만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연상과 사회상을 연속적으로 파악하는 주자학적 세계상을 해체시키는 계기로 되어 조선의 <봉건>권력에 있어서는 환영할수 없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지리적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관념을 부정하는 것이었기에 중국으로의 臣從에 不滿을 内攻시키고 있었던 <조선>의 봉건권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해도 좋은 것이었다. 洪大容(1731~1783년) 이 동아세아에서 처음으로 지구설을 넘어 地轉(動)說에까지 도달한 것은 아마 우연한 것이 아닐 것이다. 西學만을 수용한 유학자는 탄압의 대상으로 되지 않았다. 西敎가 다만 無父無君의 夷狄의 邪敎라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정치권력이 탄압한 것은 국내의 비판세력이 카톨릭으로 규합되고 나아가서는 프랑스나 서양제국들과 결합되는 것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카톨릭교도의 구원과 교회재건을 위하여 프랑스군함의 파견을 요청하고 있었던 黃嗣永의 帛書의 발견이 정부에 준 충격의 크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²³⁾. 반중국내셔널리즘의 또 하나의 實例가 개화파가 일으킨 甲申政變(1884년)이다. 조선시대 말기에 國難속에서 근대서양문명을 수용한 개화파가 그들의 主觀내에서는

朝鮮封建내셔널리즘의 構造와 展開

문명이념을 공유하는 일본이란 동맹국을 얻을수 있었다고 생각했기에 反清에 연속되는 쿠데타를 감행할수 있었다. 물론 일본의 배신때문에 암담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후에도 유사한 일들이 거듭된다.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기 직전부터 급속히 침투된 프로테스탄티즘은 미국을, 사회주의는 소련을 각각 배후세력으로 갖고 있었다.

〈주〉

- 1) 宮嶋博史『兩班』(中央公論社, 1995년) 第7章. 古田博司『朝鮮民族을 읽어본다』(筑摩書房, 1995년) 75~76쪽.
- 2) 趙景達「朝鮮近代의 내셔널리즘과 文明」117쪽. 『思想』No. 808, 1991년 10月號.
- 3) 楠吉濬『西遊見聞』楠吉濬全書 I, 303~304쪽. 月脚達彦「甲午改革의 近代國家構想」74쪽, 『朝鮮史研究會論文輯』33號, 1995년 10월.
- 4) 古田博司앞 책.
- 5) 朴忠錫『韓國政治思想史研究』(三英社, 1982년, 서울). 孫承喆「朝鮮後期實學思想의 對外認識」『朝鮮學報』122輯, 1987년 1월. 河宇鳳「朝鮮後期對外認識의 推移」『歷史學研究』678호, 1995년 11월. 그런데 孫承喆씨와 河宇鳳씨는 洪大容, 朴趾源 등의 北學派에 대하여 華夷觀念을 넘어가서 文化的 多元性을 인정한 近代的國際秩序觀이라고 評價하고 있다. 이 通說的理解에 대하여 山內弘一「洪大容의 華夷觀에 대하여」(『朝鮮學報』159輯, 1996년 4월)는 면밀한 사료비판을 통해서 洪大容은 전통적인 華夷觀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山內弘一「朴趾源에게 있어서의 北學과 小中華」(『上智史學』제37호, 1992년 11월)도 참조.
- 6) 金東基「朝鮮朱子學의 特質에 관한 研究 -日本·中國과의 比較思想史的試論-」(立命館大學文學部博士學位論文, 1995년 3월)는 종내의 통설을 넘어간 勞作이며, 필자와 기본적으로 견해를 같이 한다. 本稿에서는 김동기씨가 朝鮮朱子學을 日本과 中國과의 비교에 중점을 두고 전개했기에 비교적 옆은 李退溪와 李栗谷의 부분을 더욱 깊이 분석함과 동시에 그 論旨를 연장함으로써 김씨가 전개하지 않은 實學派에도 언급하고자 한다.
- 7) 守本順一郎『東洋政治思想史研究』(未來社, 1967년), 岩間一雄『中國政治思想史研究』(未來社, 1968년) 참조. 朱子의 先驅者들에게 대한 批判的檢討는 守本順一郎『徳川政治思想史研究』(未來社, 1981년) 66~69쪽, 76~81쪽, 87~90쪽.
- 8) 朴忠錫『韓國政治思想史研究』31~47쪽. 高橋亨「李朝儒學史에 있어서의 主理派主氣派의 發達」(『朝鮮支那文化의 研究』所收). 金東基앞 논문 제2장.

- 9) 金東基「三峯學의 歷史的構造」『立命館史學』1988년.
- 10) 邊英浩「李栗谷의 鄉村, 地域編成論」『朝鮮史研究會論文輯』29號. 1991년 10월.
- 11) 浜中昇『朝鮮古代의 社會와 經濟』法政大學出版局, 1986년. 宮嶋博史「朝鮮史研究 와 所有論」東京都立大學『人文學報』167호, 1984년.
- 12) 梶村秀樹『朝鮮史』講談社, 1977년, 61쪽.
- 13) 邊英浩 「士林派의 歷史的位置」『大阪經濟法科大學 아세아研究所年報』제 4 호. 1993년. 3월. 邊英浩「權力論에 있어서의 李栗谷과 朱子」『神戶大學 史學年報』제6호. 1991년 5월. 李泰鎮『韓國社會史研究』知識產業社. 1986년 4월. 서울.
- 14) 山內弘一「洪大容의 華夷觀에 대하여」『朝鮮學報』159輯, 1996년 4월.
- 15) 邊英浩 「李栗谷의 鄉村, 地域編成論」160쪽. 實學派의 李瀨과 崔漢綺 등이 武臣과 文臣을 같이 重視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兩班의 武的要素의 濃厚함을 表現하는 하나의 狀況증거로 될 것이다. 李章熙『朝鮮時代 선비研究』(博英社, 1989년, 서울) 175~180쪽, 188~194쪽.
- 16) 「地方之改革, 實改革之本, 而此甚難於中央政府之就緒者, 非有重兵鎮各地要害處, 則恐其土着小吏〔如日本封建時代之足輕者－割註〕, 群起抵抗, 如今日之東學,『俞吉濬全書 V』與福澤諭吉書, 278~279쪽. 月脚達彥앞 논문 91쪽.
- 17) 守本順一郎『日本思想史 下』新日本新書. 金東基「朝鮮朱子學의 特質에 관한 研究」제 3 장의 二.
- 18) 檀君과 箕子에 대해서는 韓永愚『朝鮮前期社會思想研究』知識產業社, 1983년, 서울, 一의 제二장.
- 19) 金東基「朝鮮朱子學의 特質에 관한 研究」124쪽에서도 引用하고 있다.
- 20) 韓永愚 앞 책, 二의 제 3 장.
- 21) 물론 儒教內部에서 反中國내셔널리즘을 나타내는 것은 不可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카톨릭이, 特定의 現世權力を 卽目的으로 他에 優越한 것으로 하지 않는 것과 달리 儒教의 경우 雜権체제와 中華주의가 장기간에 걸쳐 결합되어 왔기 때문에 卽目的으로 중국의 現世權력의 優越性을 주張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만약 유교내부에서 反中國내셔널리즘을 나타내어도 그 민족적求心力에는 限界가 따라다니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 22) 孫承喆앞 논문134~137쪽. 河宇鳳앞 논문 6쪽.
- 23) 姜在彦『西洋과 朝鮮』文藝出版社, 1994년.

* 이 논문은 원래 「近代란 무엇이었을까－ 비교정치사상사적 고찰－」(『近代とは何であったか－比較政治思想史的考察－』岩間一雄編纂, 日本岡山市, 大学教育出版社, 1997年 5月)에 일본말로 쓴 것을 국제고려학회 편집위원회와 大學教育出版社의 흐의로 번역해서 실렸다. 게재를 허가해 주신 大學教育出版社와 국제고려학회에 사의를 표한다.

김부식의 유교적 사관과 문학세계

김 예령

The View of Historiography and the Literature World of Bu-sik Kim (金富軾)

The Korean Literature is a sub-discipline of accommodation culture research which is important in various fields due to the quality of its accommodation. This dissertation aims at clarifying the quality of accommodation of the Korean literature of the Korean Dynasty by studying the view of historiography and the literature of Bu-sik Kim, a representative figure of that time.

This dissertation comprises three parts. The first part introduces the socio-historical situation and the propagation of Confucianism in which the perfection of social systems was emphasized. In the second part, the main focus is placed on not only the life and compilation of history of three kingdoms, but also on the theoretical difference between Kim's Confucianism and previous Confucianism. The third part concentrates on Kim's literature.

The Korean Dynasty (高麗王朝) is the Middle Ages of Korea. In the research of Korean Confucianism, it is not very difficult to figure out differences between the Confucianism of the previous time and it of the period of Kim. Confucianism is one of the earliest and the most popular incoming thought that has great influence on Korean literature till now, as is where the importance of this dissertation.

김부식(1075~1151년)은 고려시기의 정치가, 군사가, 외교가, 문학가 및 역사학자로서 걸출한 인물이었다. 전반 조선학가로서 걸출한 인물이였다.

김 예령 : 中央民族大學研究生

전반 조선고전문학사의 맥락을 더듬어볼 때 어느 한 특정한 시대의 사회문화적양상을 충분히 보여줄수 있는 역사적인물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닌것 같다. 함에도 김부식은 바로 그러한 대표적문화양상을 지니고있는 인물의 하나라고 보고있는것이다.

고려시기는 유교, 불교, 도교 3교가 공존하는 기초상에서 유교문화가 전례없이 흥성하고 뿌리를 굳혀온 시기로서 특징지어진다. 고려시기의 유교는 불교의 성장과 도교의 영향력의 확장과 더불어 발전해왔던것으로 전반 종교사상사 그리고 조선문학사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는것이다. 오늘 본 고에서 본의하고자 하는것은 많이 토론되어왔고 또 모두에게 익숙한 주자성리학이 아니라 주자성리학 수용이전의 고려전반기 유교의 특징이다. 대체적으로 김부식이 생활했던 시대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특히 이 시기의 유교는 그 앞시기 즉 삼국시기와 통일신라시기의 유교적전승과정을 보이면서도 또 질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양상을 보이고있다는점이 주목해야 할바이다.

조선고전문학과 유교사상배경연구견지에서 볼 때 본론문이 시도하고있는 것이 비록 배경연구의 아주 미소한 한부분을 차지하고있으나 이를 통해 유교수용자로서의 조선의 유교수용태도와 입장은 넉넉히 알아볼수 있으므로 수용문화연구에서 결코 간과할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된다는데서 일정한 의의가 주어지는것이다.

1. 유교의 수용발전과 사대주의사상의 체현

고려왕조의 전립은 조선역사가 중세사회에로의 진출을 의미하는것으로 된다. 고려태조 왕건은 918년에 고려국가를 건립하고 936년에 분렬된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때로부터 고려사회는 낡은것의 사멸과 신생사물의 생성을 위한 복잡한 투쟁과정을 겪게 되었는데 여기서 유교의 수용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갔던것이다. 자체의 내부모순과 외부모순으로 인한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유교는 조선사회가 중세국가로서의 기반을 닦는데 있어서 길잡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상 싶다.

삼국시기로부터 조선사회에 전파되어온 유교는 통일신라시기까지 자체의 지속적인 발전양상을 보여주고있었으나 고려중세사회에 진입하면서부터 중세국가의 사회기반의 정리작업적수요로 인해서 전시기보다 더 활발하고 뿌리깊게 수용발전되었다. 금방 건립된 고려국가에 비해서 당시 중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발전한 봉건국가인 당나라시기를 겪어왔던터이므로 고려가 중

국의 유교문화에 대한 수용은 어찌 보면 불가피면적인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고려의 건국이 고대 국가에 대한 완전한 부정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알리고 싶다. 전래의 문화유산의 계승발전과 함께 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위한 새것의 도입을 첨부시켰던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은 918년 창업하던 날에 여러 사람이 중국의 탕왕과 무왕을 본받아 거사하기를 원해오자 《나는 충과 의를 다하려고 하였다. …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것을 혁명이라 이르는데 나는 실상 덕이 없는 사람으로 어찌 감히 탕왕과 무왕이 하신 일을 본받을 수 있겠는가…》¹⁾고 하면서 사양하였다. 이 사실은 고려 왕조의 창업리념이 유교적 신념에 기초를 두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그만큼 고려 왕조의 리념과 제도 속에 유교적 영향이 깊고 넓게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태조의 《10훈요》에서도 유교적 통치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례를 들어 제3조에서 왕위 계승 문제는 장자 계승의 원칙과 함께 선양의 원리에 비추어 장자가 무능할 때에는 차자나 백성들이 추대하는 아들을 계승시키도록 요구했는데 이것은 종법적 정통론과 민본사상의 조화인 것이다. 제7조에서는 신하와 백성의 신뢰를 얻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간쟁을 따르고 참소를 멀리 할 것과 어진 정치를 강조하였다. 제10조에서는 임금의 경제와 성찰을 요구하면서 경전과 사서를 거울 삼도록 하고 특히 주공이 성황을 훈계한 서경 무일편(無逸篇)을 훈계의 모범으로 중요시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바는 제4조에서례악문물은 중국을 따르지만 그대로 본받을 필요가 없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중화존중의식과 함께 자주성이 엿보이고 있는 것이다.²⁾ 여기에서 이 시기의 유교 수용은 후날의 사대주의 사관과는 다른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 태조가 건국 초기의 통치 원리를 유교 리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정계》 1권과 《계백료서》 8편을 지어 정치의 규범과 리념을 천명하였던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고려 광종 시기 즉 958년에 과거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중국의 과거 제도를 본받아 진사과, 명경과 등을 설치하여 고려 사회의 학문과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광종 자신은 당나라의 오궁(吳兢)이 지은 《정관정요》를 읽으면서 유교적 통치 원리를 체득하기도 하였다. 고려 건국 초기에 중국의 유교가 고려 사회가 중세 국가로서 사회 제도의 정비화를 위한 자체의 내부적 수요에서 비롯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외에 또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다고 본다. 바로 통일 신라 시대에 당나라에 류학했던 조선류 학생이 아주 많았는데 그들은 고려 건국 후에 귀국하여 그동안 배웠던 유교 지식을 활발히 선전해갈 수 있었다. 또 그 당시 국학에서 교육 받던 유학자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조선에서의 유교 문

화의 수용과 발전은 계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고려 성종시기에 이르러서 고려사회체제는 체계 있게 정비화되는 시기를 맞게 되었는데 바로 성종조(982~997년)에 중세국가의 기반정리작업이 한단락 마무리를 지었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이 시기 중앙관제는 당의 제도를 본받아 3성(省), 6조(曹), 7시(寺)의 제도로 개혁하였고 성, 부, 대, 원, 시, 사, 관, 국(省, 部, 臺, 院, 寺, 司, 館, 局)의 제도를 갖추었으며 지방도 12목(牧)을 설치하고 다시 10도(道)로 나누어 도 아래에 주, 부, 군, 현(州, 府, 郡, 縣)을 두었다. 중앙과 지방의 행정제도를 비롯하여 병제(兵制) 및 조세(租稅)제도 등이 정비되었던 것은 통치체계가 확고하게 정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다깊이 성종은 고려시기에 유교리념을 가장 강력히 추구하여 정치와 제도속에 실현하였던 인물이였다. 그는 교서에서도 《오직 덕으로 정치를 잘할수 있고, 정치는 백성을 기르는데 있다》, 《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고, 백성은 먹는것으로 근본을 삼는다》라는 유교의 덕치사상 또는 민본사상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데제도 이 시기에 규모를 갖추었는데 성종은 989년에 태묘(太廟)를 건립하는데 몸소 백관을 거느리고 자제를 운반하였으며 990년에 서경에 수서원(修書院)을 설치하여 문헌을 수집, 보존하는 도서관을 마련하여 유학연구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였고 992년에는 태묘를 완성하고 국가감(國子監)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유교의 국가의례와 교화기구가 성종때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³⁾

고려태조로부터 성종시기까지의 유교수용과 발전은 성종이후 문종시기로부터 시작되는 김부식시대의 앞시기와 질적으로 다른 유교사관의 확립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가 생각된다. 바로 성종대에 이르러 고려사회가 중세국가로서의 기반을 기본상 닦아놓았기에 그후시기에 김부식과 같은 인물이 전과 다른 유교수용체질을 지니고 나타난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문학현상은 조만간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고 일정한 역사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것임을 감안할 때 이 점에 더욱 수긍이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 시기와 김부식의 유교사관의 구별점은 구경 무엇일가? 그것은 바로 유교수용에 있어서의 자주성의 상실여부인 것이다. 전반 사회체질을 고려해 볼 때 이 시기에는 사대주의사상이 성숙될 조건이 구비되지 못했다. 이 시기 유교의 수용은 당시 중세사회기반의 정립을 위한 자체의 수요에서 비롯된것이지 목적의식적인 모화주의라든가 사대주의사상과는 거리가 먼것이다. 태조 《10훈요》의 제4조에서 중국을 따르지만 그대로 본받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다싶이 자주성이 체현되고 있으며 또 하나의 실례로서 현종시기 즉 1020년에 최치원을 문묘에 배향하고 1022년에 설총을 문묘에 배향함

으로써 중국의 성현을 제사하는 중국문묘제도를 단순히 추종하는데서 벗어 났음을 알수 있는것이다. 조선의 선현인 설총과 최치원에 대한 배향은 조선에서의 유교발전의 전통성에 대한 확인으로 되는것이다.

현종이후 문종시기에 들어서면서 유교는 지속적인 문화적융성을 보여주었는데 그 실례로서 임금이 궁중에서 유교경전의 강의를 듣는 경면(經筵)제도나 서적의 인쇄 및 역사의 편찬 등을 들수 있다. 1116년 예종은 궁중에 청연각과 보문각을 세워 학자들에게 경전을 강의하게 하고 임금자신도 이 강의에 직접 참석하였다. 이 시기 경전과 문현을 보급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숙종때 국자감에 서적포를 두거나 인종때 즉 1129년에 서적소를 설치하여 서적을 간행하였던 사실들이였다. 1134년 인종은 《효경》과 《론의》를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들어와서 앞시기와 구별되는점의 하나로서 사학의 융성을 봄들수 있다. 비록 성종때 국자감과 12목에 학교를 설치하여 서울과 지방에 국학이 정비되고 사학도 더불어 발달하였으나 고려시기의 사학은 문종때에 이르러 최종을 비롯한 12도(徒)에 의해 비로소 융성하게 일어났던것이다. 12도의 사학은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교육기관으로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되었으며 심지어 국학이 쇠퇴하는 원인이 되기까지 하였다. 12도의 사학에서 주요한 과목의 하나로 역사를 들수 있는데 모든 현실의 사건을 평가하는 기준은 항상 역사적귀감에 의해 이루어져 왔던것이다. 예종시기에 왕은 홍판등에게 삼한 이래의 사실을 정리하여 《편년통재속록》을 편찬하도록 하였다.⁴⁾ 김부식은 1145년에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역사기록을 유교사관에 따라 명확하게 재정리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때 김부식의 유교사관은 이미 앞시기와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게 되었는데 사대주의경향을 띠고 나타났던것이다.

2. 생애와 《삼국사기》를 통해본 김부식의 유교적사관

김부식은 신라 왕손의 후예로 고려조에 들어와서도 류대의 명문세가로 군림한 귀품의 골혈(骨血)이였다.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태조 왕건에 의해서 처음으로 경주 주장으로 임명되었던 김위영이고 그의 아버지는 국자제주(國子祭酒),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등의 벼슬을 했던 김근이였다. 그의 형 부필, 부일과 동생 부의 등은 모두 등과급제하여 고관대작을 역임한 당대의 세도가들이였다. 김부식일가의 명성이 당세에 얼마나 이름떨쳤는가는 아래의 사실로서도 알수 있다. 숙종 초년까지 고려에서는 세 아들이 등과하면

그 어머니에게 포상하여 세 는(歲廩) 30석을 하사하였는데 숙종 2년에 김부식의가 등제하자 형제 4인이 모두 등제하였으므로 이미 얻은 30석에 10석을 더하는 새로운 규칙을 짓기까지 했다고 한다. 다음대의 예종은 이들 4형제를 문한시종(文翰侍從)으로 삼고 세기의 대학자들을 낳은 김부식의 어머니를 대부인(大夫人)으로 봉하였으며 관리에게 명하여 새로이 세사(歲賜)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과 김돈시는 각각 내시와 상서우승의 벼슬을 하였고 손자 김군수는 찰방사를 지냈고 병마사가 되기도 하였다. 하여 김부식 일가는 선대, 당대, 후대가 이름을 떨친 고려 오백년사상 으뜸 가는 명문으로 꽂히게 되었던 것이다.⁵⁾

그러나 달이 통글면 곧 이지리지듯이 이렇듯 위력을 떨치던 명문세도가 들에게도 불행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다. 위세를 부렸던 만큼 횡포가 늘어나 김돈중은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는 일까지 감행하였다. 문인통치의 부패상을 드러낸과 동시에 무신정변의 도래는 올것이 왔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무신정변이 일어나자 김돈중은 사천강가에서 살해되었고 동생 돈시도 피살되었으며 군수는 한남으로 류배살이를 가게 되었다. 일락천장이 된 한 명문세도가의 비참한 끝장이였다. 이 사실은 당시 김부식 일가를 위주로 한 문인통치가 얼마나 무인들의 미움을 샀겠고 또 그의 일가가 얼마나 횡포했겠는가는 사실을 반성시켜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김부식의 유교사관은 바로 이런 귀족체질에 바탕을 둔것으로서 보수적이고 협애한 정통성의 한계를 벗어날수가 없었다고 할수 있는것이다.

그의 유교적사관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있는 역사적사실로서 묘청의란에 대한 진압을 들수 있다. 묘청의란을 앞둔 당시 고려조정의 역사형세는 좀 복잡했다. 인종 4년 즉 1126년에는 고려왕실의 존폐문제가 중대한 시련에 부딪히게 되는 리자겸란이 발생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대륙방면에서 녀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송나라를 남쪽으로 몰아내여 이른바 남송이라 불리우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원래 금나라는 예종때에 윤관에 의하여 정벌당하여 고려의 속국이기도 하였는데 고구려에 병탄된 구성을 수복코자 수차에 걸쳐 침입하였다. 당시 고려조정내부는 두개 파벌로 갈라졌는데 윤관을 비롯한 일파는 계속 녀진을 압박하여 고려를 대륙으로 진출시키려고 하였고 다른 일파는 반환을 주장하였다. 결국 후자가 이겨 구성을 반환하였지만 금나라가 강대해지자 고려는 또 금나라와의 마찰속에서 위협을 받게 되었다. 당시 부패한 고려조정은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유자들이 득세하고 있었다. 이때 묘청의 서경천도사상은 바로 녀진족 금나라를 정벌함으로써 종래 그의 시달림을 받기만 했던 불안한 상태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보자는

주장의 표현이였다. 사실상 서경천도계획은 고려역사를 통하여 거의 줄곧 거론되어왔던것으로 묘청이 수백년에 걸쳐 여러차례 시도되었던 서경천도 운동을 추진한것은 고구려의 옛 땅토를 찾는 적극적인 정책의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볼수가 있는것이다. 이 주장은 사대를 버리고 칭제건원을 내걸어 자립,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부르짖었다는점에서 궁정적의의가 있는것이다. 그러나 결국 김부식일파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고 따라서 그들은 서경에서 란을 일으키게 되었던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종13년 1135년 정월에 일어난 묘청의 반란이다.

자주를 표방한 묘청의 란을 진압한것은 귀족지배체제 일원으로서의 김부식이 지방의 세력에 대한 탄압이며 보수주의, 정통주의자로서의 김부식의 현상유지론이 북방으로의 자유로운 진출의지에 대한 탄압으로 볼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의 모화적유학이 자주적사상에 대한 탄압으로 볼수가 있는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김부식의 사대를 내세우는 폐쇄적인 특권의식을 볼수 있는것이다.

김부식의 유교적사관을 가장 잘 보여주고있는 문학작품은 그의 역사산문 작품인 《삼국사기》이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71세 되던 해 즉 인종 23년 1145년에 신라, 고구려, 백제의 삼국사 50권을 고쳐쓴 역사저서이다. 그는 서문에서 《삼국사기》편찬의 의도를 이렇게 밝히고있었다. ①옛날 중국에서는 사관을 두어 각각 그 시대의 사실을 기록하였으므로 맹자도 <진나라 초나라 로나라의 사기는 모두 한가지다>라고 말한적이 있다. ② 생각하면 우리나라 삼국도 그 력년(歷年)이 장구하여 마땅히 그 사실을 책으로 지을 방책이 있어야 되겠으므로 왕의 명령으로 이 책을 편집하게 된 것이다. ③성상께서는 요, 순의 문사와 하, 우의 근면을 본받고 널리 전고(前古)의 사서를 살피었다. 그리하여 성상께서는 삼국의 역사서가 필요하다는것을 이렇게 말씀하신바 있다. ④지금 학생들이 모두 오경(五經)과 제자백가의 책과 진, 한 력대의 사서에는 정통하나 도리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 시말을 알지 못해 통탄할 일이다. ⑤더우기 신라, 고구려, 백제는 혜의로써 중국과 교통한 까닭에 후한서나 당서에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책에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자세히 실리지 않았고, 오류와 루락이 많다. ⑥이러하므로 군후의 선악, 신라의 충사, 국가의 안위, 인민의 이란 등을 잘 드러내지 못하여 뒤의 사람들에게 경계를 권할수 없게 되어있다. 이에 마땅히 인재를 얻어 한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만세에 남겨주는 교훈으로 하여 일월성신과 같이 밝히고싶다. ⑦그런데 나는 학술이 천박하여 보잘것이 없게 되었고 이 책이 비록 명산에 비장할것은 되지 못

하지만 다만 간장을 담는 작은 항아리와 같이 바라건대 부질없이 사용되지 않았으면 한다.》⁶⁾ 여기서 김부식의 사관이 대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는 중국의 사기 내지는 사서와 조선의 역사서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두지 않았으며 도리어 조선역사를 중국에 예속, 연장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역사책의 목적을 유교적리념사회의 건설을 위한 소박한 증빙사료가 되게 하는것에 만족함으로써 사실과 사관의 거리감 내지는 차이점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바는 향가를 위시한 민족문화의 고유한 모습을 삭제하고 단군신화를 비롯한 여러 건국신화가 가지는 의의를 무시하거나 약화하였으며 또 발해를 제외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역사를 존경한 나머지 조선고유의 역사문화를 삭제해버린 그의 사대주의사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수 있겠다.

물론 김부식의 사대주의사관의 형성에서 자체의 내부적원인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나 또한 당시 동방주의사관과 고려사회의 보수적인 구조와도 갈라 놓을수 없지 않을가 생각한다.

조선역사에서 처음으로 성립한 유교사관으로는 고려성종시기 최승로가 조정에 올린 5조정적평(五朝政績評)이나 시무28조(時務二十八條)를 꼽을수 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바 있지만 성종시기는 고려사회가 중세국가로서의 사회적기반을 기본상 닦아놓고 사회정비를 완성한 시기였다. 할진대 이 시기에 조선 첫 유교사관이 나타났다는 것은 궁정이 가는 사실이라 할수 있겠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유교사관은 결코 사대주의사관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모방이라 하면 그것이 곧 사대적인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피상적리해에 불과한것으로서 역사본질을 떠난것이다. 이 시기는 문학수입자 즉 유교수용자의 체질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기반과 문화생리적으로 전폭적인 문화전환이 행하여지지 못했던 시기였으므로 사대성을 거론할수가 없는 것이다. 사회전환을 위한 자체의 필수적인 발전과정에서 비롯된 유교의 수용인 것이다.

최승로가 성종의 유교리념지지자로서 고려중세국가의 사회제도의 정비화와 기반을 닦기 위한 유교의 수용은 결코 김부식의 경우와는 다른것이다. 김부식은 당시 사회의 지배세력을 장악한 문신중심의 유교정치적표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유교사관에 합치되는 용어가 삼국시기에도 리해되고 사용되었던것처럼 수식하면서 유교사관의 확립을 도모하였던바 인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최승로의 사관에 있어서는 중세사회에로의 전환적추진이 보다 중심적과제가 된것이나 김부식의 사관은 자기세력의 합리화나 유교사관자체의 확립을 목표로 하였던 것이다.

3. 김부식의 문학세계

고려시기는 조선고전문학발전사에서 민족문학의 발흥기에 처해있던 시기로서 이 시기의 문학은 이전시기의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가운데서 이 후시기인 민족문학의 본격적발전시기—리조사기를 위한 준비과정을 이루어 놓았다고 할수가 있다. 정치가, 군사가, 외교가, 역사학가인 김부식이 문학적지위를 위해 애쓰고 또 나중에는 정치상의 문학재주를 질투하여 그를 죽여버렸다는 일화가 산생되기까지는 지나친 무함이 아닌상싶으며 이는 당시 고려사회가 문학을 상당히 중요시했음도 알려주고있다.

이 시기 문학이 크게 흥성했던데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 군주가 문학을 송상했던것이다. 레를 들어 성종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원이 된자에게도 달마다 시 3편과 부 1편을 지어 바치라고 했을 정도로 문학을 장려했다. 또한 후기 문인들의 회고를 통해서도 이 점을 알수가 있다. 리인로는 『타고난 성품이 학문을 좋아하고 유학의 우아함을 존중하고 송상한』 예종이 리상적인 임금이였다고 했고⁷⁾ (睿王天性好學吉尚儒雅), 조선초기의 서거정도 『고려 광종때 비로소 과거를 설치해서 사부를 썼고, 예종은 글이 우아한것을 즐겨 날마다 문사를 모아서 창화(唱和)했으며 이어서 인종과 명종도 유학의 우아함을 송상했다』⁸⁾고 했다. (高麗光宗始設科用詞賦睿宗喜文雅日會文士唱和繼而仁明亦尚儒雅) 바로 이 시기에는 한문학은 튼튼한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둘째, 재능이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되였는데 문장과 유학공부가 재능이였으니 문학이 크게 일어나고 유학에 근거를 둔 문학사상이 나타나게 되였던것이다. 과거의 제술업과 명경업가운데서 제술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것으로서 문신귀족들이 일반적으로 송상한것은 경서가 아니라 시문이였다는 증거로 된다. 그러나 고려시기의 유교적 문학관은 세계관적기초를 분명하게 정립한것이 아니였다. 최승로는 유교를 리국의 근원으로 오늘날 힘써야 할것으로 보고 불교는 수신의 근본으로 태생의 준비로 여기고 있었는데 수신의 근본이 리국의 근본보다 더 본질적이라는것을 의식하지 못했기에 이 시기의 유교적문학관은 들통한 세계관적기초를 갖추지 못했던것임을 알수 있다.

김부식의 작품으로는 문집20권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전하는것은 없고 『동문선』에 수록되어있을뿐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동문선』 제1권에 수록된 부 ① 《중니봉부(仲尼鳳賦)》 ② 《아계부(啞鶴賦)》;

《동문선》 제4권에 수록된 오언고시 ③ 《결기궁(結綺宮)》; 《동문선》 제9권에 수록된 오언률시 ④ 《감로사차운(甘露寺次韻)》; 《동문선》 제18권에 수록된 칠언배률 ⑤ 《화라줄 리선생 기 김랑중 연(和羅倅李先生寄金郎中緣)》; 《동문선》 제19권에 수록된 10수의 칠언절구 ⑥ 《내전춘첩자(內殿春帖子)》 ⑦ 《송 명주 호심사 차 서장관운(宋明州湖心寺次書狀官韻)》 ⑧ 《안화사치재(安和寺致齋)》 ⑨ 《주성유감(酒醒有感)》 ⑩ 《문 교방기창 포곡가 유감(聞敎坊妓唱布穀歌有感)》 ⑪ 《훈수원 잡영(薰脩院雜詠)》 ⑫ 《서호 화김사관 황부(西湖和金史館黃符)》 ⑬ 《동교 별업(東郊別業)》 ⑭ 《임진 유감(臨津有感)》 ⑮ 《적도사(赤道寺)》; 《동문선》 제19권에 수록된 두수의 오언절구 ⑯ 《대흥사 문자규(大興寺聞子規)》 ⑰ 《동궁 춘첩자(東宮春帖子)》 이외 전해지고 있는 두수의 칠언률시 ⑱ 《대국유감(對菊有感)》 ⑲ 《정서군 막유감(征西軍幕有感)》 이상 도합 열아홉편이다.

이중에서 그의 유교적사학관이 가장 잘 드러나고 유교리념이 가장 짙게 나타나고 있는 작품은 오언고시 《결기궁》이다. 전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요임금 들은 낮기 세자였으나/천추에 그 덕을 남기였고/진시황성은 만리나 되었으나/두대만에 나라를 앓었네/예와 오늘의 흐름속에서 능히 그 거울이 될만하거나/수황은 어이 생각하지 못하고서/토목으로 백성의 힘 말렸던고(堯階三尺卑, 千載余其德, 秦城萬里長, 二世失其國, 古今青年史, 可以爲觀式, 隋皇何不思, 土木竭人力.)》⁹⁾ 결기궁은 진후주가 귀비들을 거느리고 놀던 삼루각의 하나이다. 진의 결기궁같은 호화로움도 수에 의해 망했으니 뒤를 잇는 수황은 그 뜻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고금력사에서의 대표적군왕의 선정과 폭정에 대한 간명한 표현으로 군왕은 덕을 쌓아야 한다는 덕치사상위주의 유교적리념을 강조하고 있다. 《중니봉부》에서는 공자를 봉황에 비유하여 공자의 업적을 노래하면서 자기 자신도 공자의 가르침을 이었다고 하였다. 《보잘것 없는 적은 선비, 저는 푸른 전을 진작 둘려받았으나, 아로 새긴 붓을 아직 꼽꾸지 못하여, 어려선 장구의 수식을 공부하고 장년엔 전모를 즐겨 풍영하니 유풍을 못내 찬양하여 기어이 봉에 불는 영광을 가지고저(小儒青氈早債, 鏤管末夢, 少年攻章句之彫篆, 壯齒好典漠而吟調, 鑽仰遺風敦敦深期於附鳳)》¹⁰⁾ 김부식은 공자의 도를 문장의 도로 생각하고 경전을 문장의 규범으로 리해하면서 문장을 통하여 유학을 계승하고자 했던 것이다. 《아계부》에서도 김부식의 유교적정치주장이 잘 나타나고 있다. 《별들이 가뭇가뭇 서쪽으로 기울어 있다. 아이놈 불러 일으켜서 닭이 죽었나 물어보았다…이제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니, 이 어찌 천리를 어김이 아닌가 (衆鼎澹其西傾, 呼童子而令起, 乃問鷄之死生……今可

鳴而反默，豈不違其天理》¹¹⁾ 여기서 별이 서쪽으로 기울어있다는 것은 서경 천도사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닐가 생각되며 또 이것을 가리켜 천리를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가 생각된다. 또 《제 구실 못하기는 매일반이니 잡아버려도 마땅하다마는 다만 옛 성인의 가르치심에 <안 죽임이 어질다> 하였으니 네가 생각해서 고마움 알면 부디 회개하여 새로워져라 (校不才之撥，雖屠之而亦宜，惟聖人之教誠，以不殺而爲仁，倘有心而知感，可悔過而自新)》¹²⁾ 옛 성인의 가르침을 명기하여 제 구실 못하는 놈을 잡아버리지 않고 회개할 것을 기다린다는 그의 표현은 묘청의 란을 평정함에 있어서 정치군사적으로 나타나기까지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서경천도일파의 항복을 기다리면서 1년 남짓이 전쟁을 끈 그의 군사적 주장도 바로 이 유교리념에 텁각한 것이 아닐가 생각된다.

김부식의 한시작품에는 자연경물을 노래한 작품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안화사차재》, 《동교별업》, 《임진유감》, 《감로사차운》, 《대국유감》 등 시편들이 있다. 특히 《감로사차운》은 벼슬길에 급급했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쓴 것으로 김부식의 시세계에서 결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상 같다. 전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눈길 따라 마음이 맑아온다／산은 가을이라 한결 아름답고／강물은 밤에도 맑게 비친다／백구는 멀리 날아가고／외로운 배는 바다위를 등등 떠간다／아 부끄럽네 이 세상에서／반평생을 벼슬길에 해맨것이 (俗客不到處，登臨意思清，山形秋更好，江色夜猶明，白鳥孤飛盡，孤帆獨去輕，自慚蝸角上，半世覓功名)》¹³⁾ 자연경물을 노래하면서 반평생을 벼슬길에 해맨것이 부끄럽다고 하는데서 김부식의 도학적 풍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벼슬길에 나섰고 특히 조정의 높은 관직을 담당하고 있는 유학자로서의 이런 사상은 그의 자아초월적인 위대한 일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훈수원잡영》은 유교, 불교, 도교 3교사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이다. 《절 고요하고 중 한가하여 밤은 반이 넘었네／남은 등불 외로운 배개 그윽한 헌함에 누웠어라(院靜僧閑夜向分，殘燈孤枕臥幽軒)》 이 구절은 불교적 색채가 담겼고 《농가의 생애는 보아와 익숙하고／시도의 친구들 날로 성기어가네(農家生計看來慣，市道交遊日漸疏)》는 도교적 색채가 담겼으며 《흰 머리로 근고하면서 책을 아직 못벼린다고(白頭勤苦未捐事)》¹⁴⁾ 는 유교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유, 불, 도 공존의 당시 고려사회의 문화양상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다. 이 3교가 서로 공존하면서 모순되지 않는데는 신앙적으로는 불교를 따르고 통치원리는 유교를 따르는 이중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왕실에서부터 시민대중까지 불교나 도교신앙에 열중하고 있으며 소수

의 관료와 지식인들이 유교문화적 전통을 존중하고 있는 병존적 관계 속에 놓여 있었다.¹⁵⁾

김부식의 열아홉 편의 문학작품에서 13편에 중국의 혁사인물이거나 고사기 등이 인용되었는데 이로부터 김부식의 문학관이 더욱 뚜렷해지는 것이다. 즉 모화적인 명분학에서 문학의 전래적인 규범을 따르기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정지상과의 대립을 이야기하게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정지상은 김부식 시대에 생활한 문학재능이 출중한 문학가였다. 그는 개성적인 것과 함께 민족독창적인 것을 주장하고 모화적인 기풍을 반대하였다. 하여 문학적으로 김부식의 주장과 서로 반대되었을 뿐더러 정치적으로도 정지상은 서경천도파의 일원으로서 김부식과 엄연한 계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서경천도파의 실패로 정지상도 살해되었는데 김부식의 보복행위가 옳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의 죽음은 두 사람의 대결이 김부식의 승리로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이는 당시 고려귀족문화가 더욱 자주성을 상실하고 경화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 크게 세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김부식이 생활했던 사회력사적 환경, 유교적 사관과 문학세계를 살펴보았다. 조선력사에 전래한 최초의 보편적인 사상이고 종교이며 또 오늘날까지 가장 강하게 전승되어 온 전통사상으로서의 유교사상은 삼국시기, 통일신라시기를 거쳐 고려중세사회에로 진입하면서부터 더욱 활발히 발전되여가면서 김부식이 생활했던 시대에 이르러서는 전에 없던 사대주의 유교사관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수용문화연구에서 수용자의 체질과 립장에 대한 분석연구는 선초적으로 해결해야 할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본고가 조선고전문학과 유교사상배경연구에서 시초가 되는 간파할수 없는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체계적이고 방대한 작업은 다음번 숙제로 미루기로 한다.

〈주〉

- 1) 《고려사》 권92 (렬전 洪儒)
- 2) 金忠烈 《고려유학사》 고려대출판부 1984년 63~66쪽 참조
- 3) 琴章泰, 柳東植 《韓國宗教思想史》 연세출판부 1994년 27~28쪽 참조
- 4) 위 책 30~33쪽 참조
- 5) 趙金高 《高麗의 人物》 大衆事館 1981년 181~182쪽 참조

- 6) 위책 190~191쪽 참조
- 7) 《高麗名賢集》 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3년 86쪽 참조
- 8) 《東人詩話》 上
- 9) 《동문선》 제4권 119쪽, 589쪽 참조
- 10) 《동문선》 제1권 43~44쪽 560쪽 참조
- 11) 12) 《동문선》 제1권 45쪽 561쪽 참조
- 13) 《동문선》 제19권 372쪽 675쪽 참조
- 14) 《동문선》 제9권 666쪽 참조
- 15) 琴章泰 柳東植 《韓國宗教思想史》
1994년 연세대출판부 35쪽 참조

〈참고서적〉

- 1) 《동문선》
- 2) 《韓國宗教思想史》
- 3) 《高麗의 人物》
- 4) 《韓國儒學史》
- 5) 《한국의 漢文學》
- 6) 《한국고대사회연구》

朝鮮 後期의 日本語 教育과 僂學書

鄭丞惠

Japanese Education and Texts in the Late Chosun Perio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Korean language during the Chosun Dynasty, especially through the textbooks for the Japanese education during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Dynasty. Thus, this study will first look into historical facts related with the education of Japanese in the Dynasty and then will consider those textbooks.

During the Chosun Dynasty, the education of foreign languages was done by Sayerkwon, which was the government office of educating and managing Yerk-Kwan, a diplomatic interpreter. The origin of this office dates back to Tongmoongwan(통문관) in 1276, 2nd year of king Choong-ryul in the Corea Dynasty. Tongmoongwan was renamed into Sayerkwon in the last period of the Corea Dynasty, and the office with the same title was established in 1393, the year after construction of Chosun Dyasty, that is, the 2nd year of king Taejo. This office lasted for the following 500 years until it was abolished in Kap-o revolution, 1894.

The department of Japanese of Sayerkwon was established in 1643, 21st year of king Injo, repaired by Kim I-Jin, and was fostered by Ahn Shin-Whee, Yi Ji-Byung in 1673, 14th year of king Hyunjong. Besides Sayerkwon, the military organization, O-a(five office) also had its own branches of interperctation, for Japanese, Chinese, Manchuria, and Mongolian. There can be seen other officials' names engaged in linguistics along with Yerk-kwan when the government sent an ambassador to China and Japan, such as Won-chea, Pyul-chea,

정승혜 : 수원여자전문대학

* 第5回 朝鮮學國際學術討論會 발표 논문

Shin-chea, Sang-tongsa, Yunsochongmin, Uo-chea in the book of Tongmunkwanji.

When Sayerkwon was established in the 2nd year of king Taejo, from the beginning it provided the Chinese course, and maybe the Mongolian cours though there are no records that acknowledge this assumption. Japanese began to be lectured in 1415, 15th year of king Taejong and Manchuria in 1426, 8th year of king Sejong, respectively. These 4 linguistics or languages were called 'Sa-hak' which means 4 major courses in that field.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when Ching Dynasty succeeded to Ming Dynasty in China, Yo-jin-hak(or Manchuria) was renamed into Chinese.

The modern education of foriegn Language began in 1895 when the goverment established the foreign language school to lecture Japanese, English, French, Russian, Chinese and German.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regulation that this school had a head principal, instructors and administrators and had to appiont a local principal if there were any local school confirm its existence until it was abolished in 1911.

In the Chosun Dynasty, all the books related with interpretation were called "Yukhakso", and this book(s) was published to be used for test and education of 역관. These books were divided into 4 areas of Chinses, Mongolian, Japanese and Mancuria. The books of interpretation, Yukhakso, published in the first half of the Dynasty, except "put the title of the book in Chinese" do not exist now but the records of their name. Most of those existing Yukhakso were published in the late of 17th Century, with some of them in the middle of 16th Century. These Yukhakso have been very important and helpful materials for chronological study of Korean and the language it contained. For some of these books, there are all of its 1st and following editions that they enabled schloars to observe and compare historical change in Korean and the relevant languages.

緒 論

역사적 자료의 연구는 그에 대한 정밀한 원전 비평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시대에 대한 다양한 문학적 지식이 필요

하다. 본고는 朝鮮 時代, 특히 朝鮮 後期¹⁾ 日本語의 教育에 사용된 교재에 나타난 한국어의 모습을 살펴 보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시도되었다.

우선 당대의 外國語 教育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통하여 教育史的인 접근을 꾀하고, 외국어 교육기관의 변천, 그와 관련된 科舉制度史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는 당시의 일본어 교육에 사용된 교재들을 서지학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문헌들 상호간의 비교를 통하여 한·일 양국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의 계보를 작성하고자 한다.

1. 朝鮮時代의 外國語 教育

1.1. 司譯院과 四學

朝鮮 時代에는 외국어 교육이 주로 司譯院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司譯院은 조선 시대에 譯官(외교 통역관)을 양성하고 관장하던 衙門(官廳)이다. 사역원의 연원은 泰封의 史臺에 소급되며, 고려 충렬왕 2년(1276)에 通文館이 생겨 외국어에 관한 사무를 맡았고, 뒤에 司譯院이 생겨 譯官의 교육과 譯科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공양왕 3년(1391)에 漢語都監을 漢文都監으로 바꾸었다고 한 것을 보면 고려 말에 漢語都監이 있었다가 이 때 漢文都監으로 바꾼 것 같다(이홍렬 : 1967 ; 334).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 중첩된 역학·역과 담당 관서는 조선이 건국된 이듬해인 太祖 2년(1393) 동일한 이름으로 다시 설치되어 일원화되었고, 甲午更張(1894)으로 폐지되기까지 5백여년간 유지되었다. 조선시대에 사역원은 고려시대 창설기의 명칭인 ‘通文館’, 혹은 고대 중국에서 역관의 호칭이 ‘象胥’였던 데서 연유하는 ‘象院’으로 흔히 불렸다.

太祖2년 司譯院이 설치되었을 때 漢語(中國語) 과정이 설치되었고, 기록에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으나, 蒙語(蒙古語) 과정도 동시에 개설되었던 듯하다. 倭語(日本語)는 太宗 15년(1415), 女眞語는 世宗 8년(1426)에 설치되었다. 이 4개 언어의 학습 및 제도상의 명칭을 漢學, 蒙學, 倭學, 女眞學이라 하였고, 합하여 ‘四學’으로 불렸다. 17세기 전반 中國에서 明朝를 대신하여 清朝가 들어선 후(1669)에는 女眞學이 清學(滿洲語學)으로 개칭되었다.

司譯院에서 왜학을 담당했던 倭學廳은 仁祖 21년(1643)에 지어졌으며廳官 金以眞이 이것을 董成(동성)하였고, 顯宗 14년(1673)에廳官 安慎徽,

李之芳이 重修하였다.

1.2. 司譯院 이외의 語學 機關 및 關係官

司譯院 이외에도 軍職인 소위 五衙 중에는 倭·漢·女眞·清·蒙의 각 종 通事が 약간씩 예속되어 있었다. 使節이 일본이나 중국 등으로 갈 때, 正使, 副使를 수행한 관리 중에는 역관 외에도 語學에 관계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 『通文館志』 卷1 官制 等第條에 等第赴京遞兒之稱으로 元遞兒·別遞兒·新遞兒·上通事·年少聰敏·偶語遞兒 등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 중에서 비교적 중요하며 왜학에도 깊은 관계가 있는 職은 年少聰敏과 偶語遞兒였다.

年少聰敏이란 年少者 중에서 장래성 있는 자를 뽑아 日本 또는 中國에 使行이 있을 때마다 隨行시켜서 해당국의 언어를 학습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漢語를 연구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北京으로 보낸 것은 일찍부터 시작된 것 같으나, 일본에 보내게 된 것은 훨씬 후대의 일로 보인다. 人員數는 분명치 않으나 『通文館志』에는 15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偶語廳은 倭·漢·蒙·清의 四學에 관한 일을 교수한 곳으로, 肅宗8년(康熙壬戌:1682)에 閔老峰이 설립하였으며, 四學의 年少有才者를 골라서 입학시킨 곳이었다. 1697년 南九萬이 偶語廳員인을 확대하여 한학 50명, 몽학 10명, 왜학, 청학 각 20명으로 총 100명이 되었다. 처음 일본어 教授를 담당한 사람은 朴再興과 安慎徽였는데, 5년에 걸쳐서 連日 公舍에서 講習을 하여 크게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그 후 이들이 잇따라 죽음으로써 한 시 쇠퇴하였으나 乾隆辛酉(영조17: 1741)에 이르러서 다시 30명으로 증가되었고, 18세기 말에는 한학 70명, 청학 40명, 몽·왜 각 30명으로 총 170명이나 되었다.

1.3. 甲午更張과 職制의 變遷

조선의 어학기관은 『經國大典』²⁾이래 큰 변화를 입지 않은 채 근대까지 왔으나 고종 말년에 이르러 큰 개혁이 행해졌다. 즉, 高宗31년(甲午: 1894)에 수백년간에 걸쳐 유지되어 온 議政府의 吏·戶·禮·兵·刑·工 등 六曹가 폐지되고 새로 內務·度支·軍務·法務·學務·工務의 각 衙門이 설치되었다. 또 交涉衙門을 外交衙門으로 하여 종래 判事라 했던 것을 大臣으로 바꾸었다. 그 이름해에는 議政府를 內閣으로 하며 각 衙門을 内部·外部·

度支部·軍部·法部·學部로 개칭하였다. 그 후 일부의 관제가 변경되긴 하였으나, 庚戌國恥이 전까지는 대체로 이러한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이 甲午更張으로 인하여, 종래 있던 과거제는 이 때에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당시에 발표된 官吏 채용에 관한 법령을 보면, 그 머리에

五百三年(明治27년)六月二十八日 僕破門闈班常等級 不拘貴賤選用事³⁾

라 되어 있다. 따라서 종래에 있어 온 司譯院등도 이 때에 당연히 소멸되었고, 外部·參謀部·武官學校 등에 翻譯官(奏任)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翻譯官補(判任)을 수명씩 둘 정도에 그쳤다.

1.4. 外國語學校

사역원에서 옛날부터 일본어, 중국어, 풍고어, 여진어(만주어) 등 제 어학을 교수한 것은 전술한 바이지만, 그것들은 물론 오늘날과 같은 학교 조직이 아니었다. 근대식으로 외국어를 교수하는 학교는 高宗 23년(乙未 : 1895)에 외국어학교를 두어서 日語, 英語, 法語(佛語), 俄語(露語), 漢語, 德語(獨語)를 교수한 데서 시작했다(1895. 5. 10. 勅令 제88호). 11조로 된 ‘外國語學校 官制’에 따르면, 이 학교에는 학교장(奏任) 1명, 교관(奏任 또는 判任) 4명이하, 부교관(判任) 5명이하, 서기 3명이하 등을 두고, 分校를 설립할 경우에는 分校長을 두는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1895년에는 日語, 英語, 清語학교가 생겼고, 1896년에 露語학교, 1900년에 漢語, 獨語학교가 생겼다.⁴⁾ 또한 光武 4년(1900)의 ‘외국어학교 규칙’(學部令 제2호, 5관 29조)에서는 교과목과 수업연한, 학급, 입학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光武 9년(1905) 2월의 ‘학부관제(勅令 제22호)’ 중에도 학무국이 담당하는 사무에 외국어학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 외국어학교라는 것이 인정되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光武 10년(1906) 8월 31일에 나온 ‘學部直轄學校 및 公立學校官制(勅令 제40호)’ 제1조에는 보통학교가 아닌 學部直轄學校의 이름을 들고 있는데, 그 중에 官立漢城日語學校, 官立漢城漢語學校, 官立漢城英語學校, 官立漢城德語學校, 官立漢城法語學校 등의 이름이 보인다. 이들은 종래 독립되어 있던 語學學校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 같은 날에 ‘外國語學校令(勅令 제43호)’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 外國語學校에는 官·公·私立의 3 종류가 있는 것, 그리고 한 외국어만을 가르치는 학교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해부터 각종 어학교를 통

일하여 하나의 외국어학교를 설치할 것을 本旨로 하게 된 것 같다. 사실 그 무렵에 적어도 서울에서는 독립된 각 외국어학교라는 것은 소멸되어 버렸고, 한 외국어학교 안에 日語部, 英語部, 漢語部, 法語部, 德語部를 두게 된 것이다. 光武 10년에는 漢城日語, 漢城漢語, 漢城法語, 漢城德語 등 각 官立私立學校가 學部直轄學校로 되었지만 隆熙元年(1907)의 勅令(제55호)에 나오는 學部直轄學校 이름 중에서는 전술한 각 語學校 이름이 전부 다 삭제되었고 오직 官立漢城外國語學校라는 이름만이 있는 것을 보아도 그 때에 행해진 개신이 입증된다. 隆熙 3년(1909) 7월 9일에는 ‘외국어학교령 시행규칙(學部令 제4호)’이 발표되었지만, 1911년 8월에 公布된 ‘朝鮮教育令’에 의해 외국어학교는 폐지되기에 이른다.

2. 朝鮮時代의 科舉制度와 譯科倭學

2.1. 조선시대의 科試와 雜科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서 雜科는 역학(譯學), 율학(律學), 의학(醫學), 천문학(天文學), 지리학(地理學), 명과학(命課學), 산학(算學), 화학(畫學), 악생(樂生), 도류(道流) 등인데 소속된 각 관아에서 교육을 시키고 式年試, 增廣試 등 다른 과거와 같이 시험을 보고 자격을 주고 혹은 스스로 배우고 습득한 자를 시험하여 자격을 주고 등용하였다. 그 가운데 지리학, 명과학 중 일부와 도류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생활에서 제외될 수 없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다. 실제에 있어서 경사, 문장에 지지 않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학과이었다.

譯科는 조선왕조의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譯官充員을 목적으로 국초부터 실시되었다. 역과 중에는 漢語·蒙語·女眞語·倭語의 4과가 있었는데 漢語가 가장 중시되었다. 對明외교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漢語科는 국초부터 실시되었으나 蒙語科는 세종 1년(1419) 4월에,⁵⁾ 왜어과는 세종 23년(1441) 7월 이전에,⁶⁾ 여진어과는 문종 1년(1451) 4월에⁷⁾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성종 13년(1482)경에는 한때 문과에 한어를 아울러 시험보여 그 합격자를 문과 출신자와 같은 자격으로 서용하도록 하였으나 문신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⁸⁾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조선사회에서 漢譯官들의 지위가 양반만은 못하였지만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譯官을 담당하던 관청은 司譯院이었으며, 지방의 역학은 지방 요충지에 설치되었다. 세종 10년(1428)에는 이미 있었던 平壤 司譯院의 예에 따라 義州에 한학이 생기고, 동왕 12년(1430)에는 乃而浦·釜山浦⁹⁾·鹽浦에 왜학을, 동왕 15년(1433)에는 黃州에 한학을, 예종 1년(1469)에는 熊川·東萊의 왜학을 각각 설치하였다. 『경국대전』(1485)에는 웅천·동래의 왜학이 폐지되었고, 義州·昌城·理山·碧潼·渭原·滿浦·北青에 여진학이 신설되었으며, 정조 때 만든 『大典通編』(1785)에는 肇浦·鹽浦의 왜학이 없어진 대신 巨濟에 倭學을, 濟州에 한학과 왜학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고종 때 만든 『六典條例』(1865)에는 제주의 한학·왜학과 의주의 여진학이 없어진 대신 宣川에 몽학, 海州·甕津·咸興에 한학, 全羅左·右水營과 統制營에 한학과 왜학을 각각 신설하였다. 이러한 지방 역학원에서는 鄉通事를 양성하여 중앙의 사역원에 파견근무시켰으며 중요한 역관은 사역원에서 양성·선발하였다.¹⁰⁾

雜科는 式年試¹¹⁾와 增廣試¹²⁾·大增廣試에서만 試取되었고, 다른 別試는 없었다. 『經國大典(1485)』에 나타나 있는 譯科 初試·覆試의 試取額數는 다음과 같다.¹³⁾

式年試와 增廣試의 試取額數는 조선시대 내내 같았으나 大增廣試만은 『續大典(1746)』에 27인으로 되었다.

[표 1] 譯科 初試·覆試의 試取額數

區 分	初 試	覆 試
漢 學	45	13
蒙 學	4	2
倭 學	4	2
女 眞 學	4	2

잡과에는 初試와 覆試만 있었는데, 초시는 해당 관청에서, 복시는 역시 해당 관청에서 그 관청의 提調와 禮曹堂上이 실시하였다. 鄉試가 있는 것은 漢語科뿐으로 역과 초시인 鄉試는 사역원이 있는 평안·황해도에서 관찰사가 실시하였다. 시험과목은 전문서·경서·『경국대전』을 필수과목으로 하여 성적은 通 二分, 略 一分, 粗 半分으로 계산하여 分數가 많은 자를 선발하였다. 그리하여 합격자에게는 처음에 紅牌를 주다가 후에는 白牌를 주었다. 그러나 문과의 홍폐와 생원·진사시의 백폐에는 科舉寶를 찍어 주었는데

비하여 잡과백패에는 禮曹印만 찍어 주었다. 雜科白牌式은 다음과 같다.

<잡과백패식>¹⁴⁾

아무 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具官(아무 官品, 아무 官職) 아무개는
아무 科 몇 等 第 몇 人 出身者이다.
年 [禮曹印] 月 日
判書 臣 아무개, 參判 臣 아무개, 參議 臣 아무개
正郎 臣 아무개, 佐郎 臣 아무개

잡과에 응시하는 사람은 대체로 기술관이나 雜學生徒들이었다. 양반 자제들이 잡과에 응시하는 것을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기술관에 취재되기 위해서는 우선 잡학생도가 되어야만 했다. 잡학 생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현직 고위 기술관의 추천을 받아야만 하였다. 잡학교육은 중앙에서는 해당 관청에서, 지방에서는 해당 지방 군현에서 각각 실시하였는데, 조선시대 법전에 나타나 있는 잡학생도의 定額은 [표2]와 같다.

또한 역관의 선발에 사용된 課冊 및 試取方法을 『經國大典』 卷三 禮典 諸科條 및 『續大典』 卷三 禮典 諸科條에서 정리하면 [표3]과 같다.

2.2. 역과이외의 試取

과거이외에도 외국어교육과 유능한 역관의 선발 등용을 위하여 取才·院試·考講 등의 제도가 있었다.

2.2.1. 取才

잡학생도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다음 기술관 취재시험이나 잡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기술관 取才是 四孟朔 取才(1·4·7·10월의 1일)가 원칙이었다. 四孟朔取才가 처음 실시된 것은 태종 16년(1416) 3월초이고, 그 이전에는 四仲朔取才(2·5·8·11월의 1일)·四季朔取才(3·6·9·12월의 1일)가 시행되었다. 시험관은 해당 관청의 提調와 禮曹堂上官(당상관이 유고 일 때는 郎官)이 되었으며, 시험과목은 전공서·경서·『경국대전』 등이었다. 취재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잡학생도, 잡과를 합격한 다음 해당 관청에 임시로 배속되어 있는 權知, 전·현직 기술관 등이었다. 취재성적은 잡과와

[표2] <朝鮮時代 譯學生徒 定額表>¹⁵⁾

學別		法典 區分	經國大典 (1485)	續大典 (1746)	大典通編 (1785)	六典條例 (1865)	備考
譯 學	漢學	司譯院 平壤·義州·黃州 咸興·海州·甕津 全羅左水·右水·通制營 濟州	35인 各 30	75		新設 新設	『六典條例』 에는 四學의 置廢가 현저 하나 인원수 는 미상임
	蒙學	司譯院 宣川	10	35		新設	
	清學	司譯院 義州 昌城·理山 碧潼·渭原·滿浦 江界·安州 北青	20 5 各5 各5 10	54		廢 新設 廢	
	倭學	司譯院 釜山浦 薺浦 鹽浦 巨濟 全羅左水·右水·通制營 濟州	15 10 10 6	40	廢 廢 5 15	廢 新設 廢	

[표3] 譯科에 사용된 課冊 및 試取方法

朝鮮 後期의 日本語 教育 및 僥學書

法 典			經國大典(1485년, 成宗 16)				續大典(1746년, 英祖 22)					
譯 學			譯科初試	額數	譯科覆試	額數	譯科初試	額數	譯科覆試	額數		
漢 學	講	臨文	四書 (論語,孟子, 中庸,大學)	13人	同初試 (頤 講五經 少微 通鑑 宋元節 要者聽)	13人	四書 (論語,孟子 中庸,大學)	左同	同初試	式年 (見大典) 增廣同 大增廣 則漢學 蒙學 倭學 清學 各 加二人		
	書	背講	老乞大, 朴通 事, 直解小學		同初試		老乞大, 朴 通事, 伍倫 全備 (新 增)(中間代)					
			王可汗, 守成 事鑑, 御使箴, 高麗加屯, 皇 都大訓, 老乞 大, 孔夫子帖 月眞, 吐高安, 伯顏波豆, 待 漏院記, 貞觀 政要, 遂八寶, 章記, 何赤厚 羅, 巨里 羅 并 16冊		同初試 漢學 45人, 蒙學,倭學, 女眞學 各 4人司譯院 錄名試取	2人	以新瀛捷解 蒙語四卷行 用 並與老乞 大 抽七處寫 字 以准漢學 冊數					
蒙 學	寫字	倭學	伊路波,消息, 書格,老乞大, 童子教,雜語, 本草,議論,通 信,鳩養物語, 庭訓往來,廳 永記,雜筆,富 士 并 14冊	15人 平安道 觀察使定 差使員 錄名試取	同初試 漢學鄉試 黃海道7人 平安道15 人,觀察使 定 差使員 錄名試取	2人	捷解新語 (新增)	式年 (見大典) 增廣同 大增廣 則漢學 蒙學 倭學 各 加四人				
			千字文,兵書, 小兒論,三歲 兒,自侍衛, 八歲兒,去化, 七歲兒,仇難, 十二諸國,貴 愁,吳子,孫子, 太公,尚 書 并 15冊		同初試	2人	八歲兒,小兒 論 (見大典) 老乞大,三譯 總解 (新增) 其餘諸書今廢					
四 學	譯 語	臨 文	並翻經國大典		同初試							

마찬가지로 分數로 계산하는데 10分 이상을 1등, 6分 이상을 2등, 3分 이상

을 3등으로 하여 1·2등은 서용하고 3등은 서용하지 않았다. 都目政事(인사 행정)에는 取才성적이 우선이었으나 전공에 따라 근무일수·업무실적·수업일수가 고려되기도 하였다.

기술관취재에 합격한 사람은 遞兒職을 받았다. 그런데 조선초기에 있어서 祿官遞兒職과 受職대상자와의 경쟁률은 매우 높았다.

사역원의 예를 들면, 司譯院祿官은 모두 29자리였는데 教授와 訓導 10자리를 빼면 遞兒職은 15자리였다. 그런데 이 15자리의 체아직을 받을 수직대상자(직을 받을 대상자)들은 역학생도 80인, 別齋學官 13인, 전직역관 약간 명, 역과출신 權知 19인을 합치면 백수십인이 넘었다. 이 숫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났을 것이며, 이들은 불과 15자리의 체아직을 놓고 경쟁해야만 했다. 물론 지방 訓導로 가는 길이 있었다지만 그 수는 10인 이하였고 지방 역학생도 156인(한학 90인, 여진학 40인, 왜학 26인)까지를 합친다면 수직대상자 수는 더욱 늘어난다.

2.2.2. 院試

院試는 華人과 交接시에 最先으로 필요한 회화를 시험하는 것으로, 16세기 이후에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원시는 祿職 取才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확득하는 데 의의가 있다. 2인이 짹을 지어 講論을 하여 三分以上者만이 祿職取才에 응시할 수 있으며 取才시 分數가 동일할 경우에는 院試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한다. 따라서 春夏等에 실시하는 祿職 取才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년도 11월, 12월에 실시하는 院試에 합격하여야 하는 것이다.¹⁶⁾

2.2.3. 考講

考講은 그 대상에 따라 書徒考講과 二六考講으로 나뉘어진다.

書徒考講은 四孟朔마다 실시하는데, 考講대상으로는 漢學敎誨, 年少聰敏, 偶語別遞兒가 있다. 年少聰敏은 고강 성적에 의하여 赴京譯官으로 선발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赴京역관을 선발하는 방법이 서도고강의 分數를 기준으로 하는 데서 從仕差送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그 비중이 약화되었다.

二六考講은 每朔 三旬의 二·六 日에 訓上堂上의 주재하에 실시되었으며, 그 대상범위가 훨씬 넓었다.

3. 朝鮮 後期의 倭學書

조선 시대의 사역원에서 외국어를 학습하기 위해 사용된 일체의 교재를 通稱하여 ‘譯書’ 또는 ‘譯學書’라 하였는데, ‘譯’에 대한 개념은 『禮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五方之民 言語不通 嗜欲不同 違其志 通其欲 東方曰寄 南方曰象 西方曰狹覬 北方曰譯

譯書는 譯官의 學習 및 科試用으로 간행되었으며, 4개 외국어에 따라 구분하여 ‘漢學書’, ‘蒙學書’, ‘倭學書’, ‘女眞學書’, ‘淸學書’로 불려 왔다. 譯書는 譯官의 學習 및 科試用으로 간행되었으며, 4개 외국어에 따라 구분하여 ‘漢學書’, ‘蒙學書’, ‘倭學書’, ‘女眞學書’(‘淸學書’)로 불려 왔다. 朝鮮 朝 前半期에 사용되었던 역학서들은 ‘伊路波’를 제외하면, 그 이름만 전하고 실물은 전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역학서들은 16세기 중기에 간행된 것이 數種이고, 대다수는 17세기 후반 이후에 편찬·간행된 것들이다. 이 역학서들은 國語史와 해당 言語의 역사적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어 왔다. 특히 일부 역학서들의 경우는 初刊本과 改修·重刊本들이 현전하여, 해당 외국어 및 국어의 동일한 文句가 역사적으로 변화한 내용을 비교·관찰할 수 있게 해 준다.

3.1. 倭學書의 變遷

司譯院 倭學書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주로 일본의 訓蒙敎科書에 의존하였으며, [표3]과 같이 『經國大典』 卷三 禮典 諸科初試 倭學에 寫字의 科試書로 다음의 14種이 기록되어 있다.

伊路波 消息 書格 老乞大 童子敎 雜語 本草 議論 通信 鳩養物語 庭訓往來 應永 記 雜筆 富士

임진·병자 양란을 겪으면서 외국어의 교육에 실용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자, 회화 중심의 학습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에 규정된 14종의 외학서 대신 『捷解新語』 1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첩해신어』는 숙종2년 (1676)에 芸閣(校書館)에서 活字印行한 『捷解新語』(原刊本)를 효시로 한다.

『첩해신어』는 이후 2차에 걸쳐 改修되었으며, 重刊이 이루어졌다. 사역원에서 정식으로 奴學서라는 이름으로 法典에 등재하지는 않았지만, 『隣語大方』과 『倭語類解』 역시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雨森芳洲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交隣須知』는 일본인이 조선어를 학습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인들의 일본어 학습에도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3.2. 倭學書의 成立과 刊行

3.2.1. 捷解新語

‘捷解新語’는 ‘새 말을 빨리 깨우친다.’는 뜻으로 여기서의 ‘新語’는 임진왜란 이후 실제로 일본인들로부터 배운 새로운 일본어를 말한다. 즉 朝鮮朝司譯院에서 일본어를 학습하기 위한 교재로서 전시대에 사용하던 ‘舊語’의 일본어 교재에 대하여 새로운 일본어의 교재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정광 : 1991 : 5).

3.2.1.1. 原刊 捷解新語

(1) 初刊本(活字本) : 서울대학교 奎章閣 所藏 (京都大學 影印 : 1974, 弘文閣 影印 : 1990)

① 奎章閣 圖書 解題

康遇聖(朝鮮)編. 肅宗 2年(1676)

10卷 10冊 (活)(倭諺大字) 33×22.2cm.

四周雙邊. 半葉匡郭 : 23.2×17.4cm.

6行 11字. 版心 : 上下花紋魚尾

刊記 : 康熙十五年丙辰孟冬開刊.

印 : 1638 : <廂庫, 弘齋, 承華章> 1639 : <廂庫>

< (奎) 1638, 1639 >

② 活字 (校書館 倭諺字, 丙辰 倭諺字本/ 戊申字)

일본어 학습을 위해 안신휘(安慎徽)가 쓴 일본 문자 이로하(伊呂波)의 히라가나(平假名)를 글자본으로 숙종 2년(1676)에 주조한 활자를 그 해의 간지를 붙여 ‘병진 奴언자’, 그 인본을 ‘병진 奴언자본’이라 일컫는다. 교서

관에서 주조하였기 때문에 그 밖의 왜언자, 그리고 지방에서 거듭 새긴 판본과 식별하기 위해 ‘교서관 왜언자’, 그 인본을 ‘교서관 왜언자본’이라 일컬기도 한다. 이 활자를 왜언자라 이름한 것은 『중간 칡해신어(重刊 捷解新語)』 서문에서 ‘왜언대자(倭諺大字)’라 하였고, 칡해신어문석(捷解新語文釋)의 범례에서도 ‘倭諺’이란 이로하(伊呂波)를 의미한다고 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 활자의 주조는 본시 양파(陽坡) 정태화(鄭太和, 1602~1673)가 현종 11년(1670) 교서관(운각)에서 『捷解新語』를 주자로 찍을 것을 계청한 것인데, 그것이 그의 서거 6년 후인 숙종 2년(1676)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 병진 왜언자는 숙종 2년(1676) 10월에 찍은 기록이 있는 『침해신어』 1~10권 10책 완질본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2절이나 소장되어 있다. 하나는 ‘승화장(承華章)’, ‘홍재(弘齋)’의 도장이 찍힌 정조의 수택분이고, 다른 하나는 전래본으로, 별로 손때가 묻지 않아 책장이 깨끗하다.

왜언자는 한자를 흘려 쓴 글자체이기 때문에 나무 활자로 새기면 동일한 문자의 모양을 같게 할 수 없어 학습상 곤란하므로 각별히 주조를 계청해서 만들어냈다. 왜언자의 주조는 주로 단자식(單字式)이지만, 발음이 불는 글자는 연자식(連字式)으로 된 것이 특징이다. 이 연자식도 그 모양이 한결 같이 똑같게 나타난다. 그리고 왜언자의 발음을 표기한 한글과 왜어 새김의 국한문 중 한글은 나무 활자이고, 새김의 한자 작은 자와 제1.10권 말의 일본어 한자어 새김에 나타나는 한자 큰 자는 무신자(戊申字)의 작은 자와 큰 자다.

戊申字(사주 갑인자(甲寅字))는 호조판서와 병조판서의 자리에 있으면서 수어사(守禦使)를 겸직했던 김좌명(金佐明, 1616~1671)이 현종 9년(1668)에 호조 및 병조의 물자와 인력을 이용하여 수어청(守禦廳)에서 큰 자 6만 6100여 자와 작은 자 4만 6000여 자의 동활자를 주성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그가 죽은 지 약 1년 8개월 뒤인 현종 13년(1672) 10월에 교서관으로 옮겨졌으며, 그 활자가 주조된 해에 간지를 붙여 ‘무신자(戊申字)’, 그리고 갑인자의 개주 차례에 따라 ‘사주 갑인자’라 부르고 있으며, 그 인본을 ‘무신자본’ 또는 ‘사주 갑인자본’이라 일컫는다.

③ 『捷解新語』의 편찬 경위

『通文館志』 卷7 人物 康遇聖 條

康遇聖 晉州人 壬辰被擄十年乃還 熟諳倭俗 且善其語 試以國典所載 倭語冊子 語

多疏略 乃設爲館倭接待 信使酬酌之說 漢作十卷 名曰 捷解新語 各樣節目無不詳備 康熙庚戌陽坡鄭相國啓請 鑄字印布 自戊午後 專以此書行用於科試 (出啓辭贊錄) 凡再赴信使 五任釜山訓導 官至嘉善

『通文館志』卷8 什物 捷解新語板 條

康熙丙辰 陽坡鄭相國啓 令芸閣鑄字印行

위의 내용을 통해, 임진왜란 때 被擄되었다가 10년만에 돌아온 康遇聖이倭館에 寄留하는倭人을 접대할 때와 通信使行을 수행할 때 수작하던 말을 모아 10권으로 편찬한 것이 『첩해신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康熙庚戌(1670)에 司譯院 都提調 陽坡 鄭太和의 啓請으로 校書館에서 鑄字印行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校書館에서 印行한 것은 康熙丙辰(1676)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책이 간행된 지 2년 후인 康熙戊午(1678)의 增廣試 譯科부터는 譯科倭學에서는 『捷解新語』에서만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나 『첩해신어』의 原稿는 그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改修 捷解新語』凡例 (프랑스 파리 동양어학교본)

新語之刊行 雖在肅廟丙辰 而編成則在萬曆戊午間 故彼我言語 各有異同 不得不筵稟改正

비록 간행은 肅宗丙辰(1676)에 이루어졌지만, 편성은 萬曆戊午(1618)에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康遇聖이 譯科에 入格(광해군 1년:1609)한 후 부산의倭學訓導로 있으면서 館倭들과 通譯 및倭學譯生들의 일본어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광해군 9년(1617)부터 인조 14년(1636)까지 세 차례에 걸쳐 通信使行에 참여하여 渡日한 것을 생각할 때, 萬曆戊午(1618)로부터 崇禎丙子(1636) 사이에 草稿가 이루어져서 康熙丙辰(1676)에 간행되기까지 몇 차례 수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2) 整版本(流布本) : 日本 對馬藩 宗家文庫 소장 10卷 3冊 (卷1-4, 5-8, 9-10)

① 宗家文庫 捷解新語 解題 (千惠鳳 : 1991b : 244)

10卷 3冊

康遇聖(朝鮮)撰.

倭諺字(大字) 戊申字(中·小字)本

肅宗 2년(1676) 刊

四周雙邊 半郭 23×17.1cm

有界 半葉 6行 11字

國漢文小字訓釋雙行 白口

上下內向二葉混入三葉花紋魚尾

크기 32.4×20.8cm

紙質楮紙(良質中厚紙)

刊記 : 康熙十五年丙辰孟冬開刊

② 간행경위

이것은 校書館 刊行의 鑄字本을 修訂하여 整版한 다음 실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宗家文庫本은 『捷解新語』 10冊을 1冊(卷1, 2, 3, 4), 2冊(卷5, 6, 7, 8), 3冊(卷9, 10)으로 나누어 모두 3冊으로 分冊하였는데, 이것은 원고의 편성 순서대로 내용에 따라 편철한 것 같다. 즉, 제1책은 釜山의 倭學譯官과 對馬島에서 渡來한 館倭들과의 수작을 내용으로 한 것이고, 제2책은 通信使行을 隨行하면서 일어난 譯官들의 임무 수행상의 對話이며, 제3책은 對馬島 倭人們과의 주고 받은 候體書簡文의例들이다.

(3) 覆刻本(木板本) : 고려대학교 晚松文庫 所藏 第1冊 (卷1-3)

: 李謙魯氏 山氣文庫 所藏 第2, 3冊 (卷 4-7, 卷 8-10)
(弘文閣 影印 : 1990)

① 晚松文庫 圖書 解題

姜遇聖(朝鮮)著. 崔鶴齡(朝鮮)訂.¹⁷⁾

木板 [景宗1(1721)]

零本 1冊 29.3×17.4

6行 國文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殘本 : 第一~三 (全 10권 3책)

② 간행경위

晚松文庫本과 山氣文庫本은 본래 한 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송문고본은 1冊에 卷1-3까지 묶여 있으며, 산기문고본은 7卷 2冊으로 卷4-8, 卷9-10으로 편철되어 있어서 종가문고본과 비교된다. 즉, 이것은 내용상 分冊된 것이 아니라 책의 분량에 따라 분책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山氣文庫本에는 ‘康熙三十八年 己卯孟春濟州譯學朴世英監董開刊’이라는 刊記가 있다. 따라서 이 책은 康熙己卯(肅宗25년 : 1699)에 濟州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通文館志』 卷8 什物 捷解新語板 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흥미롭다.

庚辰 濟州兼軍官朴世英刊板于濟州

즉, 康熙庚辰(1700)에 濟州에서 覆刻木板本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安田章 교수는 『通文館志』에 기록된 ‘庚辰覆刻本’이 바로 만송문고 및 산기문고 소재의 木板本들이라고 하였으나, 양자가 同一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래 목판본은 언제든지 필요한 부수를 印出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康熙己卯(1699)에 간행하고 나서 필요에 의해 康熙庚辰(1700)에도 간행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安田章 교수는 이 木板本들을 奎章閣本의 覆刻이라고 하였는데, 판본을 비교하여 보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그림 참조). 따라서 이 복각본은 初刊本인 奎章閣本을 복각한 것이 아니라 이를 修正·整版하여 간행한 流布本(活字本)을 覆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이 奎章閣本이나 宗家文庫本과 다른, 또 하나의 活字本을 覆刻하였다는 증거로 卷六의 22a의 예를 들 수 있다(그림 참조). 즉, 활자본은 목판본과 달리 글자를 날날이 植字하므로, 活자가 옆으로 드러눕거나 거꾸로 놓일 수 있다. 아마 이 책이 覆刻한 活字本도 그러한 誤植이 있었던 것 같다.

3.2.1.2. 改修 捷解新語

- (1) 제1차 改修本(活字本) : 프랑스 파리 동양어학교 (Bibliothèque de l'École des Langues Orientales Vivantes, à Paris) 所藏. (京都大學 影印 : 1987, 太學社 影印 : 1991)

① M. Courant 『韓國 書誌(Bibliographie Coréene)』 (Paris, 1894 : 104)

12 vol.
C.des Int.

—司譯院 (Bibliothèque de la Cour des Interprètes, à Seoul) 所藏의
12冊.

② M.Courant 『韓國 書誌 補遺(Supplément à la Bibliographie Coréene
(jusqu'en 1899)』 (Paris, 1901:4 / 安田章 (1991 : 17) 재인용)

12 vol. in-folio formant 10 livres, exemplaire imprimé. (L.O.V.) /
Préface de Hong Kyei-heui 洪啓禧 (1748); avertissement, rapport,
décret royal, / liste des surveillants de l'impression.

—東洋語學校(L.O.V.) 所藏의 10권 12책.

洪啓禧 序文과 凡例, 筵說, 考校諸人이 있다.

③ 圖書 解題

康遇聖 撰. 朴尙淳의 8人 訂. 英祖 24年(1748) 刊.

10卷 12冊 (活)?18)

四周單邊. 半葉匡郭 ?19)

有界 半葉 6行 18字(序文은 14字).

白口. 版心: 上二葉花紋魚尾

<도서등록번호 COR. I.133>

④ 改修의 경위

『通文館志』 卷8 書籍續附

十二本 倭學書 乾隆戊辰 倭語訓長崔鶴齡等修整 鑄字印行

乾隆 戊辰 (英祖 24년:1748)에 崔鶴齡등이 수정하여 鑄字로 인행한 改修
捷解新語를 말한다. 첨해신어의 改修는 2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 개수
의 경위는 洪啓禧가 쓴 이 책의 序文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중 일부를 國譯
하면 다음과 같다(改修 捷解新語 序 참조).

(前略) 丁未年에 화친을 맺고부터 다시 부산포에 館을 설치할 것을 허락하고,
만일 그 나라에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通信使를 보내니 드디어 그것으로 慣例를
삼았는데, 이로부터 倭譯의 중요함이 漢學과 더불어 차이가 없게 되었다. 그 생도

가 익히는 바와 科選에서 시험하는 바에 捷解新語 1書가 있었는데, 일찍이 들으니 역관 강우성은 임진란때 잡혀갔던 사람으로서, 사역원에 소속되어 자주 使行을 따라가 통역을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 이 책을 지었는데 자못 상세하고 치밀하였다. 그러나 책이 이루어진 이후로 100년이 넘어 두 나라의 언어가 예와 지금의 다름이 없지 않아 이 기록한 바로는 능히 소통할 수 없었다. 가끔 영민하고 근면한 자가 있어 본서를 사용치 않고 따로 익혀서 능히 그들과 응대하였으니 이는 곧 천백의 하나일 따름이었다. (첩해)신어에 (있어서) 만번을 넘게 읽어 말이 물흐르듯 입에서 솔솔 나오는 자라도 選試에서 높은 성적을 얻는 데 지나지 않을 뿐, 그로 하여금 저들과 말하게 하면 한마디도 통할 수 없었다. 익힌 바가 쓰이지 못하고 쓰이는 바는 익힌 바가 아니라, 심지어는 부산관(왜관)에서 일을 맡은 자라도 또한 通事에게 혀를 빌려 더듬더듬 맞지 않게 끌어다 붙여 번번이 일을 망치는 것을 면치 못하니, 늙은 역관이 이를 심히 근심하였다. 저들(일본인들) 또한 몰래 비웃는 일이 많았는데, 내 이 폐단을 익히 알아 정묘년 겨울 장차 일본에 사신이 되어 가려 할 때 임금께 아뢰기를 “(첩해)신어를 마땅히 고쳐야 함이 오래되었는데 미적거리다가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행에서는 진실로 (개정하는 데) 미칠 수는 없으나 지금이라도 개정한다면 삼년 뒤에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께서 허락하셨다. (後略)

⑤ 改修의 内容

1차 개수에서는 양국 언어간의 語音의 교정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話者를 (主) (朝鮮人)과 (客) (日本人)으로 나누어 표시하여 발화 상황을 보여주는 節目的 설정이 이루어졌다: 이 節目的 설정은 회화 장면을 公的인 것으로 규정하고, 내용, 표현, 문체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틀에 맞춤으로써 회화교재로서의 규범성을 보여 준 것이었다. 그러나 제1차 개수본이 사적인 내용을 가진 原刊本의 구성을 답습하고 있는 한에는 公私의 화제가 공존한다는 모순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1차 개수시에 설정한 절목들이 제2차 개수시에는 삭제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한다.

(2) 제2차 改修本 : (活字本 : 不傳)

① 改修의 경위

『重刊 捷解新語』 李湛의 序

(前略) (1차 개수본의) 語音은 비록 교정을 하였으나 倭諺大字는 舊本(原刊 捷解新語)과 같아서, 고침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후에 崔鶴齡이 萊州(東萊)에 公事가 있어서 다시 通詞倭人을 쫓아 널리 大坂, 江戶間의 文字를 구하여 서로 참조하고 고증하였다. 무릇 점, 획, 偏傍의 그 字法에 합당치 못한 것을 모두 바로 잡았다. 이것이 편찬되어 비로소 完成된 책이 되었다. 이에 私力으로 活字印行하였다. (下略)

捷解新語의 제2차 개수는 ‘丁卯通信使行’ 때 연소역관이었던 崔鶴齡, 崔壽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즉, 1차 개수에서 교정하지 못한 勞연대자를 2차 개수시에 최학령이 교정하고 私力으로 活字印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2차 개수본은 현재 전하지 않아 그 모습을 알기 어렵다.

3.2.1.3. 重刊 捷解新語

(1) 제2차 개수본의 覆刻本(木板本) I

: 서울대학교 奎章閣 所藏 (京都大學 影印:1964, 弘文閣 影印:1990)

① 奎章閣 圖書 解題

改修 捷解新語²⁰⁾

崔鶴齡(朝鮮)編. 正祖 5年(1781)

12卷 12冊²¹⁾ (木) 33.3cm×20.8cm

四周單邊. 半葉匡郭 : 23×16.1cm. 有界.

4行 12字. 版心 : 上(二葉)花紋魚尾.

表紙書名 : 捷解新語.

卷首 : 重刊捷解新語序…歲辛丑(1781)李湛.

卷末 : 伊呂波眞字半字竝錄, 伊呂波吐字, 伊呂波合字, 伊呂波眞字草字

竝錄, 簡格語錄, 伊呂波半字豎相通, 伊呂波半字橫相通,

戊辰改修時考校官…朴尙淳<等衛名>辛丑重刊時校正官…卞世謙

<等衛名>

<(奎) 3952>

② 간행경위

『重刊 捷解新語』 李湛의 序

(前略) 다만 이 책(1차개수본을 말함)이 이루어진 지 이미 오래고 印本이 흩어져 없어지고 새로 배우는 사람이 공부를 그만둘을 면치 못하고, 講試 또한 荀簡²²⁾을 근심한다. 접때 柏谷 金相國이 10년 동안 司譯院 提舉로 있을 때 관리하고 권장하는 방법이 있어, 衆論을 취하여 널리 평으로써 오래 전하기를 도모하였다. 마침 金亨禹가 捐財²³⁾를 원하여 匠人을 모아 활자를 본떠서 諸板을 간행하였다. 그것을 院閣에 간직하고 후학이 읽는 바탕을 간행하였다. (下略)

최학령이 私力으로 活字印行한 2차 개수본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흩어지자, 사역원의 提舉로 있던 金相國²⁴⁾이 그 책을 전하기를 권장하였고, 마침 金亨禹가 재물을 내어 장인을 모아 활자를 본떠 목판을 다시 만든 것이다.

③ 改修의 内容

원간본과 1차 개수본과의 간격에 비해 1차 개수본과 2차 개수본과의 간격은 매우 짧다. 1748년과 1781년 사이, 그리고 1748년에 나온 1차 개수본의 印本이 흩어져 찾아보기 어려워질 정도의 시기라고 한다면 최대한 어렵잖는다고 하여도 1차 개수본은 1760년대 초반 정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20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또한번의 개수가 이루어진 것은 어떤 동기가 있었을 것인데, 본문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1차 개수본과 2차 개수본의 語音의 차이는 뚜렷하다. 글자 그대로 '倭諺大字 猶仍舊本 而未及改'하여 고친 것 말고도 原刊本과 重刊本 사이에 둘 때 단계적으로 발달하여 간언어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차 개수를 통하여 1차 개수시에 고치지 못한 것들을 고쳐 '完書'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²⁵⁾

(2) 제2차 개수본의 覆刻本(木板本) II

: 日本 金澤大學 金澤文庫 所藏 (金澤舊藏本이라 불림)

① 圖書 解題

崔鶴齡(朝鮮)編. 正祖 5年(1781)

10卷 12冊 (木)

四周單邊. 半葉匡郭 : 21.5 × 15.5cm. 有界.

4行 12字. 版心 : 上(二葉)花紋魚尾.

表紙書名 : 捷解新語.

卷首 : 重刊捷解新語序…歲辛丑(1781)李湛.

② 특징

金澤舊藏本의 卷 1 과 卷 2-10은 같은 版본이 아니다.

卷1：李湛의 序 (一葉부터 四葉까지) : 版心書名 重刊捷解新語 / 序

凡例 (六葉 七葉) : 版心書名 改修捷解新語 / 凡例

(五葉) : 重刊捷解新語 / 序

本文 : 卷 표시 音 : 版心書名 改修捷解新語

自體 : 奎章閣本과 다름.²⁶⁾

卷 2-10 : 卷 표시 있음. 奎章閣本과 같음.

3.2.1.4. 捷解新語 冊板

(1) 鏤板考(正祖20년 ; 1796 徐有榘 편찬) 卷第四 子部 上 112의 기록

捷解新語 十卷

李朝司譯院官康遇聖撰 康遇聖萬曆壬辰 被擄日本 十年而還 用其語 說爲
信使問答之說 司譯院藏印紙七牒十一張

(2) 韓國冊板目錄總覽 p.434

<濟州> 板 一秩 古冊板所在考, 古冊板有處攷, 濟州大靜旌義邑誌²⁷⁾

(3)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捷解新語 冊板

① 版心書名 : 改修 捷解新語 : 冊板 번호 D-1263~D-1321

② 版心書名 : 重刊 捷解新語 : D-1765

③ 版心書名 : 捷解新語文釋 : D-1001~D-1019

3.2.2. 隣語大方

3.2.2.1. 隣語大方

(1) 隣語大方(木板本) : 서울대학교 奎章閣 所藏 (京都大學 影印 : 1963, 太學社 影印 : 1986)

① 奎章閣 圖書 解題

隣語大方(1622)²⁸⁾ 編者未詳.

10卷 5冊 木版本 33.3×20.9cm.

四周雙邊 半郭 : 23.1×15.7cm.

有界 7行 21字 版心 : 上白魚尾.

② 간행경위

奎章閣 圖書 解題에서는 이 책을 日本語 학습용 교재로서 전 10권 5책의 목판본으로 序文이나 跋文이 없고 編者は 未詳이라고 적혀 있으며, 덧붙여서 1790년(正祖14년)에 간행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승정원 일기』(承政院 日記)와 『일성록(日省錄)』 등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1790년에 奠학당상역관(僕學堂上譯官) 최기령(崔麒齡)이 편찬한 『인어대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90년 7월 19일에 사역원에서 올린 제(啓)에 의하면,

몽왜(蒙倭)兩學이 서적이 미비하여 학습에 어려움이 있어 배운 자가 슬픔에 빠진지 오래더니, 연전에 奠학당상역관 최기령이 『인어대방』 5책을 구입하여 말을 배우는 자의 지남(指南)이 되었는데, 곧 (최)기령으로 하여금 재력을 갖추어 개판하고 책을 이루게 하였다. (後略)

(蒙倭兩學 書籍未備 學習有艱 識者憂嘆 闕惟久矣 年前僕學堂上崔麒齡 購納隣語大方五冊 案爲學語者之指南 故即令麒齡辨備財力 開板成書)

<承政院日記 正祖 14年 庚戌 7月 19日 丁酉條>

라고 되어 있다. 한편, 『역과방목(譯科榜目)』(乾隆己卯式年 : 1759)에 의하면, 최기령은 자가 위래(爲來)요, 癸丑生(1733)으로 본관은 무주(茂朱)이다²⁹⁾. 奠학교회 자현지주(僕學敎誨 資憲知樞)로 『첩해신어』의 改訂을 추진한 최학령(崔鶴齡)의 아우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인어대방』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나이 57세 때라 하겠다. 『捷解新語』의 重刊이 1781년에 이루어지고 난 뒤에 행해진 『인어대방』의 ‘開板成書’가 결코 우연은 아니라 고 여겨지며, 『첩해신어』의 개수·중간에서 앞의 것을 수정한 사실로 보아, 이 때 이루어진 『인어대방』의 편찬도 앞의 것을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수정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隣語大方』이 1790년에 최기령에 의하여 편찬된 것은 사실이나, 이 때에 편찬된 것이 지금에 전해지는 ‘조선간본’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인어대방』이

존재하였고, 그것을 최기령이 구입하여 다시 편찬하였기 때문에 양자의 표기법이 일치하였을지 의문이며, 혼전하는 판본이 바로 그것이라고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책의 표기법을 통하여 국내의 몇 학자들이 18세기말의 자료라고 추측해 왔을 뿐이다.³⁰⁾

이 책은 총 236장에 510종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일상적인 교훈으로부터 상담(商談)에 이르기까지 길고 짧은 이야기가 한 장에 평균 2개씩 들어 있다. 제제는 각 권이 다른 제목이며 日本語原文과 우리말 언해문 모두 한자를 혼용하였다.原文을 수행씩 먼저 쓰고 한 자씩 낮추어서 諺解文을 썼다. 그리고 日語漢字單語는 爛上에 일본음을 우측에 함께 달았다. 全體의 목록은 없으나 내용을 차례대로 보면 卷之一은 公儀之文, 二은 才勝薄德, 三은 大丈夫不拘小節, 四은 謀事在人, 五은 私茂若時, 六은 此難詩, 七은 此中, 八은 先比胡麻, 九은 此繪彩色, 十은 配所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목들은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 보면 각 권의 내용을 충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각 권 문장의 처음에 있는 어구를 추출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제목과 卷頭語句와 의 대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卷一 公儀之事	나라 일을 因緣하여 私私 일을 헬기를 公營私라 호니
卷二 才勝薄德	才勝薄德이라 헬오니 네부터
卷三 大丈夫不拘小節	大丈夫는 不拘小節이라 헬옵거든
卷四 謀事在人	謀事在人이요 成事는 在天이라 헬오니
卷五 私茂若時	나도 젊어실 적은 貴國言語를 적이 비활습거니와
卷六 此難詩	이 어려운 글을 슈유지간의 지어내니
卷七 此中	지난 적의 구호시던 荏子를 거번 開市의 드려오 자 헬고
卷八 先比胡麻	지난 적의 荏子를 만히 장만하여 드리라 헬여 계 오시매
卷九 此繪彩色	이 그림은 彩色은 잘 폐월습거니와
卷十 配所	適所의 가 苦楚이 지내옵더니

또한, 여기에 쓰인 일본어 원문의 경우 ‘가나 (かな) 五十音’이 없어서 기초 지식 없이는 볼 수 없는 것으로 倭學科試用 교재로 쓰인 것 같다. 더구나 日語原文은 ‘가나 (かな)’ 나 漢字가 모두 草書로 되어 보기가 어려우므

로 初學者의 入門教材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원래의 『인어대방』 즉, 최기령이 구입한 '인어대방'은 언제 편찬된 것일까. 金澤庄三郎 박사는 『朝鮮書籍目錄』(明治 44년 3월 ; 1911년)에서 朝鮮刊本 『隣語大方』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술하였다(安田章 : 1963 재인용).

雨森芳洲의 交隣須知와 함께 오랫동안 우리나라(일본)의 朝鮮語 學習 教本이었던 것으로 明治 6年(1873)對馬島의 浦瀬裕씨가 翻刻한 것이 있다. 著者 年代는 모두 확실하지 않지만 그 내용을 비추어보면 朝鮮文을 日本語로 번역한 듯한 형태가 남아있다. 아마도 對馬島人の 著作일 것이다. 別段의 순서 등도 없고 가끔 어쩌다가 있는 일들을 日本文으로 기록하고, 다음에는 漢字諺文 혼합의 朝鮮文에 이것을 번역한 것이다.

<日語譯文. 이하 동일함. () 안은 필자 주>

또한 金澤 박사는 『濯足庵藏書 61種』(昭和8년 3월 : 1933)에서 위의 설명을 보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雨森芳洲의 交隣須知와 함께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 조선어 학습의 교본이었던 것으로 평치 6년 對馬島의 浦瀬裕가 번각한 것을 실제로 하였다. 저자 연대 모두 불확실하다.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해서 별단에 저작이라고 칭할 만한 성질의 것은 되지 못한다. 다만 本書에 먼저 일본문을 쓰고 다음에 이것을 조선어로 번역한 형식이긴 하지만 사실은 조선문의 원문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덮어쓴 것임에 틀림없다. 예컨대 “우리게 捷解新語 | 라 旱고 日本 말 비호는 최이 일습더니…”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여기에 실린 것은 조선의 刻本이지만 원문은 필시 대마도에서 몇 명인가가 번역한 것일 것이다. 모리스 쿠랑(M. Courant)의 朝鮮書誌 (Biblio-graphie Coréenne)에도 이 책을 “交隣須知와 양식이 같고 우리나라 사람(일본인)의 저작이다.”라고 간주하고, 이것을 書目 중에 더하지 않았다.

이 책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확실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유래가 불분명하지만 金澤庄三郎 박사는 일본인의 저작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著作年代는 “우리게 捷解新語 | 라 旱고 日本 말 비호는 최이 일습더니 아마 그 뿐 더가 일눈가 시보오메 公너께 드려 보내을 거시니 修整하여 주시면 多幸할가 旱옵니”라는 것에 의해 『捷解新語』³¹보다 후세의 것으로 본다.

한편, 인어대방의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그 성립년대를 추측케 한다.

新館設立後 불서 近百年이 되오매 舊館 적 일을 아는 사람은 업소오되 가 보온
즉 館所形跡이 或 일기에 대강은 아울쇠 (5. 11b)

즉, 李俊杰(1986 : 333)에 의하면, 현종 8년(1667년)에 부산의 왜관이 화재로 인하여 燐盡되어, 숙종 4년(1678년)에 왜관에 新館舍가 완공되었다. 따라서, 신관이 설립된 1678년으로부터 '近百年'이 되는 1700년대 후반이 이 책의 성립시기임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나 文例에 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2) 隣語大方(筆寫本) : 京都大學 文學部 言語學 研究室 所藏. (京都大學影印:1967) 四卷二冊 苗代川本으로 불림.

이 책은 新村出 博士가 鹿兒島縣 日置郡 苗代川의 조선 귀화인의 자손으로부터 구입한 朝鮮 寫本類의 하나에 속한다. 苗代川의 江戶時代에는 歷代通事, 稽古通事, 通事稽古 등이 설치되어 각각 祿을 받으며 朝鮮語를 講習해 온 것이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은 그 텍스트이다. 각각 黑付 26 장, 28 장. '安政六年未神無月寫之朴平覺'이라는 識語가 있다. 이로 미루어 이 책은 1859년(安政 6년)에 필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漢字와 한글이 섞인 각 張 7행의 朝鮮文을 본문으로 하여, 片假名로 된 漢字가 섞인 日本文을 주해와 같이 작게 오른 쪽에 썼다.

또, 같은 형식의 『隣語大方』에서는 別筆로 생각되는 『講話隣語大方拔書』의 寫本 1冊이 별도로 있다. 문자 그대로 『隣語大方』의 拔萃이고, 그 拔萃(합계110항목)의 기준은 없는 것 같다.

(3) 隣語 (筆寫本) : 東京大學 文學部 言語學研究室 所藏.

이 책은 中村庄次郎 씨가 小倉進平 博士에게 1932년(昭和 7年) 8月에 기증한 것이다. 內題는 『隣語大方』으로 되어 있다. 明治 初年 對馬嚴原에 설립된 朝鮮語學所에서의 교과서는 『交隣須知』, 『隣語大方』과 같은 책을 각자 筆寫한 것이었다. 1873년 (明治 6年) 부산에 이 어학소가 移管될 것이었는데 그 시기에 稽古通事詞로서 渡韓을 명령받은 한 사람으로 中村 씨가 있

었다. 거기에서도 위의 두 책을 골자로 하고, 이것에 ‘常談’과 ‘講話’를 붙여,對話와 記述을 장려하였다. 이 책도 그 때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黑付 5張. 각 장에 한자와 한글이 섞인 朝鮮文 10행이 있다.

3.2.2.2. 訂正 隣語大方

訂正 隣語大方(活字本) : 日本 外務省 所藏. (京都大學 影印:1968)

九卷三冊. 明治十五年本 (明治刊本이라 불림)

이 책의 각 권 표지의 題簽에는 ‘外務省藏板 増訂 隣語大方 天(地·人)’이 있고, 표지 안쪽에는 중앙에 ‘隣語大方’, 우측에 ‘外務省藏板’, 좌측에 ‘明治十五年六月印行’, 상단에 右橫書로 ‘大日本帝國紀元二千五百四十二年’이라고 적혀 있다. 따라서 이 책은 1882년(明治15년)에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활자본(목활자)으로 인쇄된 이 책은 각 책 제1장의 처음에 ‘對馬州 浦賴裕校正增補 周防州 寶迫繁勝 印刷’라고 게재되어 있다. 각 책의 張數는 天部 33, 地部 26, 人部 36이고 卷頭 원쪽에 緒言이 있다.

대체로 隣語大方에 쓰인 것은 옛날 對馬藩人이 公私 事務에 있어 朝鮮人과 對話하거나 혹은 往復하며 書簡의 辭句를 傳集하여 交隣須知에 이어서, 말을 배우는 데에 함께 한 것이다. 그리고 그 編輯人の 姓名 및 그 紀年 등에 이르러서는, 판단할 수 없고, 모름지기 口碑에 의하면 해당 藩의 象官(역관) 福山 某氏의 편집이라고 한다. 만약 이 책도 (교린)수지와 같이 대저 고대의 어법으로서迂曲遼遠하여 지금에 적절하다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書簡上의 語體가 대화에 불편한 것이 있다. 따라서 내가 절때 京城의 學士를 이끌어, 오로지 近世의 語法을 論究하고, 먼저의 (교린)수지를 교정하여, 이어서 이 책에 이른다. 이제 관장함에 이것을 인쇄에 붙이려 한다. 때에 따라 한마디를 기록하고 후진을 위해서 이 책의沿革하는 바를 알리려 한다.

明治十五年一月 外務省雇 朝鮮語學教授 浦賴裕識

< * () 안은 필자주 >

위의 ‘緒言’에서 언급한 『交隣須知』의 刊本은 明治十四年本을 시작으로 하여, 4種이 있다. 『隣語大方』의 유래를 알기 위해 明治十四年本에서 浦賴裕가 쓴 緒言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찍이 들은 바에 의하면, 지난날 宗氏의 교제(대마도와의 교류)를 조선과 통하

고자 하였다. 文運은 아직 열리지 않았으나 象胥의 官(역관)이 없이 오직 釜山浦公館에 머무는 우리 백성 (日人)이 거주하며 항상 그것을 귀동냥할 수 있는 곳의 방언을 쫓아하니 마침내 그 뜻을 능히 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寶永 (1704-1711) 正德(1711-1716) 年間 兩森芳洲 屢 宗氏의 명을 받들어 釜山에 건너 가 그 나라의 譯官에게서 朝鮮語를 배워 대단히 잘 소통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 선어학서를 編輯하고 이름을 붙여『交隣須知』라 하였다. 그 책의 格物을 부분마다 나누어 제목을 붙이니, 앞에 본 말을 써서 그 뜻을 풀이하였고, 또는 그 뜻을 번역함에 있어서 이 宗氏가 처음으로 象胥의 官을 설치하고 이를 五人通詞라 칭하였다. 이 책을 받아 배우게 한 이래 譯學의 선비들이 많이 나와 수정 증보하는 일이 적잖이 많았다. 한편 隣語大方 등의 편찬에 있어서 象胥의 학식을 많이 갖춘 芳洲 초창기의 功이 심히 커서 훗날 모든 이들의 칭찬이 이를 데 없을 만큼 이었다고 전해진다. (後略)

< * () 안은 필자주 >

즉, 『交隣須知』가 單語를 基礎로 한 初等會話集이었던 데 대해, 『隣語大方』은 그것을 익힌 談話의 위에 필요한 說得,弁解, 相談, 인사를 습득하게 하기 위한 高度의 것으로 보인다.

3.2.2.3. 隣語大方 冊板

(1) 鎏板考(正祖20년 ; 1796 徐有榘 편찬) 卷第四 子部 上 114의 기록

隣語大方 五卷

李朝司譯院官崔麒齡撰 亦雜記日本語者

司譯院藏印紙五牒十八張

3.2.3. 倭語類解

3.2.3.1. 倭語類解

(1) 倭語類解(木版本) :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太學社 影印 : 1988)

① 古書目錄 圖書 解題

倭語類解 上·下(朝鮮)

韓廷修等編修. 木版本. [刊年未詳]

2 卷 2 冊

四周雙邊. 半郭 23.7×16.9cm

8字. 行數不同. 注雙行. 版心 : 內向二葉花紋魚尾

34.1×21.5cm

<古 00793>

倭語類解는 上卷에 目錄 1葉과 本文 56葉, 下卷에 目錄 1葉과 本文 54葉, 口訣 2葉이 있고, 卷尾에 訂整官, 書寫官, 監印官의 관직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2책 모두 卷首에 국립도서관의 藏書印이 있고, 上卷 말미에 ‘碧霞藏’, ‘提壺’ 등의 藏書印이 있다.

② 간행경위

M. Courant (1894 : 110-111)에는 『倭語類解』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前略) Oppert에 따르면 Hoffman이 한글 사전의 작성을 위해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책과 『類合』이며……倭語類解가 내국인이 일본어를 배우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조선에서 쓰여진 것이며, 刊年이나 序文이 없이 일본에서 간행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이런 목적으로 쓰인 유일한 책인 것 같다. 이 책이 인쇄된 지 몇 세기가 지났으므로 아마도 倭亂時로 그 인쇄연대가 추정된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내가 보기에 『倭語類解』는 한국책인 것 같다. 이 책이 만일 일본에서 인쇄되었다면 모욕적인 말인 ‘倭’라는 말을 사용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交隣須知』의 저자에 의하면 그의 책은 作文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한국인들을 위한 것이다. ……刊年에 대해서는 매우 오래된 것일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실제로 그 서지적 표시가 康熙(1662-1722) 이전으로 올라가지 않는 『通文館志』에 司譯院에서 인쇄한 책 중 이 저술이 들어 있지 않을 뿐더러 사역원에도 이 책을 소장하고 있지 않다.

이 기록을 통하여 보면 『왜어유해』를 멀리는 壬辰倭亂時, 또는 1662년 이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金澤庄三郎의 『朝鮮書籍目錄』(1911)에서는 通信使가 경유한 곳의 이름을 들어 놓은 중에 ‘日光山 權現堂’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朝鮮通信使가 日光의 廟를 참배한 寛永 13年(1636), 20年(1643), 明曆1年(1655)에 해당하는 때, 즉 1636-1655년간에 편찬된 것으로 보았다(정광 : 1988b ; 135 참조).

『通文館志』 卷7 人物 洪舜明 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倭語類解』의 간행연대를 추정해 왔다.

洪舜明 字水鏡 喜男之曾孫也 (中略) 公質于日本人雨森東 作長語³²⁾及類解等書用於科試 (下略)

그 동안 이 기록의 ‘類解’를 『倭語類解』로 보고, 洪舜明³³⁾이 康熙 辛巳(1701)에 日本의 對馬島에 가서 對馬藩의 藩臣으로서 對馬島의 朝鮮語通事 양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雨森東五郎(雨森芳洲)에게 일본어를 問難質正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현전하는 『倭語類解』는 국립도서관본이나 금태구장본이나 洪舜明의 저작과는 별개의 책으로 보인다. 즉, 現傳하는 『倭語類解』의 卷末에 添記된 書寫官, 監印官들은 모두 1740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로서 1701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정광(1988a, b)에서는 이 書寫官, 書寫官, 監印官의 행적을 통하여 현전하는 『倭語類解』의 간행연대를 추정하였다. 이 책은 ‘書寫官 前判官 韓廷修’가 주도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이며, 그가 堂上譯官이었던 1787년보다 훨씬 이전인 堂下官이었을 때 간행된 것으로 보아, 1780년대초로 간행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英祖 癸未(1763)에 趙曠을 正使로 하는 通信使行의 行狀을 기록한 『海槎日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관심을 끈다.

首譯輩以爲倭語物名冊子 譯院亦有之 而以其次次翻贅之 故訛誤既多 且彼人方言或有變改者 舊冊難以 盡憑 趁此日對倭人時 厥正其訛誤 成出完書而習之 則方言物名庶可洞知 如是則與彼人酬酌之際 必無所擬云 故三使相議 許其厥正 以玄啓根劉道弘定爲校正官 使首譯而董飭之 未知可能作成書不也

이 기록을 통해 ‘倭語物名冊子’가 『倭語類解』이거나 왜어유해의 祖本일 것으로 본다. 이 癸未 通信使行에 동반한 首譯輩는 倭學堂上譯官 崔鶴齡, 李命尹, 玄泰翼을 말하며, 堂下譯官으로는 押物通事 玄啓根, 劉道弘이 있었다. 특히 玄啓根은 대대로 역관을 많이 배출해 낸 川寧 玄氏家の 한 사람으로, 金炫榮(1987)에서 川寧 玄氏家の 고문서 가운데 玄啓根의 것을 연도별로 정리한 바에 의하면, 그는 1763-1764년에 걸쳐 癸未 통신사행에 다녀온 후 英祖48년(1772) 47세때 正三品의 堂上官인 通政大夫가 되었으며, 正祖

20年(1796) 正二品 資憲大夫의 祿牌가 있어 70세까지 생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기록을 『譯科榜目』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다.

『譯科榜目』 卷一 74b

玄啓根 (乾隆丁卯 (1747) 式年 三等十一人)

字晦伯 內午生(1726) 本川寧 倭學敎誨 資憲知樞 初名敬躋 父譯判官漢

『海槎日記』의 기록을 통해 癸未 通信使行에서 三使가 상의하여 현계근, 유도홍으로 하여금 ‘倭語物名冊子’를厘正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未知可能作成書不也’라는 기록 때문에 지금까지는 玄啓根의 교정이 책으로 간행될 만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徐有榘가 正祖20년(1796)에 編纂한 『鏤板考』 卷第四 子部 上 112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서 玄啓根이 교정한 『倭語類解』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倭語類解 二卷

李朝司譯院官洪舜明撰 別錄事物名目 以日本語釋之 日本官名及通信行程道記
院官玄啓根重訂

司譯院藏印紙二牒十八張

따라서 『倭語類解』는 洪舜明이 편찬한 ‘倭語物名冊子’를 韓廷修가 수정한 목판본이 있었고, 전하지는 않으나 玄啓根이 重訂한 목판본이 또 하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영향

倭語類解는 司譯院 倭學에서 日本語 學習을 위하여 편찬한 역학서로서 朝鮮朝 후기의 왜학 역관들이 참고한 일본어 語彙集이다. 그러나 이 책은 반대로 수많은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에 사용되었다. 金澤庄三郎은 『倭語類解』를 해설하면서 이 책이 雨森芳洲의 『交隣須知』의 臺本이 되었다고 하였다. 小倉進平(1940 : 60)에서는 『交隣須知』가 雨森芳洲의 自著로 보기보다는 당시 對馬島의 朝鮮語 通事들이 편찬하여 사용하던 것을 雨森芳洲가 힘을 보태어 만든 것으로 보았다. 이 때에 그가 참고한 것은 韩廷修가 譬正하여 印刷한 국립도서관본이나 금택구장본의 ‘倭語類解’가 아니라 筆寫本으로

된 洪舜明의 ‘倭語物名冊子’일 것이다. 만일『交隣須知』가 洪舜明의 倭語物名을 藍本으로 한 것이라면 이를 통하여『倭語類解』의 祖本인 ‘倭語物名’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倭語類解(木版本) : 日本 駒澤大學 金澤文庫 所藏 (金澤舊藏本) (京都大學影印:1958)

① 圖書 解題 (정광 : 1988a ; 8)

上·下 2卷 2冊. 31×20.5cm (책 전체 크기)

字形이나 版式이 국립도서관본과 동일하고 誤刻 부분까지도 일치한다. 上卷에 目錄 1葉과 本文 56葉, 卷末에 卷頭의 목록과 동일한 것이 추가로 編綴되어 있다. 下卷에 目錄 1葉과 本文 54葉, 口訣 2葉, 伊呂波間音 1葉³⁴⁾이 있고, 卷尾에 訂整官, 書寫官, 監印官의 이름이 붙어 있다. 金澤舊藏本은 국립도서관본과 거의 일치하지만 上卷의 第 25, 26葉, 下卷의 第 41, 42, 48, 54葉 등 모두 6張이 筆寫되어 補綴되어 있다. 또 漢字로 쓴 口訣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 국립도서관본은 한자 아래에 써 넣었으나 이 책에서는 한자 옆에 逐字 형식으로 써 넣었다. 다만, 국립도서관본의 마지막에 筆寫되어 추가된 ‘爲邑巨等(흐읍거든)’은 金澤本과 같이 漢字 옆에 써 넣었다.

3.2.3.2. 和語類解 (筆寫本 : 京都大學 所藏 2卷 2冊; 太學社 影印 : 1988)

① 圖書 解題

上卷 40張 (17.6×26.4cm), 下卷 40張 (17.5×26.3cm).

下卷 77장부터 ‘斡旋口訣’이란 題下에 吏讀로 된 口訣과 그의 한글 표기가 있으며 마지막 第 80張에 ‘天保八年酉十月吉日寫之也 朴伊圓道存’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天保8年(1837년) 10월에 苗代川의 壬辰 被擄 朝鮮人 陶工의 後裔인 朴伊圓이 필사한 것을 알 수 있다.

② 필사 경위

임진왜란 때 일본의 薩摩藩에 끌려간 조선인들은 藩內 여기저기서 散在해 살다가 本國으로 刷還되지 못하고 苗代川에 합류하여 정착하게 된다. 이들은 도자기를 구워 바치고 논토를 얻어 생명을 부지해 갔는데 때로는 薩

摩藩에서 밀수를 하거나³⁵⁾ 풍랑에 표류해 온 조선인과의 접촉에서 通譯을 맡기도 하였다.³⁶⁾『倭語類解』는 日本 九洲의 薩摩에 끌려간 壬辰倭亂 때의 朝鮮 被擄人們의 국어 학습자료로 이용되었다. 이것은 薩摩 苗代川에 抑留되어 살아온 임진왜란 때의 朝鮮 被擄人们이 모국어 학습을 위해 筆寫한 것으로, 원래는 對馬島 朝鮮語學所에서 筆寫한 것을 苗代川의 朝鮮人 被擄人が 複寫한 것으로 보인다.

3.2.3.3. 日語類解 (活字本(1912) : 京都大學 安田章 教授 所藏. 京都大學 影印 : 1971)

① 편찬 동기

이 책은 金澤庄三郎이 자신이 購入하여 소장하고 있던 『倭語類解』를 藍本으로 하여 『和語類解』 등을 비교하고 약간의 일본어 교정을 가하여 약 3,000여 일본어 어휘를 각 문항별로 분류한 日本語 辭書이다. 따라서 체제나 分門配項이 『倭語類解』와 동일하다. 이 책은 明治 45년(1912)에 日本 東京에서 活字印刷로 간행되었다.

3.2.3.4. 倭語類解 冊板

(1) 鏤板考(正祖20년 ; 1796 徐有榘 편찬) 卷第四 子部 上 112의 기록

倭語類解 二卷

李朝司譯院官洪舜明撰 別錄事物名目 以日本語釋之 日本官名及通信行程道記 院官玄啓根重訂
司譯院藏印紙二牒十八張

(2)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倭語類解 冊板

版心書名 :倭語類解 : 冊板 번호 D-1001~D-1019

4. 結語

이상에서 임진왜란이후 조선 후기의 일본어의 교육과 관련된 제 사실들을 검토하고, 사역원의 譯書 가운데 왜학서로 알려진 문헌자료들을 서지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선 시대의 외국어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司譯院은 그 이전시 대로부터 갑오경장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고, 譯科의 실제적인 주체로서 소임을 다하였다. 뿐만아니라 四學을 두고 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교재의 편찬 및 역판의 선발에까지 관여하였다. 역판의 선발에 채택된 과시서들은, 초기에는 대부분 해당국의 소아용 훈몽교과서였으나 후기에는 사역원과 이에 관계를 맺고 있던 우수한 인재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그 가운데 일본어를 가르치는 데 사용된 왜학서로 『捷解新語』, 『倭語類解』, 『隣語大方』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은 현재 한국과 일본에 문헌으로, 혹은 목판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諸 資料들을 소개하고 상호간의 비교를 통하여 이들의 계보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어학적인 면의 비교는 후고를 기다린다.

갑오경장 이후에는 외국어 교육이 주로 근대식 외국어학교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자료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앞으로 천착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자료

1. 資 料

<刊 本>

●捷解新語類

捷解新語 : 初刊 校書館 鑄字本 (1676) : 서울대학교 奎章閣 所藏 10卷 10冊 (奎 1638, 1639), 京都大學 文學部 國語學國文學研究室 影印 (1974), 弘文閣 影印 (1990)

: 流布本 (整版本 : 1676) : 日本 對馬藩 宗家文庫 소장 10卷 3冊(卷1-4, 5-8, 9-10), 弘文閣 影印 (1990)

: 覆刻本 (木板本 : 1699) : 高麗大學 晚松文庫 所藏 第1冊(卷1-3)
: 李謙魯氏 山氣文庫 所藏 第2,3冊(卷4-7,8-10)

弘文閣 影印 (1990)

改修 捷解新語 : 校書館 鑄字本 (1748) : 프랑스 파리 동양어학교 所藏, 京都大學 文學部 國語學國文學研究室 影印 (1987), 太學社 影印 (1991)

第一次 改修本임 (洪啓禧 序, 崔壽仁 · 崔鶴齡 校正)

重刊 捷解新語 : 辛丑重刊覆刻本 (木板本 : 1781) : 서울대학교 奎章閣 所藏 12卷 12冊(奎3952), 京都大學 文學部 國語學國文學研究室 影印 (1964), 弘文閣 影印 (1990)

日本 駒澤大學 金澤文庫 소장 12卷 12冊 (金澤舊藏本으로 볼림)

第二次 改修本序 (李湛序)

捷解新語文釋 : 木板本 (刊年未詳) 12卷 4冊 (奎 1678), 弘文閣 影印 (1990)

● 隣語大方類

鄰語大方 : 木板本 (刊年未詳) : 서울대학교奎章閣所藏 10卷 5冊 (奎 1622),

日本 京都大學 文學部 國語學國文學研究室 影印 (1963)

太學社 影印 (1986)

: 日本 災足庵藏書六十一種 (金澤舊藏本)의 목록에도 있으나 확인하지
못했음.

訂正 隣語大方 : 日本 外務省藏版(活字本) 浦瀬裕 校正增補, 寶追繁勝 印刷 9卷 3冊
:『異本 隣語大方・交隣須知』京都大學 文學部 國語學國文學研究室 影印
(1968)

● 倭語類解類

倭語類解 : 木板本 (1780년대초) :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2卷 2冊 (古 00793), 太學
社 影印 (1988)

日本 駒澤大學 金澤文庫 소장 2卷 2冊 (金澤舊藏本), 京都大學 文學部
國語學國文學研究室 影印 (1958)

日語類解 : 金澤庄三郎 編 (活字本 : 1912) : 日本 京都大學 安田章 教授 所藏, 太學
社 影印 (1988)

<寫 本>

● 隣語大方類

鄰語大方 : 寫本 (1859 ?) : 京都大學 文學部 言語學研究室藏 4卷 2冊

'安政六年未神無月寫之朴平覺'이라는 識語가 있음. (苗代川本이라 볼립)

『異本 隣語大方・交隣須知』京都大學 文學部 國語學國文學研究室 影印
(1967)

鄰語大方 : 寫本 (??) : 東京教育大學 所藏 (9卷 1冊?)

『異本 隣語大方・交隣須知 補』京都大學 文學部 國語學國文學研究室
影印 (1969)

● 倭語類解類

和語類解 : 寫本 (1837 ?) : 京都大學 所藏 2卷 2冊

'天保八年酉十月吉日寫之也朴伊圓道存'이라는 識語가 있음. (苗代川本)

太學社 影印 (1988)

<冊 板>

改修 捷解新語 : 冊板 번호 D-1263 ~ D-1321,

重刊 捷解新語 : D-1765

捷解新語文釋 : D-1246 ~ D-1256

倭語類解 : D-1001 ~ D-1019

2. 目 錄

- 啓明大學校 中央圖書館 (1987) 『古書目錄』 대구 : 同圖書館.
-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1979) 『晚松金完燮文庫目錄』 서울 : 同圖書館.
- (1984) 『漢籍目錄』 고려대학교 장서목록 제18집. 서울 : 同圖書館.
- 高麗大學校 出版部 (1989) 『高麗大學校 博物館 創設 55周年 紀念 博物館 收藏品 目錄』
- 國立 中央圖書館 (1970) 『國立中央圖書館 古書目錄』 (1-4). 서울 : 同圖書館.
- 東國大學校 中央圖書館 (1962) 『古書目錄 集成』 서울 : 同圖書館.
- (1981) 『古書目錄』 서울 : 同圖書館.
- 서울大學校圖書館 (1981)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第I輯 (經部, 子部)』 서울 : 同圖書館.
- 서울大學校圖書館 (1983)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成均館大學校 中央圖書館 (1979) 『古書目錄』 서울 : 同圖書館.
-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1977) 『古書目錄』 서울 : 同圖書館.
- 嶺南大學校 中央圖書館 (1979) 『古書目錄』 대구 : 同圖書館.
- 李相殷 (1987) 『古書目錄』 서울 : 保景文化社.
- 鄭亨愚, 尹炳泰 共編 (1979) 『韓國冊板目錄總覽』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前間恭作 編 (1944) 『古鮮冊譜 (第三冊)』 東京 : 東洋文庫.

3. 其他 參考 資料

- 鏤板考. 徐有榘 編纂 (寶蓮閣 影印本 : 1968)
- 譯科榜目. 奎章閣 所藏 (民昌文化社 影印本 : 1990)
- 通文館志. 奎章閣 所藏 (景仁文化社 影印本 : 1973)

〈주〉

- 1) 여기서 '조선 후기'라 함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경술국치에 이르는 기간을 말한다.
- 2) 『경국대전』은 성종 16년(1485)에 편찬한 법전인데 법전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 가운데 있는 학교규제는 조선말까지 거의 그대로 사용되었다.
- 3) 明治27년(1894년) 6월 28일 문벌과 반상, 등급을 타파하며 귀천을 불구하고 가려 채용할 것.
- 4) 小倉進平(1964 : 11)에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어학교마다 교장이 있었고 독립한 학교로서 경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乙未年에 나온 勅令은 官制뿐이었으며 실제로 곧바로 운용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 5) 『世宗實錄』 卷 3, 世宗 元年 4月 庚寅.
- 6) 『世宗實錄』 卷 93, 世宗 23년 7월 丁未.
- 7) 『文宗實錄』 卷7, 文宗 元年 4월 乙亥.
- 8) 『成宗實錄』 卷 139, 成宗 13년 3월 己丑·癸巳.
- 9) 이성무(1994 : 164)에는 富山浦로 되어 있으나 釜山浦의 잘못으로 보인다.
- 10) 이홍렬(1967 : 336) 참조.
- 11) 式年試는 三年一試로서, 매 式年(子·卯·午·酉年)에 보는 시험이다. 식년시에는 生員·進士試의 初試·覆試, 문·무과의 초시·복시·殿試, 잡과의 초시·복시가 실시되었다. 처음에는 초시·복시·전시의 모든 시험을 식년 정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하였으나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농번기에 시풀의 수험생들이 빈번히 왕래하게 되어 농사에 지장을 준다고 하여 성종 3년(1472)부터 중국의 제도를 본따 초시를 上式年(식년 전 해)인 寅·巳·申·亥年 가을에, 복시와 전시는 식년인 子·卯·午·酉年 봄에 시행하게 되었다.
- 12) 別試 중의 增廣試은 새 왕이 즉위한 元年에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증광시는 태종 원년(1401)에 태종이 즉위할 때 처음 실시되었고, 고종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뒤에는 국가경사가 있을 때나 왕실의 경사가 겹칠 때도 실시하였다(이성무 : 1994 ; 211 참조).
- 13) 別試 중의 增廣試은 새 왕이 즉위한 元年에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증광시는 태종 원년(1401)에 태종이 즉위할 때 처음 실시되었고, 고종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뒤에는 국가경사가 있을 때나 왕실의 경사가 겹칠 때도 실시하였다(이성무 : 1994 ; 211 참조).
- 14) 『經國大典』 卷3, 禮典 雜科白牌式.
- 15) 이 표는 이성무(1994 : 170)의 일부를 가져온 것이다. 본 표에서 清學의 ‘理山’은 ‘楚山’으로, 韶학의 ‘鹽浦’는 ‘藍浦’로 되어 있으나, 인쇄상의 잘못으로 보인다.
- 16) 정광(1988b : 152-3) 참조.
- 17) 이 책의 저자는 ‘姜遇聖’이 아니라 ‘康遇聖’이며, 崔鶴齡이 수정한 개수본이 아니라 원간본의 복각본임.
- 18) 지금까지는 이 책이 활자본이라고 알려졌지만 미심쩍은 테가 있다. 우선 활자본과 목판본(번각본)을 구별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어미와 판심의 좌우선이 붙어 있는가인데, 이 책은 어느 하나도 어미와 판심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없다. 또, 匣郭의 네 모퉁이가 거의 대부분 붙어 있어서 목판본인가를 의심케 한다.
- 19) 이것은 실물을 직접 보지 못했고, 마이크로필름을 영인한 것이므로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없음.
- 20) 書名이 ‘改修 捷解新語’로 되어 있음.
- 21) 圖書解題에는 12卷 12冊이라 하였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10卷 12冊이 되어야 할 것 같다. 10卷이 上, 中, 下로 나뉘어서 3冊으로 되어 있지만, 卷數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22) 苛簡(구간) : 일을 간단히 해치워 일시에 미봉함.

- 23) 捐財(연재) : 재물을 냄.
- 24) 金相國에 대해서는 그동안 柏谷이라는 호를 가진 金得臣으로 알려졌으나, 시대상 맞지 않는다.
- 25) 2차 개수는 崔鶴齡이 주도하였는데, 그는 1차 개수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는 계속해서 『첩해신어』를 주시해 왔고, 1차 개수시에 미진했던 부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또한, 1차 개수 당시의 일본어는 ‘古代로부터 近代로의 과도기’에 해당하므로 매우 다양하여, 당대 일본어의 수용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일본어를 외국어로 하는 ‘諸譯’에게는 그 수용 정도가 같지 않았을 것이다. 개수에 참여한 역관도 9명이나 되므로 분담하여 교정을 보았어도 그 모두를 통괄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의 연소역관이었던 崔鶴齡이 2차 개수를 주도한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 26) 奎章閣本과 다른 活字本의 覆刻인 것 같음(어미와 판심의 좌우선이 떨어져 있음).
- 27) 이것은 ‘捷解新語’가 아니라 ‘捷解新話’라고 하는 항목에 있는 것인데, ‘捷解新語’의 잘못으로 보인다.
- 28) 1622는 奎章閣 도서 번호임.
- 29) 최기령은 역관 최수명(崔壽溟)의 아들로, 그의 큰 형 학령은 왜학교회 승록영부지추(僂學敎誨 崇祿永付知樞)이고, 작은 형 봉령(崔鳳齡)은 왜학교회 승록지추(僂學敎誨 崇祿知樞)로 칭찬한 역관 집안이다.
- 30) 흥윤표(1993 : 360)에 의하면, 우리 학자들에 의한 『隣語大方』의 연구는 단지 남기탁(1983) 및 흥윤표(1986)이 있을 뿐이다.
- 31) 원간본인지, 개수본인지, 중간본인지는 불분명하나, 표기법을 비교하면 중간본(1781)과 가장 가깝다.
- 32) 『長語』는 현전하지 않으나 그에 대한 기록이 M.Courant 의 『韓國書誌』(1894:111)에 있다. 160. 長語 이 책은 일본인 雨森東과 같이 일한 역관으로 字가 水鏡인 洪舜明에 의해 일본어 공부를 위해 18세기에 쓰였다. 『交隣須知』 서문에 따르면, 雨森東은 雨森芳洲라고도 불렸으며 對馬島의 宗으로부터 한국어 공부를 위한 책을 만들라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寳永(1704-1710)과 正德(1711-1710)년간 일했다. 그는 그 책의 제목을 『交隣須知』라고 붙였다.
- 33) 洪舜明은 小倉進平의 『朝鮮語學史』에서 朝鮮의 중요한 일본어학자로 소개된 인물로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洪舜明 : 肅宗경의 사람. 雨森芳洲와 私交. 韓日交流上 위대한 업적을 남김.
이를 譯科榜目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譯科榜目 (권 1.47a) ——(恩門 禮曹叅判 趙曠)
康熙乙酉式年(1705) 三等九人
字 水鏡 丁巳生(1677) 本南陽 僂學敎誨通政 (正3品)
萬載子
- 34) 이것은 국립도서관본과 다른 매우 중요한 점인데, 국립도서관본은 下卷의 ‘倭語

類解 終'이라는 卷尾書名 다음에 口訣만 2葉 부재되었지만, 금택구장본에는 추가로 이 '伊呂波間音'이 있고 版心의 葉數도 '倭語類解 下 三'까지 나타난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安田章(1986)에서는 金澤本을 완전한 것으로 보고 국립도서관본을 보조자료로 보았는데, 鄭光(1988a)에서는 이 伊呂波間音이 후일 추가된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伊呂波間音'이 있는 倭語類解 下 三葉은 완전히 득립된 張으로 半葉만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반엽은 빈 장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립도서관본은 口訣이 끝난 下卷 二葉에 이어 謐整官 등 諸臣의 術名이 기재된 마지막 葉이 편철된다. 따라서 金澤本에서 '伊呂波間音'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下 三葉의 남은 半葉에 伊呂波間音을 印刻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참고로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책판 속에 이 '伊呂波間音'이 倭語類解 책판으로 남아 있음을 밝혀둔다(책판 번호 D-1010).

- 35) 당시에는 對馬島를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서도 朝鮮과 무역할 수 없었다.
- 36) 당시에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對馬島에서만 朝鮮語 通辭를 양성하고 있었는데, 薩摩藩에서는 대마도에서 通辭를 초빙하기도 하였으나, 그들의 領地에 거주하는 苗代川의 조선인 도공들에게 朝鮮語를 교육하고 그 중에서 通辭를 발탁하여 藩土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때의 교육은 對馬島에서 초빙한 朝鮮語 교사가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 姜順愛『朝鮮 英祖朝의 圖書編纂 및 刊行에 관한 書誌的 考察』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1982)
- 姜信沆『李朝時代의 譯學政策과 譯學書』 서울 : 탑출판사. (1978)
- 金允植『鑄板考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78)
- 金炫榮 “조선 후기 中人의 家系와 經歷 一譯官 川寧 玄氏家 古文書의 分析—”『한국문화』 제8집. (1987)
- 柳鐸一『韓國文獻學研究』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89)
- 宋 敏 <司譯院 倭學書 研究>에 대한 論評. 『한국학의 과제와 전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沈鳴俊『日本訪書志』 성남 : 정신문화연구원. (1988)
- 安春根『韓國板本學』 서울 : 범우사. (1985)
- 尹炳泰『韓國書誌學概論 (稿 : 第二改正稿)』 韓國書誌情報學會. (1985)
- 尹炳泰『朝鮮 後期 活字 研究』 문학박사 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9)
- 이만규『조선교육사 I』 서울 : 기획출판 거름. (1947/1988)
- 이만규『조선교육사 II』 서울 : 기획출판 거름. (1949/1988)
- 李成茂 “朝鮮初期의 技術官과 그 地位”『惠庵柳洪烈博士華甲紀念論叢』 (1971)
- 李成茂『改正增補 韓國의 科學制度』 서울 : 집문당. (1994)

- 李元植 “朝鮮通信使に隨行した倭學譯官について－捷解新語の成立時期に關する確證を中心とする”『朝鮮學報』 제111호, (1984)
- 李元植『朝鮮通信使』 서울: 민음사, (1991)
- 李俊杰『朝鮮時代 日本과 書籍交流研究』 서울: 弘益齋, (1986)
- 李洪烈 “雜科試取에 對한 一考”『白山學報』 제3호 (1967)
- 李姬載 譯 Courant.『韓國書誌』 서울: 일조각, (1994)
- 林東錫『朝鮮譯學考』 臺灣 (1983)
- 鄭 光 “類解類 譯學書에 대하여”『國語學』 7, (1978)
- 鄭 光 “捷解新語의 成立時期에 관한 몇 문제”『牧泉 劉昌均博士還甲紀念論文集』 (1984)
- 鄭 光, 韓相權 “司譯院과 司譯院譯學書의 變遷 研究”『덕성여대논문집』 제14집, (1985)
- 鄭 光 “倭語類解의 成立과 문제점－一國立圖書館本과 金澤舊藏本과의 비교를 통하여－”『덕성여문학』 제4집, (1987)
- 鄭 光『諸本集成 倭語類解(解說, 國語索引, 本文影印)』 서울: 태학사, (1988a)
- 鄭 光『司譯院 倭學 研究』 서울: 태학사, (1988b)
- 鄭 光 “譯學書의 刊板에 대하여”『주시경학보』 제4집, (1989)
- 鄭 光, 安田章 共編『改修 捷解新語』 서울: 태학사, (1991)
- 鄭 光, 尹世英, 宋基中 “高麗大學校 博物館 所藏 司譯院 刑板”『省谷論叢』 23, (1992)
- 鄭丞惠 “捷解新語의 表記法에 대한 一考察”『제18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연구발표 논문 요지』 (1991)
- 鄭丞惠 “隣語大方의 成立과 刊行에 대하여”『덕성여문학』 제8집, (1995)
- 趙南德『捷解新語의 改修分析』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1994)
- 曹佐鎬『韓國科舉制度史 研究』 서울: 범우사, (1996)
- 趙學允 譯 三宅英利.『近世日本과 朝鮮通信使』 서울: 景仁文化社, (1994)
- 千惠鳳『書誌學 概論』 서울: 성균관대학교, (1983)
- 千惠鳳『韓國 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1a)
- 千惠鳳『韓國 書誌學 研究: 古山 千惠鳳教授 停年紀念選集』 서울: 삼성출판사, (1991b)
- 千惠鳳『韓國典籍印刷史』 서울: 범우사, (1991c)
- 千惠鳳『한국목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a)
- 千惠鳳『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b)
- 洪允杓 “近代國語의 表記法 研究”『民族文化研究』 (고려대) 19, (1986a)
- 洪允杓 “隣語大方 解題”韓國語學資料叢書 第4輯, (1986b)
- 洪允杓『國語史 文獻資料 研究』 [近代篇 I] 서울: 태학사, (1993)
- 洪允杓『근대 국어 연구 (I)』 서울: 태학사, (1994)
- Courant Maurice Bibliographie Coréenne. Paris: Ernest Leroux, éditeur, (1894)
- 李姬載 譯『韓國書誌』 서울: 일조각, (1994)
- Song, Ki Joong Mong O Yu hae —Categorical Explanation of Mongolian Language—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Inner Asian Altaic Studies,

Harvard University. (1978)

- 小倉進平（河野六郎 増訂補注）『朝鮮語學史』東京：刀江書院. (1964)
- 田代和生「對馬藩과 倭館貿易」『朝鮮通信使』서울：東湖書館. (1982)
- 濱田敦『朝鮮資料による 日本語 研究』東京：岩波書店. (1970)
- 三宅英利『近世アジアの日本と朝鮮半島』東京：朝日新聞社. (1993) 김세민외 譯『조선통
신사와 일본』서울：지성의 셈. (1996)
- 安田章『隣語大方』解題. 『隣語大方』京都大學文學部 國語學國文學研究室編 (1963)
- 安田章『朝鮮資料による 日本語 研究』(1970)
- 安田章『朝鮮資料と中世國語』東京：笠間書院. (1980)
- 安田章“改修捷解新語 解題”『改修 捷解新語』京都：京都大學. (1987)
- 安田章『外國資料と中世國語』東京：三省堂. (1990)

大阪市 生野区 定住 在日코리안 一世의 日本語 運用

—제주도 출신 1세를 중심으로—

金 美 善

Japanese Spoken by Korean Immigrants to Japan in IKUNO ward Osaka The Example of Informants from CHEJUDO

This study aims at catching the actual condition of language use of Korean immigrants to Japan in IKUNO ward of OSAKA with the result of interviews with informants in there.

IKUNO, a ward in Osaka, is a bilingual community where about forty thousand Koreans, a quarter of the total population of the ward, live and is a unique point of language contact. The Japanese the First-Generation Koreans speak is very unique. They speak, in general, two languages, Korean and the Japanese influenced by their mother tongue. As most of the Koreans had no Japanese educational background, they learned Japanese on their own in the community and created a unique variety of Japanes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reation of the variety is partly a result of a peculiarity of IKUNO, the most concentrated area of Korean immigrants in Japan, and partly of social condition surrounded them.

김 미 선 : 大阪大学日本学研究室

서론

현재, 일본에는 약 70만의 재일 코리안이 전국 각지에서 정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오사카시 이쿠노구(大阪市生野区)는 재일 코리안이 전인구 16만의 4분의 1인 약 4만을 차지하는 일본 최대의 재일 코리안 밀집 지역으로, 한국의 문화와 일본의 문화가 공존하는 이문화(異文化) 공존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쿠노구는, 한국어가 잠재적으로 공존하는 2언어 병용 지역이기도 하며, 한일 양언어 접촉에 의하여 발생된 독특한 일본어 즉, 일본어의 민족 방언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사회 언어학적으로 시사하는 점이 많은 특수한 지역이다.

이쿠노구에 한국의 문화적, 언어적 요소가 공존하기 시작한 것이, 일본이 한국에 행한 식민지 정책이라는 역사적 경위에 의해 일본에 뿌리를 내리게 된 1세에 의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착 이래 사용하는 1세의 일본어는 주위의 여러 요인에 의해 독자의 체계를 이루어온 1세의 역사와 함께하는 언어이다.

이러한 1세의 언어는 1세의 노령화와 함께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으며 기록 자체가 시급을 요하는 한일 양국의 사회 언어학적 과제이나, 종래의 사회 언어학적 연구는 2언어 병용 화자인 1세의 언어에 대해, 두 언어의 사용에 관한 의식 조사가 선행되어왔으며, 지역적, 사회적 환경을 토대로 한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바이다.

본고는, 특수한 문화, 언어 지역안에서 생활하는 재일 코리안 1세의 언어 행동의 실태의 해명을 위한 초보적인 기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의 독자적인 체계와 발생에 대해, 모어와 이쿠노구의 지역적, 사회적 환경 등, 외적 요인에 주목하여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1. 이쿠노구와 1세의 개요

1.1 내일과 정착의 배경

1세의 내일의 역사적 배경은, 강제 연행, 돈벌이 등이 주된 요인이나, 이쿠노의 경우, 주로 돈벌이와 선착자와의 연결에 의한 도항이 대부분이었다. 저임금의 노동력이 대량으로 필요했던 지역의 산업 구조¹⁾와 조국의 궁핍했던 경제사정이 시기적으로 일치했던 점이 이쿠노에 밀집하게 된 주된 요인

이라 할 수 있다.

본적지별로 보면, 한국의 최남단에 위치하는 제주도 출신자가 전체의 약 4분의 3을 차지한다²⁾. 제주도민의 도항은 한때, 도민의 4분의 1에 달하였으며,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15세부터 40세의 대부분은 일본에 도항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³⁾.

제주도민의 집단적인 내일과 결속은 이쿠노구에 새로운 제주도 커뮤니티를 형성하였으며, 이점 이쿠노구는 일본의 제주도라 불리워질 만큼 제주도의 문화적, 언어적 요소가 강하게 투영된 지역이기도 하다.

1.2 일본어 습득

노동이 가능한 연령 즉, 제1언어 체계의 습득이 완성된 연령에 돈벌이를 목적으로 내일한 1세가 직면한 문제는, 이국에서의 생활을 위한 일본어의 습득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절박한 생활과 정착의 과정에서, 대부분은 학교 교육을 통한 학습경험이 없이 생활속에서 주위로부터의 정보에 의해 일본어를 습득한 자연 습득자들로 대부분이 문자를 습득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언어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는 선착자가 일본어 습득의 주된 정보의 제공자이었으며, 정착 지역의 산업 구조로 인한, 즉, 가족단위의 소수영세 제조업에 종사하는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의 습득 과정을 공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착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일본어의 습득 상황, 동모어 화자의 밀접은 1세 독자의 언어 체계의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 조사지역 및 자료에 대해

본고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이하의 방법으로 수집한 것이다.

一. 관찰 조사: 1세들이 모이는 공원이나 시장에서 1세간의 회화를 기록하였다.

공원은 1세들에게는 야외 경로당 적인 장소로, 하루에 많이는 30~40명 정도의 1세 남성들이 모여 장기 화투등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시장은 현재 코리아 타운이라 불리는 조센 이치바로 통하는 곳으로, 1세들에 의해 형성된 재일 코리안의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다. 주로 2세 이 후의 세대에게 계승되어 있으나, 1세 여성들이 간이 판매대를 개설하여 영세적으로 한국(주로 제주도)의 어물 채소등을 파는 모습이 눈에 띈다.

二. 자택 방문 조사: 1세의 자택에 방문하여 1세와의 회화를 녹음, 문자화하였다.

회화의 내용은 내일의 경위, 정착의 과정등 1세가 발화하기 쉬운 내용으로 하였으며, 양 언어의 선택은 어느쪽의 언어도 지정하지 않았다. 자택 방문 조사는 지인인 3세의 도움으로 가능했으며 발화의 유도, 문자화 작업에 참가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자택 방문 자료의 인포먼트의 속성은 이하와 같다.

表 1. 인포먼트의 속성 (1세의 내성(기억)에 의해 작성)

	HI	YA	KO	SA	KI	SI
性 别	男	男	女	女	女	女
年 齡	85	80	81	59	85	72
居住地	巽南	中川	巽北	巽北	田島	巽北
出身地	濟州島	濟州島	濟州島	濟州島	濟州島	濟州島
来日年	1927	1943	1929	1966	1930	1946
정착 당시의 직업	인쇄공	미싱공	미싱공	미싱공	미싱공	금속가공

조사 기간 : 1996~1997년

녹음 시간 : 1명당 90분~120분

이하, 담화예의 앞 부분에 화자의 [이니셜] 을, 공원, 시장에서 얻은 담화예에는 [공원], [시장] 으로 표시한다.

구체적인 담화예는 표음적 カタカナ로 하며, 일본어 대역을 담화예 밑에 추가하였으나 표준어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방언적 요소를 중시하며, 특히, 문말 표현은 1세의 표현 용법을 중시하기로 한다.

3. 1세 언어의 전체적 특징

어느 자료에서나 회화의 흐름은 일본어가 중심이 되어 있다.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길은 탓도 있겠으나 1세의 내성에 의하면, 일본어의 능력 여부가 자부심의 표명이 되기도 하며, 컴프렉스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한일어 병용 화자인 1세의 언어 코드는 당연히 1)한국어, 2)일본어 2언어 임이 틀림이 없지만, 조금 더 코드의 개념을 분화한다면, 1세의 언어 코드는 하나가 더 부가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즉, 한국어와 일본어의 3)혼용체(code-mixing)의 존재이다.

1) 한국어는 이미 조국에서 모어로 습득한 제 1언어로서, 염밀히는 제주도 방언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같이 교육이나 메스미디어를 통한 표준어 체계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 시기에 내일한 1세가 주로 사용하는 한국어는 현재 제주도에서도 소실 위기에 놓여있는 제주도 전통 방언으로 이쿠노구의 제주도 방언은 음운 형태 어휘의 전반에 걸쳐, 내일 당시의 방언형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음이 관찰된다.

2) 일본어는 1세에게 있어서 제2언어로 습득한 언어이다. 일본어의 경우도 교육의 경험에 없는 1세에게는 표준어와의 전환이 어렵고,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생활 안에서 습득한 오사카 방언(관서변)으로 음운, 통어, 어휘의 전반에서 제 1언어 체계의 영향 즉, 모어의 간섭(interference)이 관찰되며, 일반 학습자의 초기의 단계에서 보이는 현상이 화석화(fossilization)되어 있음이 관찰된다.

문체(style)는 일관적으로 보통체(반말체)의 사용이 관찰된다. 정착 이후 공적인 장면에 접할 기회가 적었던 것이 반영되어, 정중형의 습득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중형의 사용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서 정중한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며, 형식이 아닌 다른 방법, 예를들면, 통어적 수단, 인터네이션등으로 정중도를 표출하고 있으나, 일본어 모어 화자에게 정중도가 낮게 평가 되기 쉽다.

3) 한일 양 언어는 주로 장면이나 상대의 언어에 의해 구분 사용되나, 반드시 양 언어가 장면이나 상대에 의해 구분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모어 화자인 1세간의 회화 중에도 일본어와 한국어가 자유자재로 섞여 사용되며, 양 언어(양 방언)의 지식이 없이는 1세 언어를 이해하기가 다소 곤란하다. 이러한 1세에 양 언어의 혼용은 [짬뽕말]로 이쿠노구 주변에서 속칭되기도 한다.

일본어를 베이스로 한 회화에 사용되는 한국어의 내용을 보면, 주로 친족 명칭, 음식 용어, 의식 용어등 일본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 문화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 감정 표현에 사용되는 어휘인 감탄사·부사류·욕설등 성향

성 어휘, 또는 추상 개념을 나타내는 한자어나 구체적인 의견을 발화할 때, 적절한 일본어가 발화내의 시간적 범위내에서 떠오르지 않아 사용하는 임시적 어휘동이 있다. 이 양 언어의 혼용은 가정내에서 무의식중에 사용되고 있으며, 1세의 혼용에 쓰여진 방언형이 일본어 모어 화자인 2세이후의 직계 세대에게도, 단편적으로 계승되어 있음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하는 인포먼트 전원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항목을 대상으로, 담화 자료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4. 자료의 분석

4.1. 음운

4.1.1.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운 대비

일본어 음운 구조의 변별적 특징은 파열 파찰음 계열에서 청음/탁음이라 불리는 유성(有聲) 무성(無聲)의 대립과, 모음으로 음절이 끝나는 개음절, 모라 음소로 일컫는 장단의 구별이 엄격한 음절 구조인 반면, 한국어는 평음/격음/농음이라 불리는 유기(有氣) 무기(無氣)의 대립이 의미 변별을 결정하는 요소로, 유성/무성은 의미 변별에 무관한 전후의 환경에 의한 이음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개음절 이외에 자음으로 음절이 끝나는(폐음절) 음절 구조와, 장단의 구별이 의미 변별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 음절 구조라는 점이 양 언어의 음운 구조의 대표적인 상이 점이라 할 수 있다.

양 언어의 음운 구조의 상이 점으로 인한 모어의 간섭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나⁴⁾, 실제로 1세의 발음에는 최근에 들어서 일본어를 습득 중인 한국어 모어 화자와는 상이한 현상이 눈에 띄기도 한다. 이 점을 확인하여 자료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4.1.2. 현상

—일반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음 대용—

①어두⁵⁾ 유성음의 무성음화 (어두 탁음의 청음화)

- ゴム [gomu] > [komu] コム
- 時間 [dʒikan] > [tjikan] チカン

②어중 무성음의 유성음화 (어중 청음의 탁음화)

· 私 [watafī] > [wadafī] ワダシ

· 人 [hito] > [hido] ヒド

위의 ①, ②의 현상은 파열음, 파찰음에 현저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모어의 음운체계의 간섭에 의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한국어 모어 화자의 공통된 항목이기도 하다.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음운 체계에는 어두에 파열음, 파찰음계의 유성 자음이 올수없으며, 무성 자음이 유성음 사이에서 는 유성음으로 동화 된다. 이로 인해 일본어의 유성/무성의 대립은 1세에게 는 무의미하며, 일본어의 파열음이나 파찰음의 유성음이나 무성음은 모어의 음운 규칙에 의해, 별개 음운으로 구별되지 않는, 전후의 환경에 의한 이음에 지나지 않는다.

③촉음 삽입

· 來た [kita] > [kitta] キッタ

· お父さん [oto:saN] > [ottosan] オットサン

이 문제는 어중의 무성음을 발음하는 과정에서, 파열음, 파찰음의 생성 전에 성문 폐쇄를 일으켜, 모어의 농음으로써 어중의 무성음을 발음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무성자음 전의 성문 폐쇄의 지속이 길게 되어, 일본어의 촉음으로써 일본어 모어 화자에게 의식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촉음/Q/과 발음(撥音/N/)의 지속 시간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관찰되기도 한다. 촉음(促音), 발음(撥音)이 음절말 자음으로 인지되어, 반침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1세의 발음에 있어서 어중의 무성음은 유성화와 촉음 삽입으로 발음되나, 양자가 별별적으로 가능하지는 않는듯 하다.

④장음의 단음화

· 忙しい [isogafī] > [isogafī] イソガシ

· 登錄 [torokku] > [torokku] トロク

한국어의 장음 단음이 의미 변별에 제약되지 않는 요소인 것이 일본어의 발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일본어의 모음의 지속 시간(박)이 유지되지 않는 것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볼수있다.

⑤어중의 /h/ 탈락

· 日本 [nihon] > [nion]ニオン

- 鶴橋 [tsuruwhasi] > [surasi] スラシ

위의 현상은, 한국어의 어중의 /h/가 유성음 사이에서 탈락하는 규칙의 영향으로, 용례중 이쿠노구의 지명인 つるはし [tsuruwhasi]의 경우, /h/의 유성음간의 탈락이 [surasi]의 과정을 거쳐 [surasi]로 변형하여 음절의 축약 현상을 보이고 있다. [ts]가 [s]화 하는 현상은 후술하기로 한다.

이상의 현상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음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음운 간섭 현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점이기도 하나, 이하와 같은 1세 특유의 음운적 특징이 관찰 되기도 한다. 요인 분석이 가능한 현상도 있으나, 분명치 않은 현상도 있다.

—일반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른 음 대용—

⑥어두 /r/의 /n/화, 탈락

- 旅行 [rjoko] > [joko] ヨコ
- 冷麵 [re:meN] > [nemen] ネメン

한국어의 음운 구조에는 어두/r/이 없음이 반영되어, 어두의 /r/이 모어의 음운 규칙대로, 모음/i/, /j/의 앞에서는 탈락하고, 다른 모음 앞에서는 /n/가 대용되고 있다.

영어 교육이나 외래어의 보급으로 최근의 젊은이에 있어서 어두의 /r/발음은 그다지 곤란하지 않게 되었지만, 영어 교육이나 외래어와의 접촉이 없는 1세에 있어서 어두의 /r/ 발음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⑦サ행 요음의 직음화

- 社長 [satʃor] > [satʃo] サチョ
- 終戦 [ʃusse:N] > [susse:N] スーセン
- 昭和 [ʃowa] > [sowa] ソワ

이 항복도 한국어의 음운 규칙에 의한 간섭의 형태로, 한국어의 음운 체계에 있어서 /ʃ/가 후접 가능한 모음은 /i/뿐이다. 그로 인해, サ行拗音 [ʃa, ʃu, ʃo]의 발음이 모어의 음운 규칙대로 [sa, su, so]로 발음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세뿐 만이 아니라 본국의 노년층에게도 용이하게 관찰 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젊은 세대는 ⑥과 마찬가지로, 영어 교육, 외래어 등의 보급에 의해 일본어를 습득할 때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항복이다.

⑧어두 유성음의 비음화

/d/ > /n/, /b/ > /m/

- 電話 [deNwa] > [neŋwa] ネンワ
- どれ [dore] > [nore] ノレ
- べっぴん [beppiN] > [meppin] メッピン
- びっくり [bikkuri] > [mikkuri] ミックリ

위의 현상은 ①의 어두 과열 유성음이 무성음화 하는 현상과는 달리 /d/ 가 /n/으로, /b/가 /m/으로 대용된 경우이다.

문자의 습득이 없이 청각적인 정보만으로 조음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유성음간의 조음점이 유사함으로 인한 음가의 혼동과, 보다 근본적인 주위의 일본어 모어 화자의 발음에 보이는 /d/와 /n/, /b/와 /m/의 혼동의 가능성⁶⁾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구체적인 고찰을 요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한편, 일본어의 문자를 기본적으로 습득한 일반 학습자는 문자로부터 표음성을 인지하여 발음하므로, 일본어의 /d/, /b/는 한국어의 평음(ㄷ), (ㅂ)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어두에는 평음을 대용하여 /t/, /p/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⑨つ/cu/ > す/su/

- 辛い [tsurai] > [surai] スライ
- 靴 [kutsui] > [kutsu] クス

⑩ず, づ/zu/ > す/su/

- ずっと [dzuiQto] > [suitto] スット
- 恥ずかしい [hazukashii] > [hasukashi] ハスカシ

⑨와 ⑩의 つ[tsui], ず/づ[dzui]의 음은 양 쪽다 한국어의 음운에는 없는 것이다. 모어의 음운에서 재생 가능한 것은 つ[tsui]의 경우, [tʃui], [sui]가 있지만, 일세의 경우에는 일관적으로 [sui]가 대용되는 것이 관찰된다. ず, づ[dzui]의 경우는 어두 [tʃui], 어중 [dʒui]으로써 대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음 특징이나,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세의 발음은 [sui]만으로 대용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⑧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요인에 관하여는 아직 단언할 수 없으나 같은 모어 화자인 학습자와 1세의 대용의 차가 현저한 항목이기도 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1세의 음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 2. 1세의 음운 체계 (자음중심)

	標準体系	1세의 경향
破裂音	p t k 語頭 p t k 語中 b d g	
	b d g 語頭 (p,m)(t,n) k 語中 b d g	
摩擦音	ʃ 語頭 h 語中 脱落	s (ʃi제외)
	h 語頭 h 語中 脱落	
破擦音	ts dʒ/z	s w앞 s 타모음 앞 語頭 tʃ 語中 dʒ
	r 語頭 r 語中 r	脱落, n

特殊音素 N, T, R : 변별기능 결여

이상의 음운표는 1세의 음운중 자음과 음절을 대상으로 정리한것이나, 개별적인 언어 내적 분석이 아직 행하여 지지 않은 상태 이므로 체계로 볼 단계는 아직 이론듯 하다.

이상의 분석한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하여 관찰하면, 일본어의 す [su], つ [tsu], づ, づ [dzu/zu]의 음절 단위에 있어서의 과소 변별 (under differentiation)이 관찰된다. 전술한 항목과 더불어 이쿠노 1세의 발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1세 와의 접촉이 전혀 없는 일본어 모어 화자에게 있어서 의미 파악에 곤란을 주는 1세 특유의 발음 이기도 하다.

4.2. 어법

1세 언어의 어법을 관찰하면, 한국어의 통어 구조에 일본어의 형태소를 교체하는 통어 구조가 눈에 띈다. 모어의 구조와 일본어의 구조를 동일시함으로 인한 모어의 간접체계로, 그 단계에서 복잡한 형식상의 구조가 간략화하는 결과가 관찰된다. 한편, 보다 섬세한 표현을 표출하기 위해 모어의 형식을 도입하는 독자적인 체계도 관찰된다. 사용자에게는 표준적인 일본어로부터 일탈되어 있음이 거의 의식되지 않은채 사용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용자와 사회적 폐쇄성에 의해 거부감없이 정착된 표현 용법이다. 이하, 형식의 간략화와 모어의 도입에 의한 의미의 파생 용법에 중점을 두어 고찰해 나가기로 한다.

4.2.1. 「-하다」를 기반으로 한 파생구

동사 연용형 + 하다

a) 動詞連用形 + する

① YA : アマリ ハナシセーヘンネ、 ユメミルドキワ。

〈あまり話ししないの、夢を見る（寝ている）時は。〉

② HI : サイシュドで オカネ キメシテ キタワケヤ。ミンナ。

〈済州島で日本に渡航する金額を決めて来たわけや、みんな。〉

③ YA : 「オドチャン, アンマリ シンパイセントッテ, カンガエシマス」ツ
テ, ソダカラホッタラカスワケヤ。

〈(息子が)「お父ちゃん, あんまり心配しないで, 考えます」って, そ
うだからほったらかすわけや。〉

④ SA : 「ナンデ, ソドイクノ, コッチデ ハダラキセ」ユーカラ, マーシ
ガタガナイナ, オモッテ。

〈(姉が)「なんで日本に行くの, こっちで働け」言うから, まー, 仕方
がないなと思って。〉

b) 名詞+する

⑤ SA : …ソーシテ, ヤキモチシタリ, ケンカシタリシテルミタイヤネン。

〈…そうして, やきもちをやいたり喧嘩したりしているみたいやねん。〉

⑥ HI : ソンナ, チョダンシタラ, ケンカナルキマッテルヤンケ。

〈そんな冗談を言つたら, 喧嘩になるに決まっているじやないか。〉

이상의 예는, 1세의 발화에서 보이는 동사의 형태로, 어구성/활용의 방법
이, 표준적인 일본어 동사의 형식으로부터 일탈되어 있음을 알수있다.

이러한 일탈은, 이하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본어의 「-する」에 상
응하는 한국어의 「-하다」의 통어적 유사성에 의한 양언어의 동일시에
의함으로, 한국어의 「-하다」의 통어 기능은, 일본어의 「-する」와 같
이, 본동사의 기능 이외에 보조 동사로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등에 후접
하여 앞의 성분을 동사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表3. 「-する」와 「-하다」의 통어 구조

種類	日本語	韓国語
漢語	運動・する	運動・하다
外来語	シャンプー・する	샴푸・하다

따라서, 위의 용례들은 ①話し+する→말하다, ②決め+する→정하다, ③考え+する→생각하다, ④働き+する→일하다, ⑤焼き餅+する→질투하다, ⑥冗談+する→농담하다와 같이 한국어의 「하다 동사」와 정확히 대응하는 전이(transfer)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する」의 접속이 「하다 동사」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이하와 같이 「하다 동사」로 대응할 수 없는 사용에도 보인다.

⑦ SI : オモチャデモ カゴ ミックスモヨッスモ オーキナカゴデコーテ トニカク オモチャデ アソビサスオモッテ。

〈おもちゃでもカゴ(箱?)で三つも四つも、大きなカゴで買って、とにかくおもちゃで遊ばせようと思って。〉

⑧ YA : ミンダン ハイッテ オドリスルシ, コトバモ ペンキョスルカラウレシイネ。

〈民団(青年団体)に参加して、踊るし(民族舞踊を習うし)言葉も勉強する(韓国語も習う)から嬉しいね。〉

⑨ KO : ウン, ウン, テレビシタトキワ ミル。

〈うん, うん, (韓国の映画が)テレビにでたときは見る。〉

⑩ SI : トモダチ ミンナ ダイガクシタコ バカリヤ。

〈友達はみんな大学を出た人ばかりや。〉

⑪ SI : マタ チシンスルカラナ, スプレタラナオス, ユッテ…。

〈(主人が)「また、地震が起こるから、(家が)潰れたら建て直す」と言って…。〉

위의 예는 「-하다」와 「-하는」의 동일사 과정에서 파생한 유추형으로, 동사의 연용형을 독립한 단어(명사적 성분)로써 분리함으로 「-하다」와 같은 기능의 「-하는」가 자유롭게 대용하는 유추가 가능한 것이다.

이 전이와 유추에 의한 「-하는」의 사용 확대는 결과적으로는 1세의 동사 활용 체계의 간략화로써 파악할 수 있다. 용례를 살펴보면, 동사의 연용형에 후접하는 경우, 동사 활용 전반이 「-하는」에 통합되어 복잡한

동사의 활용 형식 및 음편이 일원화 되어 있음을 알수있다. 즉, 「-する」가 동사 활용의 어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명사에 후접하는 경우는, 명사와 짹이되는 동사(ヤク, イウ, テル, オコル)등의 동사를 대신하는 형태소로 대용되어 격조사의 생략과 함께 동사의 「연용형+する」와 같은 어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수있다. 이 경우도 「-する」가 활용 어미적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4.2.2. 授与動詞「やる・くれる」의 의미 통합

(재일코리안의 젊은이들에게 필자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일에 대해)

- ① YA : …ソレデ, カンゴクゴ, カンゴクネキシ, マー, ワダシラ オシエデヤッタラ, アレ, ウレシイヨ, ホンマニ。

〈…それで、韓国語、韓国の歴史を私に教えてくれたら、嬉しいよ。本当に。〉

(외국인 등록증을 교부 받게된 경위에 대하여)

- ② SA : ケッキョク ソノカネモナ, アノ, ノクネンスンデタラ, ソノカネモ ダシテヤッテ, トロクモ クレタシヤ。

〈結局、そのお金（保借金）も、六年過ぎたら、その保借金も返還してくれて、外国人登録もくれたんや。〉

(장난감을 서로 빼앗고 있는 손자들에게)

- ③ SA : それ、早く○○にクレ！

〈それ、早く○○にあげなさい！〉

(이전의 같은 직장의 동료의 사진을 보며)

- ④ HI : アノヒドワ インサスノソクニンヤ。アレモー, シンデカラ ワシリラ 제주도イッテ ウメテクレテンネン。

〈その人は、印刷の職人や。死んで 私たちが濟州島へ行って葬式してあげたよ。〉

(정착 당시의 이웃 처녀의 고생담에 대하여)

- ⑤ SAI : 「ネーチャン, 웃이 없어 ナンギシテマス」ユーカラ, 「개벤, ウチノムスメ イッカイダケ결처난 フク アルカラクレルワ」ユッテ…。
〈近所の女の子が「ねーちゃん、着るもののがなくて苦労しています」と

言うから、「そしたら、うちの娘が一回しか着ていない服があるからあげるわ」ゆつて…。>

위의 용례는 「くれる」로 해야 할 부분이 「あげる」가 대용되어 있으며 (①, ②前), 「あげる」로 해야 할 부분이 「くれる」(②後, ③, ④, ⑤)로 대용된 예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요인은 양 언어의 수여동사의 의미 체계의 차에 의한 모어의 간섭에 의한 것으로써, 양언어의 수여동사의 의미적 차는 이하와 같다.

表4. 양 언어의 수여 동사의 의미차

日本語			韓國語
やる	くれる	→	주다
もらう		→	받다

위와 같이, 일본어에는, 화자의 입장과 방향성에 의해, 「やる・くれる」의 두 가지 의미소로 구분되어 있지만, 한국어에는 방향성에 대한 대립이 없이, 「주다」로 포괄되어, 일본어보다 체계상으로 단순하다고 할수있다.

용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세에게 수여 동사의 개념은 방향성과 관련이 없는 모어에 기반을 둔 일원적인 것으로, 일본어의 「やる」・「あげる」가 문체에 관련된 동의어인 것처럼, 「주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로써 「やる・くれる」는 동일한 의미(동의어)로써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음이 짐작된다. ②의 경우, 「やる」와 「くれる」가 동일한 입장의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모두 사용되고 있음은 양 어휘가 의미의 변별적 형태소로 사용되지 않는 근거가 되는 용례라 하겠다.

일본어의 수여 동사 체계의 불완전 습득과, 모어의 의미 용법이 일본어의 발화에 그대로 적용된 어휘의 의미 통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어법에 관한 두 항목은 1세의 습득 환경에 의하여 자연히 발생한 형식으로 모어의 구조와 일본어의 구조를 동일시함으로 인한 간섭 형태로, 결과적으로는 동사의 활용 체계와 어휘의 습득등 일본어의 복잡한 형식의 습득 부담을 경감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4.2.3. 모방언 [-게] 의 문말 첨가

1세의 일본어 회화를 관찰하면, 문말에 주변의 일본어 문말사로는 생각할 수 없는 [-ヶ]의 사용이 눈에띈다. ④이하의 용례들로, 일본어의 문말사에 후접하여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ヶ]의 사용은 확실한 의미기능을 갖추어 체계화되어 있음이 특이한 사항이다.

이 [-ヶ]는 제주도 특유의 방언 문말사로, 1세 특유의 한일 양언어의 혼용체라 할수있다. 이하, 제주도 방언에 의한 [-게]의 사용 용례들을 참고로 제시한다.

- | | |
|-------------------|---------------|
| ① 公園 : 이거 먹어봄서/게. | 〈これ食べてみなさい#。〉 |
| ② KI : 맏수다/게. | 〈そうだ#。〉 |
| ③ KI : 글은 모른다/게. | 〈文字は知らない#。〉 |
- # : 強調

위의 용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주도 방언 문말사 [-게]는 문말에 부가되어,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가의 의무성은 없고, 화자의 전달 의도에 의해 부가되는 수의적인 성분이다. 여기서의 전달 의도는, 순간적인 화자의 심경이나 상대에 대한 기분, 장면의 상황에 의해 성립되며, 그에 따라 부가가 결정되어 진다.

모어의 용법과 같이, 일본어의 문말에 첨가될 경우에도 여러가지 의미 기능을 파생시키고 있으며, 일본어의 간투성 문말사(종조사)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하는, 일본어의 문말에 혼용된 [-ヶ]의 사용례로, 본고에서는 [-ヶ]의 부가에 의해 얻어지는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기로 한다.

4.2.3.1. 명령 표현에 사용되는 경우

- ④ 公園 : 아이고 ! ハヤク トメナゲ, トメナ~~ゲ~~。 (早く止めなさい。)
- ⑤ 市場 : 아이고 ! ナニイウ。 ハヤクタベナ~~ゲ~~。 (何を遠慮しているの、早く食べなさい。)
- ⑥ SI : チカイドコヤカラ タマニ アソビニオイデナ~~ゲ~~。
(近所に住んでいるからたまに遊びに来なさい。)
- ④, ⑤, ⑥,은 명령 표현에 [-게]가 첨가된 용법으로, [-게]를 접속함으로

명령 표현을 더욱 강조하거나 일차적으로 발화한 명령의 재촉을 요구하는, 즉, 상대방의 행동을 촉구하는 용법이 된다. 상황에 의해 파생되는 의미 내용을 보면, ④, ⑤는 양자 모두 행동을 재촉하는 용법으로, ④는 [멈추다]라는 행위의 명령과 함께, 상대에 대한 주의 환기를 요구하는 용법으로써 사용되고, ⑤의 경우는 [먹다]라는 행위에 대한 상대에의 강한 배려 표현으로, [-게]가 사용됨으로 명령 표현에 가까운 의미를 띠고 있다. 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요구하는 행동의 재촉이 경우에 따라서는 비난으로 전달될 정도로 강한 배려가 된다. ⑤, ⑥과 같은, 행위에 대한 이익이 상대에 향해 있다고 화자가 판단할 경우에는, 상대가 실현해야 할 행위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일종 강하게 전달되는 수단으로 [-게]가 사용되고 있으며, 화자의 요구(⑤먹으라는 권리의 명령), (⑥우리 집에 놀러오라는 권리의 명령)가 말뿐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절실히 원하고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친근감 표명의 용법이 되기도 한다.

4.2.3.2. 서술 표현에 사용되는 경우

상술한 명령 표현에 사용되는 [-게]의 기능이 상대의 행동의 실현을 촉구하는 행동의 재촉 용법이라고 한다면, 아래의 서술 표현에 사용되는 용법은 상대에 대한 개인식을 요구하는 인식의 재촉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⑦ HI : フダリヤ。アネオッタケド アネ シンデシモタヤゲ。

〈兄弟は）二人や。姉がおったけど、姉は死んでしまった。〉

⑧ 公園：ナンデ ソレ クウネゲ。ソレクッテモ イミナイネゲ。

〈なんでそれ取るの、それを取ってもむだだ。〉

⑨ KI : ヒドノワルグチ イウ ヒスヨ ナイネゲ。

〈人の悪口を言う必要がない。〉

용례 ⑦은, 이미 전달한 발화내용이 상대에게 인식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표명과, 그로 인한 상대에의 비난, 재확인의 요구가 [-게]에 의해 전달된 용법이다. ⑧의 경우는, 상대의 행동이 화자에게 마이너스로 평가되어, 상대방에게 비난의 마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행동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미로 확대된 용법이며, 마찬가지로 ⑨의 경우도, 화자의 판단(남의 혐담을 할 필요가 없다)이 [-게]에 의해서 강조되어, 그 행위에 대한 비난의 의미로

사용된 용례이다.

⑩ HI: ソーヤゲ、オマエモ ミタヤロー？

〈そーだ、お前もみたやろ?〉

⑪ 市場: オネチャンノ ムシメヤケド ホンマニ キレイヤゲ。

〈姉の娘やけど本当にきれいや。〉

이상의 표현에서 보이는 [-게]의 용법은 ⑩의 경우, 이미 발화된 정보가 상대와 일치한 것에 대한 확인과, 그것에 대한 과장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⑪의 경우는, ⑩의 내용과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화에 있어서 화자의 판단을 더욱 과장함과 동시에,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는 전달 의지를 [-게]를 첨가함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말의 [-게]는, 서술한 내용을 더욱 강하게 전달하며, 동시에 전달 내용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에 의해 결과적으로는 화자가 그 자리에서 효과를 확인하는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부가적 용법으로, 회화의 상황과 화자의 의도, 상대와의 관계등이 주된 사용 변수가 되는 듯 하다. 또한, 화자의 성향에 의한 사용 변수도 생각된다.

4.2.3.4. [-게]의 사용 장면과 사용 효과

1세의 일본어의 문말에 사용되는 [-게]는 주로, 가족과의 언쟁, 공원에서의 장기장면, 또는 논쟁이 진전되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때 등, 격한 감정 표현이 노출될 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효과를 의도한 사용이라 할 수 있다.

[-게]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얻어지는 표현 효과를, 이미 제시한 담화례에서 고찰하면 이하의 두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우선, 모어로써의 [-게]의 표현 용법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1세에게, 일본어의 형식이나 표현 용법이 모어와 일치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심리적인 부담과, 습득이 충분치 않은 일본어로는, 모어와 같은 섬세한 감정적 전달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게]를 사용함으로 해소하고 있음이다. 모어의 감정적 표현을 나타내는 형식을 제 2언어에 혼용하여 심리적 부담을 해소 하는 용법으로 사용함은, 1세뿐이 아니라 모어와 제 2언어의 습득 시기와 습득양이 다른 복합형 바이링걸의 공통된 현상 일 것이다.

다음으로, [-계]를 사용함으로써, 서술을 강화하기 위한 수식 성분이 모두 문말에 집중하는 것, 또, 다른 서술 내용의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 형식이 [-계]의 사용에 의해 생략되어지는 통어론, 어용론적 간략화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계]와 같은 문말사가 없는 서울방언 화자가 일본어로 서술의 강화를 의도할 때는, 부사와 같은 수식 성분의 도입, 상황 설명, 부가, 반복, 인터네이션의 전환등, 여러 가지 언어 형식을 필요로 한다.

일본어 문말의 [-계]의 혼용은 전술한 형식상의 간섭과는 달리, 모어의 내면적인 심리 표출 형식과 제 2언어의 형식상의 차이로 인해 생겨난, 심리적 간섭이 형식에 관여한 특이한 간섭형이라 할 수 있다.

4.3. 어휘

4.3.1. 어휘의 단순화

1세가 사용하는 일본어의 어휘 전반에 관찰되는 특이성은, 습득 어휘가 일상 중심 어휘이기 때문에 추상 개념을 나타내는 한자어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기회가 적은 어휘가 단순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휘 양이 극히 제한된 제 1언어의 습득 단계에 있는 유아의 표현 방식과 유사한 현상으로, 복잡한 표현 형식을 필요로 하나, 어휘 양이 충분치 않아, 결국은 가장 단순한 형식을 의미적으로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장이 길어지며, 의미가 애매하게 전달되는 경향이 있다.

① ヤミ (闇), ナイショ (内緒) : 密航入国, ヤミ배 (密航船)

SA : ムカシワナ, カンゴクノヒドワナ ミンナヤミ晴る イッタリキタリシトッタケドナ…。

〈昔はな、韓国の人はな、みんな 密航船で行ったり来たりしてたけどな…。〉

YA : ウチダチワ ミンナ ナイショデ キタワケヤ, フネノツテ。

〈うち達はみんな密航で（日本へ）来たわけや、船に乗って。〉

KO : ナイショデキッテンネン。ヤミデナ, アノ ソワ サンジュネンドカナ。

〈密航で來てるねん。あの、昭和三十年度かな。〉

② テアゲ (手上げ) : 終戦, 降伏

YA : トロクナイヒドワナ ミンナテアゲデキタヒドヤ。ニオン, テアゲシトタヤロ?

〈外国人登録証ない人はみんな終戦後に来た人や。日本, 降伏したやろ?〉

③ ミスナガレ (水流れ) : 滝

HI : アーコレ, ミスナガレ, サイシュドノ ミスナガレヤ。イッタゴトアル?

〈あー, これ, 滝, 済州島の滝や。行ったことある?〉

④ ヒコキノリ (飛行機乗り) : 空港, 飛行士

HI : カンゴクイッタラ ネンワスルカラナ ホテル トマラントッテ
연기이에이키야。ヒコキノリカラチカイシナ。

〈韓国へ行ったら, 電話するからな, ホテルに泊まらないで연기の家に行きや。空港から近いしな。〉

HI : コノコワ イマ ヒコキノリ ャッテンネン。

〈この子は今飛行士してるねん。〉

⑤ ハイルトコ : 入り口

HI : コレワ ミンナ イエノ ハイルドコヤ。ミンナカネ ヨーケモ一
カッテルネン。

〈これは全部家の入口や。みんなお金たくさん儲かっているねん。〉

위의 용례에 사용된 단순화된 어휘는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빈도가 낮은 어휘들이다. 인포먼트 전원의 어휘량을 산출하면, 화제의 내용이 제한된 점은 고려되나, 전체적으로 어휘양이 적으며 특히 한자어, 형용사, 부사 등의 사용수가 많지 않음이 관찰된다. 위의 부족한 어휘들은 주로 모어와의 혼용 또는, 위에 제시한 단순화로 표현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모르는 일본어 모어 화자와의 회화에는 단순화된 표현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빈번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하나의 어휘가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관찰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手上げ」는 종전(終戰), 항복(降伏)의 의미로, 「飛行機

「乗り」는 공항(空港), 비행사(飛行士) 등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는 경우이다.

용례들 중 ①(ヤミ(闇), ナイショ(内緒))은 밀항 또는 밀항입국의 의미로 이쿠노구의 1세들간에는 거의 정착된 어휘들이기도하다. 어휘의 내용으로 보아 은어, 비밀어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어 전파되었으리라 생각들며, 내일 당시의 상황을 암시하는 어휘이기도 하다.

4.3.2. 친족 명칭

SA : ウチノオトチャン ウマヤウシコータラ, アノ, 육지ニ フネデスンデ イクネ。

〈うちの父、馬や牛買ったら、あの、陸地に船に積んで行くね。〉

SAI : 아이고! ウチ, ウランデルネ, ウチオカチャンニ。

〈うち恨んでいるね、うちの母を。〉

YA : ウチノオトチャンガ カン문데, サンジュハチネンカン カン문시テ, マー, オトチャンニカン문 ペンキヨシタワケヤ。

〈うちの父が、漢文の先生で三十八年間漢文して、父に漢文教えてもらつたわけや。〉

KI : ウチノオジーチャンガ キビシイ혀。オジーチャン가 막 キ비시一하 난…。

〈うちの祖父が厳しかったよ。とても厳しくて…。〉

위에 보인 용례는 제 삼자에게 언급시의 자신의 가족의 경칭으로, 제 삼자에게는 가족을 언급할 때 경칭을 사용하지 않는 일본어의 호칭 용법에서 일탈된 「-ちゃん」이라는 경칭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제삼자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한국어의 가족에 대한 절대 경어 체계라고 하는 문화적인 어휘의 간섭의 일면도 보이나, 노년층에 접어든 1세가 다소 유아적인 경칭이라 할 수 있는 「-ちゃん」을 사용하고 있음은 모어의 영향이외의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이 고려된다.

가족 호칭에 관한 일본어의 습득 과정에서, 자신이 불리여온 호칭을 습득하여 자신의 윗세대에게도 거부감없이 사용하고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나, 어디까지나 필자의 사견이다. 그러나, 적계 세대로부터의 일본어의

습득에 관해서는 학교 교육의 경험이 없는 1세에게 있어서, 교육용어 (문구 등의 학교 용어, 학교 행사에 관한 한자어, 외래어 등)에 관한 어휘가 풍부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1세와는 언어 사정을 달리하는, 즉 일본식 교육을 받아 일본어가 제 1언어인 2세 이후의 직계세대가 학교 및, 주위에서 습득한 일본어를 가정에서 사용함에 의해 1세가 재습득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가족 경청이라 판단함은 무리가 아닐듯 싶다.

4.3.3. 지역성과 관련된 직업 어휘

이하에 보이는 어휘는 1세의 정착과 이쿠노라는 지역 산업의 특징(가공, 제조업의 밀집)이 관련되어 만들어진, 또는 도입된 용어들로 본래의 일본어의 의미로부터 특정적인 의미로 사용 용법이 변화한 예라 할 수 있다.

- ・シダバリ (下バリ) : 기술을 배우기 전의 단순 작업을 하는 사람.
- ・マドメ (まどめ) : 재봉일의 마무리 단계의 일. 그 일을 하는 사람.
- ・ヘップ : 해프샌달 (ヘップサンダル) 의 약어. 신발 관계의 일 전반 및, 신발 관계의 일을 하는 사람, 완성된 신발을 배달하는 사람.
- ・オヤガタ (親方) : 경영자, 사장.
- ・ポンサン : 침식 제공의 공장등에서 잡일을 하는 사람.

이와 같은 어휘들은 1세의 생활 과정서 정착한 생활 어휘들로, 흥미로운 점은 シタバリ, マドメ, ヘップ 등의 어휘는 1세 뿐만이 아닌 이쿠노구 주변의 봉제, 신발 제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⁷⁾. 이들 중, ヘップ는 재일 코리안의 기간 산업 중의 하나인 신발 제조업의 명칭으로 ヘップ산업이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세력이 확장된 어휘이기도 하다.

1세들의 조어가 주변에 전파하여 정착한 어휘들로, 주변의 일본어 모어화자들이 1세들에게 행한 언어적 조정(accommodation)이 정착에 큰 요인이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オヤガタ, ボンサン 등에 관한 용어는 단순 노동에 종사했던 초기의 단계에서 사용하여, 현재에까지 유지되고 있는 어휘들로 오야가타의 경우, 종래의 의미에서 회사의 오야가타, 빠침코의 오야가타 등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음이 관찰된다. 폐쇄된 사회 안에서 이동의 경험이 없이 생활함으로 인한 고형(固形)의 유지로, 1세들이 사용하는 일본어의 생활 어휘에는 이러한 고형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에 관련된 어휘들은 오사카시 이쿠노구의 1세들의 내일과 정착의 과정, 현재의 생활에 이르기까지의 1세들의 정착사를 대변하는 어휘들인지도 하다.

5. 맷음말

이상, 이쿠노구에 정주하는 재일 코리안 1세의 일본어를 실제의 담화예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역사적인 흐름에 의해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는 1세의 일본어는 이국에서의 생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강요된 일본어로, 한국어의 체계 및 한국인의 생활이 내재하는, 한국 문화와 함께 하는 일본어이다.

제 2언어로써 일본어 교육의 경험이 없는 1세의 일본어 운용에는 개인차는 있으나, 이미 체계화된 모어를 기반으로 형식을 간략화한 독자적인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모어의 형식을 도입하여, 일본어의 형식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의미의 전달을 풍부하게 하는 수단으로 체계화하고 있음이 1세 일본어의 큰 특징이다. 표준에 개의치 않고 독자적으로 생활하는 삶의 방식이 투영된 일본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1세의 일본어는 얼핏 보기에는 오용, 또는 잘못된 일본어로 평가되기도 쉽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이쿠노 주변의 1세 거주 지역 안에서는 어엿하게 통용되는 일본어의 한 변종이라고 인정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는 언어의 형식보다 의미 전달을 우선시한 목적에서 발생한 독자의 변종으로, 이러한 변종의 발생에는, 내일의 역사적 배경, 정착의 사회적 환경, 재일 코리안의 밀집에 의한 지역적 특수성이 주된 발생의 요인이나, 어디까지나 자문화의 범주안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1세의 내면적 의식과 이언어 집단에 대한 마조리티의 평가와 태도의 마찰에서 생성된 보다 심층적인 요인도 생각된다.

* 본고의 내용중 일부는 金美善 (1998) 「在日コリアンの日本語」 『日本学報』 17 大阪大学日本学研究室에 게재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주〉

- 1) 재일 코리안의 정착과 지역 산업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gihara (1996) 을 참조 바람.
- 2) 大阪市 生野区役所의 외국인 등록계에 의함. 1996년 현재.
- 3) 金贊汀 (1985)『異邦人は君ヶ代丸に乗って 一朝鮮人街猪飼野の形成史』岩波新書.
- 4) 梅田 (1985) 는 일본어 습득중의 한국어 모어화자에게 보이는 발음의 문제점으로 清音·濁音, 語頭濁音의 破裂音化, 擬音·促音의 非モーラ化, N의 ŋ化, 長母音의 發音, h의 語中에서의 弱化, ts, dz의 發音, 子音同化 등을 지적하고 있다.
- 5) 어두/어중은 편의상의 구분으로 담화 레벨에서는 화자의 발화의 전개과정 (포즈를 두는 방법, 숨쉬기 등의 방식)에 의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 6) 실제로 일본어의 관서 방언에는, サムイ / samui / 와 サブイ / sabui / (寒い), ドク / doku / 와 ノク / noku / (退く)의 음가가 혼동되어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 7) シダバリ, マドメ는 1세의 발음이며, 주위의 일본어 모어화자는 シタバリ, マトメ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参考文献〉

- 天沼寧他「日本語音声学」くろしお出版, 1978.
- 伊藤克敏『こどものことば—習得と創造—』勁草書房, 1990.
- 任 栄哲『在日・在米及び韓国人の言語生活の実態』くろしお出版, 1993.
- 梅田博之「韓国人に対する日本語教育と日本人に対する韓国語教育」『日本語教育』55, 1985.
- 生越直樹「在日朝鮮人の言語生活」『言語生活』376, 1983.
- 門脇誠一「日・朝対照研究—「漢語+する」と「漢語+hada」について—」, 1990.
『北海道東海大学紀要 人文社会科学系』2, 海道東海大学国際文化学部
- 金 贊汀『異邦人は君ヶ代丸に乗って 一朝鮮人街猪飼野の形成史』岩波新書, 1985.
- 金 美善「在日コリアンの日本語 一大阪市生野区に居住する一世の事例—」『日本学報』17, 大阪大学日本学研究室, 1998.
- 真田信治他『社会言語学』おうふう, 1992.
- 鈴木一彦『時枝誠記日本文法・同別記 口語編』東洋社, 1981.
- 中村良広『シンガポールの英語』『アジアの英語』本名信行編 くろしお出版, 1990.
- 仁田義雄『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人称』ひつじ書房, 1990.
- 原尻和樹『日本定住コリアンの日常と生活 一文化人類学的アプローチー』明石書店, 1997.
- 黄 鎮杰「在日韓国人の言語行動 一コード切り替えに見られた言語体系と言語運用—」『日本学報』13, 大阪大学日本学研究室, 1994.

- 山本俊治「大阪府の方言」『講座方言学7 近畿地方の方言』国書刊行会, 1982.
- 山本雅代『バイリンガル —その実体と問題点—』大修館書店, 1991.
- 大阪市役所労働組合生野区役所支部『共生の街から 一在日韓国・朝鮮人問題を考える—』兵庫県部落問題研究所, 1990.
- 生野区役所『生野区50年の歴史と現状』大阪市生野区役所総務課, 1993.
- Sugihara, Toru "The Integration of Koreans into Japanese Urban Environment-The Growth of Foreign Workforce in the Rubber Industry of Prewar Osaka—"『日本学報』15 大阪大学日本学研究室, 1996.
- Weinreich, U. *Languages in Contact*, The Hague:Mouton, 1953
- 熊谷明泰「日本語語彙의 <-하다>用言化에 관한 文法的制約」『國語研究史III』一潮閣, 1992.
- 金 静子「일본내의 한·일어 2언어 병용화자 (한국인)의 Code-Switching에 대하여 — -하다와 する를 중심으로—」『二重言語學會誌』11號 이중언어학회, 1994.
- 李 崇寧『濟州島 方言의 形態論的研究』塔出版社, 1978.
- 鄭 榮珍『濟州島 方言의 終結語尾 研究』『東岳語文集』18, 東國大學出版部, 1983.
- 崔 鶴圭「濟州方言의 紋法體系研究 一語末語尾 活用을 중심으로—」濟州大學校教育大學院碩士學位請求論文, 1989.
- 韓國方言學會『國語方言學』螢雪出版社, 1995.
- 玄 平孝「濟州島方言의 活用語尾에 대한 研究」『濟州大學論文集』6, 1974.

BOOK REVIEW

<The Korean War, an unanswered question>

Dr. Channing Liem, 1992

Committee For A New Korea Policy
33 Central Ave., Albany, New York. 12210.

Ambassador Channing Liem, who passed away a few years ago, was an internationally known Korean scholar-diplomat who had devoted his whole life to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He had also fought indefatigably for the democratization of S. Korea. The publication of this important book which is largely based on his personal eye-witness accounts and on expert research from a political insider's point of view is his final everlasting contribution to the tru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Dr. Liem was born in Korea in 1909 and was graduated from Soong-sil College in 1930. After seeking refuge from the Japanese rule in U.S., he attended Lafayette College and Princeton University, where he earn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in 1945. He returned to Seoul in 1948 as an advisor to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and the secretary to Suh Jae pil who was Chief Advisor to General Hodge. Dismayed by the partitioning of Korea which was the result of U.S. support of "their fair-haired boy" Syngman Rhee, he returned to U.S. and waged an overseas campaign against the Rhee dictatorship.

Followig the overthrow of Rhee by the April 1960 student uprising he served as Korean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in the Chang Myon Government. He resigned in protest after the Pak Chung Hee military coup and led opposition to U.S. support of the Park military dictatorship.

Dr. Liem taught Political Science at Princeton University and later

at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New Paltz. He was also an ordained minister serving once as Pastor of the Korean Church and Institute in New York city after graduating from the New York city Theological Seminary.

The book is a historical mine for nuggets not found anywhere else. For instance, we learn that Dr. Liem met and enlisted Dr. Albert Einstein's help, his world famous colleague at Princeton, for Korean cause for independance. "...Their view was clearly echoed by Prof. Albert Einstein. During a visit with him in 1955 which unfortunately turned out to be my last, the noted scientist commented that in his view the United States was manipulating the UN for its benefit. He added that the world organization was being exploited by the great powers at the expense of the small nations. He asked me whether I had read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by I. F. Stone. When I answered that I had and found it an excellent research, he was pleased. He went on to say great powers do not act on the basis of facts only but manufacture the facts to serve their purposes and force their will on smaller nations.

Dr. Einstein emphasized that peace in the world depended on the common people the world over who know the facts as they are and adhere to them regardless of what the great powers tell them. He then proceeded to ask me questions about President Rhee and Premier Kim Il Sung: what sort of men were they? I had no difficulty briefing him on Dr. Rhee as I had known him long and intimately at times. On premier Kim, I had to beg his indulgence until our next visit for my knowledge about him was severely limited at the time.(p 57.)"

We also learn that It was Premier Chou En Lai of China who was chiefly responsible for deciding to send Chinese volunteer forces to support the DPRK Army. Stalin was against it, fearing the start of World War III.

Because of the macro-historic importance of his conclusions, the reviewer would like to quote a few of them here in totality for all to read:

3. Upon occupation of the southern half of Korea, the U.S. played a leading role in creating a separate right wing State in the south

BOOK REVIEW

over which it still maintains military control and political influence.

5. The U.S. is responsible for keeping the Korean peninsula in a state of "no war, no peace," which keeps the cold war alive there while almost everywhere else it is disappearing. It saps the resources of northern as well as southern Korea which are vitally needed for the social development of both.

"I submit that it is incumbent upon the American people to realize, after 45 years of United States involvement in Korea, that Koreans are one people, indivisible; never have they taken the road of aggression abroad, the sole exception being South Korea's involvement in Vietnam under the prodding of the Johnson Administration. Koreans are fiercely nationalistic and will, sooner or later, tear down the barrier that has split their country in two. Koreans will regard as friends those nations who support them in the aim of reunifying their country. Clearly the American people must make a choice - to stand with the Korean people in their struggle for national sovereignty or to acquiesce to the status quo at the risk of another war.

Let there be peace in Korea, not a fragile truce. Let Korea be free of foreign troops and nuclear arsenal. Let her reduce her arms to the lowest level sufficient for defence. Let her be reunited as one nation in peace and friendship with all na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Let there never be another Korean War." (p64)

Amen. Finally, the reviewer would like to submit the last quoted paragraph as the epitaph for Ambassador Professor Reverent Doctor Channing Liem. (M. U. KIM)

투고규정

1. 『국제고려학』(이하, 본지)은 코리아학에 관한 논문, 서평 등을 게재 및 발표함으로써 코리아학의 발전에 기여한다.
2. 본지에 투고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고려학회(이하, 본학회)의 회원
 - (2) 본학회가 투고를 의뢰한 사람
3. 논문, 서평의 심사는 본지편집위원회가 위임한 심사위원이 하며 채용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4. 원고는 한글 혹은 영어로 집필한다. 원고를 한글로 쓸 경우 영어로 250단어 정도의 요지를 붙이며 영어로 쓴 원고에 한글로 600자 정도의 요지를 붙인다.
5. 한글로 쓴 원고는 정서되어 있어야 하며 영어로 쓴 원고는 타자로 작성된 것이여야 한다.
6. 원고의 분량은 다음과 같다. 한글로 쓴 원고의 경우 논문은 16,000자 정도로 하며 서평은 2,000자 정도로 한다. 또한 영어로 쓴 원고의 경우 각각 10,000단어, 1,200단어를 기준으로 한다.
7. 편집위원회는 교정쇄를 필자에게 송부하며 필자는 교정쇄를 받으면 조속히 점검 및 교정을 하여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8. 원고를 다음의 주소에 보내야 한다.

〒581-8511 大阪府八尾市樂音寺 6-10 大阪経済法科大学内
国際高麗学会 「国際高麗学」編集委員会

9. 게재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논문모집요강

『국제고려학』 제5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보내 주신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선정작업을 거쳐 본지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넓고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본지가 코리아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Notes for Contribu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JKS) i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SK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 Studies through the publication of articles and book reviews on Korea.

Contributors are Limited to:

- (1) members of ISKS; and
- (2) those who are asked to contribute by ISKS.

All manuscripts submitted will be referred to editorial advisers for careful review. The Editorial Board, however, has the say in those selected for publication.

All manuscripts should be written either in Korean or English. A 250-word abstract should be attached to a Korean manuscript, while a 600-character Korean abstract to an English manuscript. All manuscripts should be typed.

Articles should not exceed 16,000 characters in Korean and 10,000 words in English; book reviews should not exceed 2,000 words in Korean and 1,200 words in English.

Proofs will be sent to authors for correction before final publication.

All contributions to the journal should be sent to:

The Edi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6-10, Gakuonji, Yao, Osaka, 581-8511, Japan

국 제 고 려 학

발행일 : 1998년 3월 30일

편집인 : 김성수

발행처 : 국제고려학회

日本国大阪府八尾市楽音寺6丁目10番地

大阪経済法科大学

TEL 0729(41)8211 内線 221, 222

FAX 0729(41)4665

인쇄 : (有)P.word TEL 0426(35)6021

CONTENTS

■ ARTICLES

KIM Do Jong	<i>Identity of National Culture in the Theory of Cultural Formation</i>	3
KIM Gyung Il	<i>A Study on Restoration of Cultural Homogeneity of Korea</i>	22
CHUNG Yung Sun	<i>A Study on Formative Process of National Consciousness of Self-reliance and Independence in the Korean Peninsula</i>	43
BYUN Yung Ho	<i>The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Korean Feudal Nationalism</i>	61
KIM Ae Ryung	<i>The View of Historiography and the Literature World of Bu-sik Kim</i>	81
CHUNG Seung Hye	<i>Japanese Education and Texts in the Late Chosun Period</i>	94
KIM Mi Sun	<i>Japanese Spoken by Korean Immigrants to Japan in IKUNO ward, Osaka; The Example of Informants from CHEJUDO</i>	135

■ BOOK REVIEW

KIM Moon Wook	<i><The Korean War, an unanswered Question></i>	159
---------------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Editor:

KIM Song Sou

Published by: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6-10, Gakuonji, Yao, Osaka 581-8511 Japan

Printed by:

P.word Co. Ltd.

Issued:

March 30, 1998